



6

1986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6호

(루게 464)



## ◆◆◆◆◆◆◆◆ 차 례 ◆◆◆◆◆◆◆◆

혁명적문학예술창조의 앞길을 밝힌 고전적문헌 .....	3
바위우의 글발 .....	7
6월의 밤하늘에 .....	8
영원한 모습 .....	8
그이는 말없이 돌아서시였다 .....	9
진격의 나팔소리 .....	9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에 .....	10
즈음하여 드리는 헌시 .....	10
빛나는 삶의 언덕에서 .....	10
영광의 자욱을 따라 .....	11
삼지연 못가에서 .....	16
빛이여, 불이여 (외 1 편) .....	16
답사의 길을 걸으며 .....	17
그 정다운 자장가소리 .....	18
혁명전통주제소설 창작에서 새로운 탐구 .....	19
리정표 .....	24
나의 저 푸른 하늘은 .....	24
용해공의 신념 .....	25
백두의 행군길 .....	26
터전 .....	28

눈보라를 안고가자 .....	37
미지막 눈보라 .....	38
나는 사랑한다 (외 1 편) .....	44
인간의 값 .....	44
겨울에도 샘물은 얼지 않는다 .....	45
이런 류의 시를 기다렸습니다 .....	53
개선문앞을 거닐 때면 .....	54
고향집 트랙에서 .....	54
시대정신과 생활의 심오한 탐구 .....	55
신념 .....	60
그 언제나 내 마음속에 .....	62
속담풀이 .....	62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 탄생기념일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 요강 .....	63
나는 연공 .....	64

## 혁명적문학예술창조의 앞길을 밝힌 고전적문헌

김정웅

포성과 폭음이 하늘땅을 뒤흔들던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서른다섯해가 흘러갔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문제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올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951년 6월 30일 작가,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이력사적인 문헌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문학예술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과 미학적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해명한 위대한 문헌이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던 당시의 혁명적현실은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수준과 그 혁명적역할을 더욱 높이며 인민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숭고한 애국심, 견결한 투지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심어주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적 현실에 상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있었다. 작가, 예술인들은 정의의 싸움에 일떠선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그들의 생활, 투쟁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창작활동은 현실에서 뒤떨어져있었다.

더우기 문학예술부문에 기여든 림화, 김남천 등 반당반혁명분자들에 의하여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이 류포되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이 발로되였으며 지어 염전사상을 고취하고 인민들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을 모독하는 작품들까지 창작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시기

문학예술은 그 사상적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형식에 있어서 영웅적인민이 요구하는 문학예술로 발전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적현실과 이 시기 문학예술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로작에 제시되어있는 사상과 리론가운데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애국심은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사상감정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열렬한 애국심, 참다운 조국애를 지녀야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나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도록 교양하는것은 당사상교양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문학예술이 사람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면 자기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조국애, 애국심을 뚜렷이 형상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할데 대한 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예술창조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애국심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휘하였다.

오랜 세월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나라의 주인, 새 사회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인민민주주의제도아래서 행복한 새생활을 누려온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한사람같이 견결히 떨쳐나섰으며 전선과 후방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숭고한 애국심을 발휘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같이 인민대중의 애국심이 전면적으로 높이 발휘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조국애, 애국심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에 그 기초를 두고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애국심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발휘한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할데 대한 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나 광범한 인민대중을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문학예술의 혁명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이시기 문학예술앞에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제기되었다.

문학예술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조국애의 특성과 그 발현형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 문제를 독창적으로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에게 애국심을 형상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창작적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애국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 인민이 지닌 애국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주주의제도와 그 제도아래에서 꽃피는 보람차고 행복한 새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데서 생겨난다. 참다운 조국애는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애국심이 추상적으로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속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게 되는데로부터 문학예술작품에서 애국심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낼데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이 흘러나온다. 애국심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든 사상감정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적인 설명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대로 생활적형식으로 그려내는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예술이 틀어쥐고나가

야 할 주제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문학예술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과서로 적극 복무하며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참담게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묘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가렬한 전쟁의 나날 인민군장병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완강성을 형상하는것은 이시기 문학예술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대중적영웅주의라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견지하여야 할 미학적원칙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웅들의 형상을 그린다고 해서 신기한 사건,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향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과 그들의 자제들이며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을 그대로 묘사하면 공화국영웅이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속에서 나온 영웅, 인민출신영웅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할데 대한 원칙은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그 인식교양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는 전선영웅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들과 함께 후방과 적강점지역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묘사한 작품들을 창작하며 인민군대와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는 문예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과업과 그 실현방도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비롯한 원썬들을 폭로단죄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원칙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또한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적에 대한 불붙는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 작가들은 미제침략자들을 교활한자들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할뿐아니라 가장 포악하고 가장 추악한 현대의 야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 및 민족적원수들을 준렬히 폭로단죄하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중요한 형상과업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예술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는 침략자로서, 현대의 야만으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본질과 야수적만행을 준렬히 폭로단죄하는것은 문학예술앞에 나선 중요한 전투적임무였다. 그러나 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 자체만을 보여주는데 그쳐서는 놈들의 반동적본질을 정확히 드러낼수 없으며 그 추악한 정체를 적라라하게 폭로단죄할수 없다. 작품에서 원수는 원수로서 전형화되어야 하며 진실하게 형상화되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부정인물들, 원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려면 놈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 일면만을 그려서는 안되며 포악성, 추악성, 부패성 등 놈들의 반동적본질과 더러운 정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보여야 한다.

인물성격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한 측면만을 일면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사실주의적전형화가 아니다. 야수적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의 반동적본질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며 반동적본질의 구체적인 표현형태로 될뿐이다. 원수들의 야수적만행만을 일면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일종의 자연주의적경향이다. 이러한 창작경향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에서 허용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을 폭로단죄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놈들이 감행하는 야수적만행과 함께 포악성과 추악성, 부패성과 멸망의 불가피성 등 반동적본질과 더러운 정체를 전면적으로 예리하게 폭로하여야 원수들의 전형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며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을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위대한 예술의 진정한 창조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

수한 예술작품으로서 인민의 사랑을 받지 않는것이 없으며 또한 인민의 이해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수한 예술작품이 될수 없는것입니다.》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이며 참다운 향유자이다.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결정적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사상감정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 로작에는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조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하며 인민문학, 구전문학, 민요등을 연구하여 창작활동에 널리 리용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과거의 문학예술에서 진정으로 인민적인것을 계승발전시키며 비과학적이고 저속한것들을 제거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물동을 창조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로작에서 제시된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사상감정에 맞게 창조하며 과거의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발전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도 다른 나라의 선진문학예술을 창조적으로 섭취할데 대한 문제, 창작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로, 투사로 준비할데 대한 문제 등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심오하게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되어있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에 맞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새시대에 맞게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작품창작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 인민군대와 인민들을 영웅적항전으로 불려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작가,

예술인들은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기동적이고 전투적인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시기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매한 혁명적품모와 불멸의 업적,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과 인민군대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뜨거운 충성심을 형상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정시 《사랑의 손길》(1952년, 김우철), 《크나큰 그 이름 불러》(1952년, 백인준), 《**김일성장군**님께》(1953년, 김영철) 등과 같은 작품들에는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고매한 덕성, 수령님에 대한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 불타는 충성심이 감명깊게 형상화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작가, 예술인들은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들인 《불타는 섬》(1952년, 황건), 《구대원과 신대원》(1952년, 윤세중), 서정시 《당과 수령을 위하여》(1952년) 김영철), 희곡들인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1952년, 한태천), 《푸른 신호》(1952년, 박영호), 《그가 사랑하는 노래》(1952년, 송영) 등과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었다.

또한 이 시기에 후방과 적강점지역에서의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단편소설 《첫눈》(1952년, 변회근),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1953년, 천세봉), 서사시 《이러리별》(1952년, 민병균) 등과 같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단편소설 《백파구장군》(1952년, 김형교), 희곡 《강화도》(1953년, 송영) 등과 같이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폭로단죄하는 작품창작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문학예술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었을뿐만아니라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에 와서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찬란한 결실을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을 창작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지도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수많은

은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똑바로 잡을데 대한 문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핵으로 하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을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할데 대한 문제, 전투를 주인공들의 생활과정으로 그리며 전쟁물작품에서 실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원형과 전형의 호상관계를 옹계 해결할데 대한 문제 등 전쟁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사상미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어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다채롭게 장식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에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조국에 대한 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사람들을 열렬한 조국애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할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참된 삶의 품이다. 조국에 대한 교양을 잘하는것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근로자들을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문화를 잘 알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며 자기가 살며 일하는 사회주의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훌륭하다는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조국애의 본질적특징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히시고 문학예술작품에 조국애를 형상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우리 인민의 조국애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참다운 조국애의 계급

적본질과 그 표현형태가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조국애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며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의 뚜렷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애를 형상화하는데서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으며 실로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라는 뜻깊고 의의있는 종자를 내세우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애와 불굴의 투지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낸 예술영화 《월미도》를 비롯하여 다부작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등과 같은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 우리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를 깊은 서정을 담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서정시 《나의 조국》을 비롯한 서정시편들, 사회주의조국의 룡성번영과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품모를 형상한 장편소설 《령마루》, 예술영화 《불타는 마음》을 비롯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들, 선조들이 발휘한 애국심을 진실하게 그려낸 장편소설들과 예술영화들...

참으로 조국애는 우리 문학예술에 맥맥히 흘러넘치는 사상미학적지향이며 우리 문학예술의 높은 사상교양적역할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근로인

민출신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방침을 구현하는데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숨은 공로자들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숨은 공로자는 근로인민출신영웅의 참다운 전형이며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김수경),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 《평범한 사람》 등과 같은 숨은 공로자들의 헌신적투쟁과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그려낸 문학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어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으로작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하신 문예방침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향도의 손길아래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력력히 과시하고있으며 이 로작이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고전적문헌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으로작에 제시되어있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 더 훌륭히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 바위우의 글발

전병구

굽이마다 마주서는 기묘한 바위  
광채를 뿌리는 구룡연의 절경  
신비로운 그 모습에 넋을 잃고 서서

한그루 소나무를 받들고  
천년을 굳어진 바위벽에  
불길처럼 새겨진 《지원》의 글발  
마음속에 안아보는 뜨거움이어 !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 조국의 절묘함도  
민족의 넋을 키워 뜻을 멀리에 두신  
김형직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빛났거늘

눈서리 내려도 철사에 휘감겨도  
꺾이지 않던 대갈은 그 절개  
여기 바위우에 새겨졌도다  
흐르는 세월속에 더더욱 빛을 뿌릴 글발  
아, 《지원!》



## 6 월의 밤하늘에

림종근

행복한 이 땅우에  
크나큰 명절의 기쁨을 안고  
벌써 몇십번째로 다시 왔느냐  
잊지 못할 보천보의 그날밤

저기 광장-  
꽃불속에 고조되는 춤노래를 안고  
거리를 메운 꽃물결을 싣고  
력사의 그 밤은 소리치며 찾아와  
력사의 그 시각이 조용히 다가온다  
한초한초

황철나무 설레이는 가림천가에서  
장군님의 공격명령 기다리던  
유격대원들의 그 심정인가  
모두가 가슴조이며 가슴조이며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세상에 전하던  
영광의 그 시각을 기다리는데

아! 땅우의 기쁨을 다 걸어안고  
축포가 축포가 오른다  
내려앉았던 하늘을 높이 들어올리며  
영켜붙였던 어둠을 활활 불태우며  
혁명의 해불이 타고르던 하늘가에  
축포가 축포가 하늘 가득 오른다

웃음이 기쁨이  
만리 하늘에 끝없이 피고피는데  
참말로 위대한 장군님  
꺼져가던 민족의 숨결을 이어주시며  
높이 추켜드셨던 불멸의 해불이

저렇게 크나큰 행복을 불러왔는가

그 해불에 어렸던  
광복의 노을  
삼천리에 피여내리었고  
그 해불에 비겼던  
민족의 념원과 희망이 꽃피여  
세계에 빛나는 주체의 조선이 솟았나니  
그날의 불멸의 총성을 이어  
밤하늘 진감하는 축포소리여  
그날의 만세소리를 이어  
하늘땅에 넘치는 기쁨의 환호성이여  
그날에 혈뺐었던 인민들의 행렬에 이어  
거리와 광장을 메운 락원의 꽃물결이여

땅우에도 하늘에도  
온통 웃음이며 기쁨인  
락원의 세월을 불러오시고도  
우리 수령님  
그날처럼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저기 패궁정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인민의 기쁨 지켜주시고  
인민의 행복 꽃피워주시나니

아! 한껏 피여라 인민의 행복이여  
한껏 웃으라 복받은 인민이여  
력사의 그날밤에  
벌써 마련되고 마음속에 올랐던 축포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오르라  
끝없이 행복한 조선의 모습이여

## 영원한 모습

박남원

광선사진관  
란간을 짊으며 널충계를 오르니  
촬영실 한가운데  
어제날과 다름없이 서있는 세발사진기

김정숙어머님 그리도 자주 찾아오셨건만  
국내공작시절의 빛나는 그 영상  
단 한장의 사진에도 못남긴 자책  
차마 그 얼굴 쳐들수 없어  
눌러쓴 차광막 지금껏 벗지 못하고있는가

어쩌면 세상에 그런 실책도 있다더냐  
아쉬워라 그리움에 젖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귀한 그 한시절

순간만이라도 되돌려올수는 없느냐

순간을 기억하여  
길이 남는것 사진이라더니  
력사의 순간을 놓치여  
우리는 지금  
무궁한 세기를 잃은듯한 아쉬움에 젖나니  
말하여다오 너 력사의 증견자여 !

그 누구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연  
압록강건너 떠나실적 그날에사  
말 못하던 그 사연 전해주셨네

-나는 떠나가면 별일없어도

공작원과 함께 찍은 사진때문에  
남아있을 동무들이 화를 입게 된다-고

아, 못잊을 그 사연  
몇십 몇백장의 사진이 남았던들  
우리 마음속 이처럼 뜨겁게야 남으랴  
인생의 꽃시절 기꺼이 바쳐  
광복의 해발 더욱 빛내인 어머니의 그 영상

이처럼 생생히야 남을수 있으랴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인민의 마음속에 높뛰는 숨결로 남아서  
우리의 노래속에 뜨거운 선물로 남아서

오, 광선사진관의 세발사진기여!  
너는 남기지 못한것이 아니구나  
김정숙어머님의 위대한 그 모습을  
우리의 가슴속에  
더욱더 우렁이 새겨주고있구나

## 그이는 말없이 돌아서시였다

김만영

멀리 저 멀리  
떠나가는 대오를 바래우시고  
말없이 돌아서신 김철주동지  
초원의 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소사하의 빈 집에 들어서시였다

아직도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이 흐르는  
마당가의 장작무지며  
어머님의 파스한 손길이 스민  
추녀아래 장독을  
다시금 다시금 바라보시며  
정녕 인제는 혼자시란말인가  
어머니 잃은 아픔 채 가지지 않았는데  
장군님마저 멀리 떠나가셨으니  
아아, 그 어린 가슴 달래기엔  
너무도 쓸쓸한 소사하의 초가집

허나 결연히  
걸음 옮기시는 김철주동지  
오직 혁명  
투쟁으로 그 대오와 함께  
장군님곁에 마음두신 그이셨기에

함께 계셨다 별 많은 밤이면

가사

공청원들의 새별눈동자에  
밝아오는 광복의 노을빛을 안겨주며  
해살이 눈부신 아침이면  
짓눌린 소년들의 가슴에 희망을 안겨주며  
그 길이 장군님과 함께 제시는 길이고  
그 길이 조국으로 가는 길이기에  
외로움도 피로움도  
가슴속깊이 묻어두시며  
투쟁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그이

심장에서 붉은 피가 뛰듯  
높뛰는 그 가슴에서  
조직이 살아 세차게 고동쳤고  
투쟁의 무대  
혁명의 전구는 넓혀져갔거니

아 정녕  
떠나가는 대오를 바래우시고  
말없이 돌아서신 그이시였던만  
가장 준엄한 나날  
조직을 지켜 혁명을 지켜  
그이는 그 대오와 함께 걷고있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대오에 함께  
있는것이여라

## 진격의 나팔소리

최로사

유서깊은 삼지연의 진격의 나팔수  
불멸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부르네  
백두산을 주름잡아 싸움터에 울리던  
항일의 나팔소리 오늘도 들려오네

가야 할 혁명의 길 아직도 멀고멀어  
나팔수의 마음은 앞으로만 달리는가

그날의 군복자락 기폭처럼 날리며  
진격의 나팔소리 우리 심장 울려주네

세월은 흘렀어도 그날의 나팔소리  
오늘도 대오앞에 힘차게 울리네  
신렬들의 뒤를 따라 우리 갈 길 준힘해도  
시련의 언덕 넘어 승리의 한길 가리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드리는 헌시

수다 라니 판데이

당신은 안아오셨나니 자주의 새 봄을  
눈부신 빛발속에서  
금수강산의 모든 생활 꽃피워  
황홀한 락원을 펼쳐주셨네

위대하여라 사람의 자주성  
무궁무진하여라 인간의 힘과 지혜  
만물의 주인은 오직 사람  
당신께서 추켜드신 자주성의 기치아래  
새생활창조를 위해  
펼쳐나셨다네 인민은 혁명에

오, 드리노라 당신께  
가슴속깊은곳에서

샘솟아오르는 아낌없는 찬사를  
주체사상은 밝히였다네  
자기 운명의 개척자는 자기 자신  
혁명의 추동력도 자기 인민  
인민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  
인민은 이 세상의 가장 결정적인 힘

오, 영명하신 지도자께  
드리옵니다 이 글월을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담아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께

(필자는 인디아 캄푸르종합대학  
녀자교원대학 학장임)

## 빛나는 삶의 언덕에서

리소영

바라보면  
오르는 층계의 끝은 한눈에 보이고  
오르면 층계를 딛고 한달음에 오를 거리이건만  
빛나는 삶이 오른 령마루는 아득히 높아  
내 선듯 딛고 오를수 없어라

세월이 흐를수록  
결을 떠난 사랑하는 전사들을 잊지 못해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중 헤아리시며  
친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의리의 마음  
층층 계단마다 고이신 려사룡의 돌층계여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고 진실한 인간들이  
혁명에 바친 아름다운 삶을 안고 오른  
돌층계여서  
한계단 또 한계단 크나큰 뜻 새겨안으며  
축축히 젖어드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 오르거늘

장군님을 태양으로 받들어모신 전사들  
삶의 순간순간을 신념과 의지로  
인생의 값높은 길을 걸어오른 언덕이여서  
량심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기노라

아, 혁명렬사룡 여기로 이어진 혁명의 길은  
그 얼마나 준엄하고 간고했던가  
눈보라 천리길을 헤쳐넘으며  
한자루의 총을 얻기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더라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웨치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넋이 여기로 올랐더라

아, 천년을 살아도 아니 바꿀 인간의 한생이  
그 무엇을 준대도 아니 바꿀 인간의 존엄이  
여기 올라 영생의 모습으로 섰나니  
내 따르고픈 마음 오르고픈 소원 간절해도  
티 하나 아니 묻은 깨끗한 량심 지니지 않고서는  
진정 그 누군들 쉽게 오르지 못하리

내 걸어온 길지 않은 생의 나날에  
우리 수령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한생을 바쳐 오늘의 행복을 찾은 이분들앞에  
내 누리는 행복의 그 값비싼 대가와 크기를  
어느 한 순간이나마 조용히 생각해본적 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무슨 말로 자책의 이 마음 터놓으랴  
무슨 말로 영생하는 삶을  
외람되게 칭송하랴

여기에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고  
심장에서 뛰는 피방울마저 티없이  
맑게 정화되는  
아, 인생의 상상봉  
인간존엄의 절정이어

## 영광의 자욱을 따라

김윤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훌륭히 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과 통성의 대번영기를 이루어가시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교제신다.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실 숭고한 뜻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1950년대에 벌써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로정을 몸소 개척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갈 새세대들을 이 영광스러운 길우에 세워주시였다.

1956년, 우리 혁명의 시련기에 붉은 기치 높이 드시고 걸음걸음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실 숭고한 뜻 아로새기며 그이께서 걸으신 백두의 행군길.

이 길은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영광찬란한 행군길, 우리 혁명의 피줄을 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나가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는 력사적인 행군길,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행군길이다.

올해 6월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로정을 처음으로 개척하시고 우리 인민을 백두의 행군길에 보무당당히 이끌어세워주신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뜻깊은 력사적인 날을 맞으며 서른해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걸으신 불멸의 로정을 따라 기행의 길에 올랐다.

### 충성으로 높이 받드시는 마음

철쭉은 백두산기슭에도 싹이 질어가고있었다. 해빛도 유난히 따사롭고 하늘도 창창히 맑은 이른아침, 해산에서 뺨스를 탄 우리 일행은 압록강의 푸른 물줄기를 거슬러오르면서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를 향하여 달렸다.

자동차길 밑으로는 보기에도 아담진 기차가 객차칸들을 주련이 달고 우리 뺨스와 내기를 하듯 달리고있었다. 열어놓은 차창마다에서 푸른색, 붉은색 수건들이 나뭇가지 노래소리 랑랑히 울렸다.

혁명전적지를 찾아가는 답사자들이였다.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한두번만 다녀본 우리들이 아니였지만 뺨스를 타고 달리는 마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이 길을 처음 달린 그날의 답사대원들처럼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눈아래에 보이는 압록강, 연분홍진달래꽃을 수놓은 한쪽의 그림처럼 유유히 흘러내리는 압록강은 볼수록 더욱 유정하였다.

가볍게 피어오르는 안개발, 진달래꽃이 타번지는 바위츠렁과 연록색의 이갈나무숲...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눈에 담아보신 그 꽃나무들과 그이의 감회깊은 사색이 깃든 츠렁바위들은 고이 간직한 그날의 영광을 우리에게 속삭여주고있었다.

백두의 푸른 정기 한몸에 지니시고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으로 가는 답사의 행군길에 오르시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실 숭고한 뜻 아로새기신 그 자욱자욱을 더듬는 우리의 마음은 진달래꽃처럼 붉게 타올랐다. 시흥을 시로 표현할줄 몰라 늘 자기불만인 최동무가 끝내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유격대행진곡》를 선창했다.

우리는 가슴을 들먹이며 목청껏 소리를 합쳤다. 어느덧 뺨스는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거리의 중심에 떨어섰다.

우리는 뺨스에서 내려 옷대무시를 바로잡고 마음도 경건히 가다듬으며 가림천기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동상앞으로 다가갔다.

보천보혁명전적지답사를 위대한 수령님동상을 찾아뵙는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되새겨졌다.

《우리들은 원수님의 동상부터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서른해전 6월 8일 한낮, 보천보에 도착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먼길을 오시기에 피로하시겠는데 우선 숙소에 가시여 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날 력사의 땅 보천보에 들어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감회는 남달리 크시였다.

19년전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여 기쁨에 목메여 울고 조국광복의 찬란한 렬명이 눈부시여 끝없이 환호하던 땅, 삼천리강토를 들었다놓은 보천보전투와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캄캄한 어둠을 불태우던 불멸의 화불! 그 화불아래 모여섰던 군중들이 보이시는듯 그이께선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었다.

려수덕과 곤장덕의 우중충한 산발우로 시원히 열린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그이를 맞이한 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 마음이 무거우시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으로 하여 당시까지만 하여도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기슭의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는 자세마저 똑바로 서지 못한 현상들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그리하여 숙소에서 먼저 들어 먼길의 피로부터 푸실것을 말씀올리게 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러 왔는데 어떻게 쉬기부려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동상부터 먼저 찾아뵙겠다고 말씀하시었던것이다.

이어 그이께서는 수령님동상앞으로 대오를 이끄시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는 그이의 자세에 깊이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의 답사대원이 된 심정으로 옷깃을 여미며 위대한 수령님동상앞에 다가서서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력사에 길이 빛날 보천보전투의 그날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그 불멸의 영상을 형상하여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한없이 숭엄하였다.

《보천보전투승리 47 뛴이 되는 1984 년에 다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노라면 우리는 서른해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천보에 오시여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을 잊을수 없습시다.》

우리와 동행한 보천군당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생각을 서른해전 그날로 다시금 이끌어갔다.

《첫 답사의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비하여 동상을 잘 형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동상은 그 어떤 역사적사실이나 개별적인물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우는 보통형식의 기념비나 동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동상은 어디까지나 혁명의 수령으로서의 위대하신 품모와 존귀하신 영상이 만사람들의 심장에 안겨오도록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 가르치심이 계시여 오늘 보천보에 이처럼 훌륭한 동상을 높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어떤 신묘한 재능을 가진 조각가도, 회화의 역사가도 도저히 착상할수 없는 불멸의 철리를 일찌기 10 대의 나이에 명철히 정식화하여 밝혀

주신 그 위대한 공적을 만대에 길이 전해갈 우리 인민의 뜨거운 열망인양 이 세상 밝은 빛이 여기에 다 모여오는것 같았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최상의 높이에 서 형상하여 모심으로써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켜가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안으며 동상앞의 넓은 교양마당을 조용히 걸었다.

꽃향기를 실어 향긋한 바람결에 물황철나무의 싱싱한 잎새들이 가벼이 설레였으며 가림천물결 소리도 정다웁게 실려왔다.

위대한 수령님동상앞에서 우리는 일행을 안내한 강사에게 물었다.

《그때 보천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동상앞 교양마당에는 조약돌을 깔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조약돌우를 조용히 거니시며 발밑에서 울리는 조약돌소리를 가늠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상앞에다 바다가의 조약돌을 깔아놓으니 밝는 소리가 요란하여 돌우를 걷기에도 불편하거니와 소란스러워서 수령님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감정에 손상을 줄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걸으신 로정을 따라 보천보전투당시의 원상대로 보존되어있는 일제의 《경찰관주재소》며 그 맞은편의 《소방회관》을 비롯하여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등 보천보전투사적물과 보천보혁명박물관까지 차례로 돌아보고는 보천보식당에 들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식당에서 겸소한 식사를 앞에 놓으시고 보천보전투 당시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곤장덕 험한 산발을 타고내려 일제놈들을 쳐부신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답사대원들로 하여금 항일혁명선렬들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시었다.

그날 그이께서 앉으셨던 소박한 식탁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이어 우리는 숙소에도 들려보았다.

숙소앞에서 우리는 귀밀머리 희숙한 한 늙은이와 온몸에 짙은 혈기왕성한 한 중년남자를 만났는데 행복하게도 늙은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천보를 처음 답사하시던 그때 보천군당선전부에서 사업하면서 그이의 답사일정도 짜고 안내사업도 조직해드린 일군들중의 한사람이었고 중년남자는 바로 이 숙소에서 그이의 무릎우에 앉아 어리광을 부리며 항일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에 밤가는줄 모른 철부지소년이었던 혜산 종이공장의 생필직장장동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신 때로

부터 서른륙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그이를 직접 몸가까이 모셨던 그날의 감회를 잊을수 없어 보천보에 찾아왔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때 보천보에 오시어 실로 걸음걸음 혁명전적지를 찾는 립장과 관점, 자세를 바로잡아주시고 겸소한 식사 한끼 받으셨을 때나 한밤을 쉬셔야 할 때에도 우리들에게 혁명선렬들의 넋을 심어주시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이께서 그저 보천보시가를 한번 돌아보시려 오신줄로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시려는 확고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심어주시려 오셨던 것입니다.》

어느덧 러수덕마루에 해가 덩실하니 올라서고 곤장덕이깔쉴에 석양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보천보는 마치도 전설속의 빛나는 성벽처럼 안겨와 우리의 마음은 더욱 숭엄해지는 것이었다.

## 백두산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탄 뱃스는 험한 산굽이를 수없이 돌고 가파로운 고개턱을 뚫아올랐다.

우리의 앞뒤에서 답사자들이 붉은기를 대오앞에 날리며 행군해가고있었다.

모두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찾아가는 길이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만이라, 재일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사람들도모두가 백두산으로 가고있었다.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려는 한없이 뜨거운 열망을 안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걷는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

이 길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른해 전 그날 아직 길이 시원히 열리지 않아 보천보만 돌아보시고 삼지연쪽으로는 후날 가시도록 의향을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혁명전적지답사로정은 백두산까지 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개척하여 주신 길인것이다. 하기에 한그루 나무, 한송이 꽃, 숲속에 날아에는 이름모를 산새조차 유정하기만 하여 불러보고싶고 만져보고싶어 진정할길 없는 마음들이었다.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인양 보서리마을어귀에서 뱃스가 벗어났다. 보서리샘물터였다. 산기슭의 둔덕우에 서있는 정가로운 정자앞으로 우리는 달려갔다.

푸른 하늘을 고이 비껴담은 샘물.

《백두산으로 가는 길손들이여, 어서 물을 마시라》고 속삭이듯 물우에 조용히 떠서 가느다란

바람결에 흔들거리는 새하얀 바가지에서 해빛이 은구슬을 뿌리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전적지에 있는 한포기의 풀, 한줄기의 샘물에도 혁명선렬들의 넋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이 샘물을 마시고 힘과 용기를 더 내어 백두산행군길을 이어가자고 뜨겁게 이르신 샘물인데 우리도 시원히 가슴들을 적시고 갑시다.》

《웁시다. 시인선생이 말한것처럼 이 샘물은 단순히 마시는 샘물이 아니라 가슴들을 적시여 영원히 솟음치는 힘과 용기를 키우는 열정의 샘이 아닙니까.》

샘물은 이가 시리게 찼다.

그러나 가슴가슴들에는 한없이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백두의 샘물.

백두용암대지의 아득한 땅속에서 솟아올라 넘칠듯 찰랑거리는 샘물처럼 나의 메말랐던 시흥도 순간에 터져나왔다.

뱃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여 어느덧 중흥대지우에 올라섰다.

《백두산이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탄성을 터뜨렸다. 뱃스가 벗어나자 모두가 쏟아지듯 달려나왔다.

중흥대지우에서 바라보는 백두산, 이득히 펼쳐진 천리숲의 바다 저끝에 흰머리를 거연히 추켜든 그 웅장한 자태가 조국의 억센 기상인양 흰갈기를 흘날리며 한품에 안겨왔다.

어서 오라 불러주는 손길들이런가 울창한 백두밀림이 키돋움하는듯하더니 마침내 감회에 젖은 목메인 환성인양 와-와 소리내며 장엄히 설레이었다.

그 설레이음소리에서 마치도 서른해전, 이 중흥대지우에 오르시어 백두산을 한품에 안으시며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우렁우렁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보십시오. 백두산은 강의하고 슬기로운 우리인민들처럼 웅장한 뿌리를 내리고 조국땅의 북쪽에 거연히 솟아있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아들답고 장엄한 산이 몇개나 있겠습니까.》

더우기 우리의 백두산은 원수님께서 일제원수놈들을 때려부신 승리의 상징으로 되는 산이기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산으로 되는것입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높이를 단순히 지도상에 표시된 해발고의 높이로서가 아니라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한 위훈의 높이로 헤아려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크나큰 공지와 자랑이 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우리는 한동안 북받치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우리들결로 한 청년이 다가왔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답사지도원동무였다. 답사대원들을 이끌고 100 번이상 백두산에 오른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안고있는 그였지만 백두산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사람들은 그저 백두산을 보기만하여도 너무 감동하여 <야!> <야!>합니다. 나는 답사자들과 함께 여러번 백두산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처음 오르던 때의 기분으로 사방을 휘둘러보며 감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 뒤에 와서 답사지도원동무의 말을 통역해드던 한 외국인이 구면처럼 우리들의 손을 잡아 열정적으로 흔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것이였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솟아있는 그 산줄기에 잇닿은 나라에서 살고있습니다. 일찌기 세계 최고탐험대에도 두번씩이나 참가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백두산을 바라보는 이 순간처럼 감격하고 숭엄해지고 가슴뜨거워본적은 없지요. 그것은 저 백두산이야말로 주체혁명의 시련이 열린 혁명의 성산, 영웅의 산으로서 그 높이를 그 어떤 지리학적수치로만 재일수 없는 세계의 제일봉이기때문입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쑥 내밀어지는 공지와 자랑감에 휩싸였다. 한생을 백두산의 기상을 안고 백두산의 숨결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마음처럼 백두밀림은 더욱 장엄히 설레이고있었다. 중흥대지를 떠난 빠스가 유서깊은 삼지연못가에 닿은것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였다. 서른해전 6월 9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탐구대원들을 이끄시고 삼지연못가에 닿으셨던 시간과 비슷한 때였다.

우리는 보천보에서와 같이 삼지연못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동상부터 찾아뵈우고 이빨나무숲속에 황홀한 동화의 세계처럼 펼쳐진 답사각, 휴양각들을 돌아본 다음 커다란 거울을 반듯이 놓은것처럼 맑고 잔잔한 못가에 나섰다.

백두의 푸른 숲이 비낀 삼지연물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처음으로 맞이하던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속삭여주는듯 출렁이고있으며 활짝 핀 꽃나무사이를 누비며 온갖 새들도 즐겁게 우쭐고있었다.

첫 답사의 그날, 못가에 서서여 삼지연의 아름다운 풍치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삼지연의 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나라의 맑은 물과 공기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것 같다고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음성도 들리는것만 같았고 어머님께서 항일의 그날 장군님을 모시고 이 못가에서 휴식하시던 때를 회고하실 때마다 한번 꼭 와보고싶었는데 오늘에야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며 깊은 감회에 젖으시던 그이의 존귀하신 모습도 보이는

것만 같아 우리는 오래도록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더우기 이 못가에서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나는 오늘 의의깊은 삼지연못가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굳게 다진 맹세대로 원수님의 높은 뜻을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울려왔다.

정녕 그날에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은 그대로 조선의 영원하고 굳센 맹세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벽찬 흥분을 안고 새삼스럽게 삼지연을 바라보았다. 삼지연 맑은 물은 혁명의 대를 이어 심어지는 송고한 조국애의 뜨거운 넘으로 우리들 심장속에 가득히 차넘치였다,

## 백두의 행군길 영원히 이어가리

삼지연에서 하루밤을 묵은 우리는 이튿날 새벽 리명수를 향하여 60여리의 행군길에 올랐다.

서른해전 6월 10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몸소 걸으신 그 행군길이였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리명수와 배개봉, 삼지연을 연결하는 자동차길이 열리지 못하여 삼지연으로부터 포태리를 거쳐 리명수까지 행군로정을 잡지 않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때 행군대오를 출발시키기에 앞서 하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도 행군에 앞서 마음속깊이 되새겼다.

이제부터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실지 체험하기 위하여 리명수까지 행군하게 됩니다.

지금은 행군길이 넓고 번듯하게 잘 닦여져있지만 그전날은 오솔길이나 다름없는 험한 산길이였다.

우리는 그날의 그 험한 산길을 헤치는 심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행군의 진행정에 줄곧 대렬의 앞장에 서서여 어린 답사대원들을 보살펴주시고 고무해주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날의 따뜻한 손길을 온몸에 느끼며 자욱자욱 옮겨드는 우리의 심정은 감개무량하기 그지없었다.

어느덧 남포대등판에 이르러 그이를 보셨던 첫 답사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첫 휴식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더 튼튼히 하고 다시 출발한 우리들은 홍계수등판이 바라보이는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한창 수림우에 짙 퍼지기 시작한 햇빛은 어찌나 눈부셨던지 하늘에서 은구슬을 쏟아 붓는듯하였고 길옆에서 우리를 뵈히 쳐다보며 새김질을 하다가 《카-우》 하고 목청을 뽑는 어린 노루의 《인사말》 소리는 한가닥 구성진 민요가

락처럼 계곡에 메아리쳤다.

《지금은 이렇게 창창히 날씨가 맑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답사대오를 이끄시고 이 산길을 행군하시던 그때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삼자연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 초급당비서 최동무의 말에 우리의 마음은 잊을수 없는 그날에 더욱 깊이 이끌려갔다.

차거운 비발속을 뚫고 용진용진 앞으로 나가는 행군대오.

자신의 비옷을 벗어 대원들에게 더 썩워주시고 자애로운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주시면서 지난날 백두밀림속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나갔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곤난을 극복하자, 우리들이 이만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아버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겠는가고 힘있게 고무해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말씀.

그 사랑, 그 고무의 말씀에 눈시울 적시며 다리의 아픔도, 비줄기의 차가움도 다 잊어버리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행군을 계속한 그날의 답사행군대오가 마치도 우리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친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력사적인 《고난의행군》대오처럼 굽이쳐흐르는듯싶었다.

이 뜻깊은 행군길을 걸으며 우리는 가슴뿌듯이 생각해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고난의 행군》대오의 그 불멸의 자욱을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신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가 영광의 자욱을 새기며 보무당당히 행군하였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어주신 그 영광찬란한 백두의 행군길우에 오늘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대부대가 끝없이 굽이쳐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도 그 대오의 한 성원으로 백두의 행군길우에 서있다.

아, 행복하여라. 궁지도 드높아라!

우리는 저도 모르게 더 힘껏 팔을 휘젓고 더 크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유격대행진곡》의 선창을 뻗다. 노래소리가 행군길에 메아리쳤다.

혜산에서 보천보를 향하여 달릴 때 부른 《유격대행진곡》은 혁명선렬들의 넓이 깃든 산천을 바라보는 감회에 젖은 노래였다면 삼자연-리명수 행군길에서 부른 《유격대행진곡》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대오를 이어선 혁명전사의 궁지와 자부심을 심장에 안고 가슴속에 차넘치는 충성의 열정을 터뜨린 노래였다고 할가.

그렇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열어주신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걸으며 우리 인민모두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며 혁명하는 영예와 행복으로 가슴 더욱 넓어지고 신념과 의지

가 더욱 굳게 다져졌으며 충성의 피가 더욱 세차게 끓기 시작한것이였다.

낮 12 시경,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신 답사대원들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포태천 기슭에서 휴식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날 항일유격대의 군수관들은 모든 정성과 희생성을 다 발휘하여 전우들의 후방생활을 보장하였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원들과 같이 산에서 지낸 자신께서 오늘은 군수관이 된 심정으로 답사대원들의 점심식사를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뜨겁게 울려오는듯한 포태천기슭에 우리도 그날의 답사대원들처럼 모닥불을 피웠다. 《군수관》의 영예를 《앗아》낸 시인 전계승동무의 《잔소리》에 앞치마를 두른 풍뎡보 《작식대원》 고동무가 쌀바가지와 찬감이 든 남비를 들고 찢찢 매며 돌아가는 새에 우리는 솜씨를 보여 산천어도 낚고 산나물도 뜯어서 우리의 점심식사를 더욱 푸짐히 해주었다.

모닥불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모닥불 두리에 모여앉은 우리의 뇌리에 우등불, 항일유격대의 우등불이 방불히 떠올랐다. 정녕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닥불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첫 답사의 그날, 감회깊으신 어조로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에서 우등불은 떼어놓을수 없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모닥불무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말씀하시였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백두밀림의 수림속은 매우 서늘하며 비가 온 뒤에는 젖은 군복을 말리워 입기 위해서도 밤에는 꼭 우등불을 피워야 하였습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모닥불앞에 무심히 앉아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닥불앞에서 숙영지의 밤하늘에 타오르던 우등불을 생각해보아야 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디마디 가슴깊이 되새기는 우리의 마음도 우등불처럼 타올랐다. 우등불앞에서 새로운 힘을 키우고 싸움의 길에 오른 지난날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모닥불앞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을 생각하며 백두의 행군길 영원히 이어갈 충성의 맹세를 가다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행군길을 다그친 서른해전 그날의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처럼,

그렇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향도의 해발따라 백두의 행군길 영원히 곳곳이 이어가리라!

행군길을 다그치는 우리의 머리에 태양은 더욱 밝은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 삼지연 못가에서

김조규

치렁치렁 검은 머리  
오리마다 땀혀 흐르던  
그 물방울 구슬로 뿌려졌나  
너전사들 아름답던 그 미소  
고이 비껴안아 수정같이 맑으나

호수야, 너는  
진주보석을 다 펼쳐안고 맞이했구나  
물밑의 모래알도  
아롱아롱 스스로 구르는 기슭  
물냄새에 취하여 고개 속이니  
백두산이 물속에서 나를 그려안누나

서리서리 감기여  
피어나는 물안개도 그윽하고  
바람도 부드러운 입김인양  
목깃을 감싸도는것은  
그네들의 넋이  
나의 온몸에 흘러드는것 아니냐

꽃이라 수풀이라  
이슬젖은 오솔길  
세월의 바람 비  
지는 앞에 묻히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그날에 걸어난 투사들의 발자욱이  
걸음걸음 나의 발걸음을 다잡아주고

새소리, 물소리  
나무잎 설레는 소리

구름도 돛배인양 물속에 흘러가고  
밀림에 단풍드니 하늘이 타고  
바람도 노을바람  
물도 타는 불꽃이구나

그러기 여기 오면  
주름살 스스로 펴지고  
흰 머리도 검어지고  
땅우의 모든 행복 내 다시 받아안나니

받으라, 호수야  
우리의 축복을  
그네들 머물렀던 그 한순간이  
오늘에 빛나 미래에로 흘러  
신념과 지향속에 무궁한 세월  
조국의 모든것과 함께 너는  
세계를 젊게 하는 영원한 기슭 되었어라

## 빛이여, 불이여 외 1 편

서봉제

민족의 웃음이 서리고  
희망의 려명이 비껴온 밤  
파쑸의 폭압으로만 구울던  
지구의 공전을 멈춰세운  
밤 10 시

살아도 삶이 아니었던  
심장의 박동을 높여주며  
겨레의 가슴에 민족의 피를  
다시금 안겨준 메아리  
아, 장군님 올리신 한방의 총소리

고역의 채찍아래  
노그라졌던 운명들이  
략탈에 지쳐 하소연하듯  
삐걱이던 물방아소리마저  
소생의 숨결을 받아안은 날이여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아있다!

철쇄로도  
총칼로도  
엮맬수도 가를수도 없었던  
민족의 넋  
자주의 함성  
불길로 타오른 6월 4 일-

불길, 불길이 타오른다  
불이 없인 인류가 못살듯  
빛이 없인 만물이 못살듯  
모멸과 굴복에 찼던 삼천리에  
재생의 빛발을 안겨준 불길이여

하늘의 해도 밝힐수 없었고  
번개의 장칼로도 지필수 없었던  
그 빛  
그 불을  
누리에 달아올린 밤

오, 드넓은 백두광야에 지켰던  
그 모든 우등불을 다 모아안고  
무궁한 세월의 한끝에

조선의 선언으로 비껴간  
보천보하늘에 떠오른 불빛이여!

-황철나무아래에서-

## 조국의 동구밖에서

산을 내리며  
바라보던 물결은  
멀리서부터 정찬 목소리로  
부르며 찾으며 안겨들고

무릎 꿇고 두손 가득  
소중히 떠안던 흰 물결은  
정깊이 웃으며 부여잡는  
그 뉘의 손길 같아

다정히 입술을 대일 때  
가슴가득 흘러들던 그 정다움  
기다려 기다려 반가운  
하많은 이야기 속삭이던 이 물결

아, 압록강  
못잊을 인연 가슴에 깊어  
그리도 그리도 설레었더냐  
너무 기뻐 기뻐서 두손 가득 물을 떠안고  
그네를 가슴 터친 그 한마디  
조국, 나의 조국아!

참혹한 추위  
시련의 고개 많던 행군길  
네 가슴에 닿는 길 그리도 멀고 험해

피로 헤쳐온 투사들

싸움길 수만리  
그 어느 한 순간에도  
정녕 잊은적 없는 그리운 산천  
홀어머니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  
조국으로 가는 길에 생을 바친  
너의 아들은 그 몇몇이던가

끓는 피로 다진  
그 맹세를 안고  
그윽한 어머니 눈동자 같은  
너의 푸르른 이 물결우에  
언제나 맑은 하늘 비껴주려  
장군님 모시고 다달은 대오

아, 네가 먼저 마중했구나!  
흰 옷자락 날리며 달려나온 어머니처럼  
조국의 동구밖 첫 길목에서  
이 나라의 장한 아들들  
기어이 해빛 안고 돌아오리라  
믿어온 그 마음 헛되지 않아

-구시물동에서-

## 답사의 길을 걸으며

홍문수

조국을 사랑한다고  
그 이름 외우며  
내 심장 누구보다 높련다고  
생각해왔건만

차로 며칠 걸어 며칠  
답사의 길 밟아보니  
때로 벼들과 때로 나 홀로  
애국을 운운했음이 부끄럽구나

해빛조차 외면해 캄캄했던 이 강토  
너 그날 투사들에게 준것이 뭇이더냐  
어깨우에 내리던 눈송이밖에  
우등불 피우던 마른나무 등걸밖에

그래도 스스로  
나라 잃은 아픔을 안고  
그래도 조국을 자기 피로 살리려고  
장군님을 따라섰던 항일의 선렬들

광복되면 남다른 혜택을 바래  
총들고 이 숲속 헤친것도 아니었다  
비문에 새겨져 빛나길 원해  
이 땅의 흙 한줌 품고간것도 아니었고  
혀를 끊어 사령부 지킨것도 아니었다

아! 짓밟힌 조국의 역사를 두고는  
가슴깊이 통곡을 터치곤했구나

길지 않은 한생이 산중에서 흘러감은  
꿈에조차 한치 않은 투사들이여!

알아줘도 조선의 아들  
몰라줘도 조선의 아들  
물어보자 어떤 때건 이렇게 산다면  
흘린 땀에 그 무슨 계산이 있고

그 어떤 요구 조국앞에 있을것인가

새기나니 저 물소리 저 바람소리  
자책깊은 이 가슴의 흥벽을 친다  
투사들처럼 너 조국을 사랑했는가!  
투사들처럼 너 삶을 이어왔는가!

## 그 정다운 자장가소리

### 염득복

내 어릴적  
애육원의 침대머리에  
다정히 울리던 자장가소리  
다 자란 오늘에도  
나의 베개머리에 사라지지 않아

잊을수 없어라, 그 밤  
나의 연손을 녹여주고  
이불깃도 여며주며  
나를 지켜보던 눈길  
그 어이 보육원의  
다심한 눈길로만 알았으랴

세월은 가고 또 가고  
들국화 설레던 학원의 창가에  
시름없이 웃음짓던 그 나날을 못잊어  
내 두 아이의 레사로운 부름앞에서도  
다시금 새겨들은 그 자장가소리

마음놓고 단잠든  
아이를 지켜보아도  
이내 사랑으로 따뜻한  
그 요람이 아니어서

아, 헐벗은 맨발을 따뜻이 감싸주던  
그 자장가소리  
나의 숨결을 고이 지켜주던  
그 정다운 눈빛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잊지 못할  
나를 키워준 그 손길

나를 지켜주던 그 눈빛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아 울며 헤매일 때  
나를 안아 젖먹여준 어머니  
머나먼 야영지로 떠나던 그날에  
배낭끈 조여주던 어머니  
명절이면 의례히  
물색고운 옷을 입고  
행복한 웃음을 마음껏 터치며  
떳떳이 머리쳐들고 찾던 어머니  
어머니란 말 잃지 않고  
사랑속에 자라온 나의 삶이여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귀중한 나의 어머니  
다 자란 오늘에도  
내 삶을 길이 지켜주고  
내 생활의 빈구석 다 살피주며  
위훈의 한길에 나를 세워주는  
영원한 어머니  
우리 당의 은정의 목소리여

내 언불에  
설음으로 맺혔던 눈물을 씻어주고  
꺼져가던 심장을 사랑으로 소생시켜  
영생의 삶을 안겨준 어머니

다 자란 오늘에도  
머나먼 래일에도  
내 베개머리에 사라지지 않을  
그 정다운 자장가소리 자장가소리

## 혁명전통주제소설 창작에서 새로운 탐구

### 평일식

혁명전통교양에서 혁명전통주제소설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혁명전통주제소설은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참다운 교과서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우리 소설문학이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매 소설들에서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가는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문학 예술의 발전에도 독자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나가면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아내야 한다.》 (《영화예술론》, 128 페이지)

새것의 탐구와 새로운 형상의 창조는 창작의 본성적인 요구이며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이다.

혁명전통주제소설에서 새롭게 탐구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형상이 있어야 인민들의 참된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주체문학의 발전과 혁명전통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오중흡련대장과 최인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대통령감》 권학식과 리경준 등 성격형상들이 잘 말하여주고있다.

최근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에서 김주현의 형상과 다부작 장편소설인 《충성의 한길에서》의 제 5 부 《진달래》에서의 배신자 엄강호의 성격형상도 새롭게 탐구한 독창적인 성격형상으로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에서 나오는 김주현의 성격형상에서 새로운것은 우선 그를 항일유격대의 련대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지휘원으로 설정하였지만 완성된 성격으로 그리고 있지 않는것이다.

지금까지 창작된 혁명전통주제소설들에서는 많은 경우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이 거의다 완성된 성격에 가깝게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에서는 이

와는 다르게 김주현의 성격을 유격대의 련대장의 높은 급의 지휘원으로 설정하고도 그를 완성된 성격으로가 아니라 우여곡절을 거쳐 성장하는 인물로 그리고있다.

이것은 물론 사실에 기초하고있는것이지만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인민혁명군지휘원의 형상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수 있다.

김주현의 성격형상은 배짱뱀이를 입고 유격대에 입대하여 대원으로부터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을 걸쳐 련대장으로까지 과오없이 체계적으로 자라나 활동하는 오중흡의 경우와는 다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성격이다.

김주현은 유격대의 련대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다가 혁명앞에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철직되어 작식대원으로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깊이 닦고 위대한 수령님께 더욱 충실한 충신으로 자라나게 된다.

김주현은 자기의 모든것을 혁명에 바친 충직한 혁명가였다. 그는 언제나 혁명의 요구에 충신했고 생명을 걸고 용감히 싸웠으며 명령집행에 성실했다. 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고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편향을 바로잡는 일에서도 김주현은 심장을 내대고 투쟁하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관철할 때에도 선참으로 반일부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보천보전투승리에 서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김주현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지휘원이였다,

하지만 김주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경험과 투쟁년도를 정면에 내세우고 우쭐렁거리면서 개인영웅심에 빠졌고 무엇이든 자기만이 다 잘 안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서슴없이 행동하는 경솔한 인간으로 되었으며 나중에는 국내공작에 대한 사령관동지의 중대한 명령을 성실하게 집행할 대신 자의대로 금광습격전투를 벌리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련대장직에서 철직된다.

김주현은 그후 작식대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범한 과오의 엄중성을 깊이 깨닫고 고친 다음 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육신적인 사랑에 의하여 련대장의 직책에서 일하게 된다.

장편소설은 련대장 김주현의 성격을 완성된 측면으로만 보여준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고치며 성장하는 성격으로 특색있게 그리고있다.

김주현의 성격형상에서 새로운것은 다음으로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깊이 뉘우치고 자각하는 인간으로 그리고있는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범한 결함을 스스로 뉘우칠 때 야만 가장 빠르고 진실하게 혁명화될수 있다. 결함에 대하여 깊이 자각하고 스스로 뉘우치는것은 혁명에 참답게 자기를 바칠줄 아는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다.

김주현은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련대장직에서 철직되었을 때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을 느낀다. 전투에서 몇군데의 관통상을 입고서도 주저앉지 않고 비호처럼 내달리던 그였지만 풀발에 폭 주저앉아 장군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었다고 자책하며 모대긴다.

그리고 김주현은 군정학을 통하여 눈을 뜬 다음 자기가 범한 결함을 다시금 깊이 돌이켜보며 지난날 자신이 혁명원리도, 전략전술원칙도 모르고 굼처럼 놀고있었다는것을 뼈아프게 뉘우치며 많은 사람들앞에서 책벌을 받고 권총을 때웠을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며 깊이 자각한다.

보는바와 같이 김주현은 자기의 결함을 심장으로 뉘우치며 깊이 자각하는 인간이며 성실하고 참다운 혁명가이다.

김주현은 바로 이런 인간이기때문에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지만 전날이나 다름없이 장군님의 혁명전사로 남아있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며 과오를 씻기 위하여 모진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처럼 아글타글 애쓰는것이다.

이것은 그가 작직대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서와 열병을 앓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뿔뿔리를 씹어삼키며 병마와 싸우면서 대오를 따라가는데서 볼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신념화된 충성심은 운명을 판가리하는 싸움의 격전장이나 놈들의 악형과 고문, 단두대우에서만이 아니라 김주현이와 같이 자신이 범한 과오를 고치기 위하여 진심으로 애쓰는데서도 나타나는것이다.

김주현이가 자기의 과오를 씻기 위해 애쓰는 과정은 곧 그의 성장과정이며 신념화된 충성심을 심장깊이 더 다져나가는 과정이다.

이처럼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충신으로 자라나는 김주현의 성격형상을 새롭게 탐구하여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전통주제소설창작에서 새롭게 탐구한 형상은 긍정인물들의 형상에서만이 아니라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의 성격형상에서도 볼수 있다.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이 걸음걸음 빠른 진통을 겪으며 더 험난한 시련의 길을 걸어

온것은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때문이었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은 우리 혁명의 계급적원수들이며 혁명전통주제소설의 부정인물형상에서 새롭게 탐구한 특색있는 성격으로 된다.

혁명의 배신자이며 변절자인 엄강호의 성격형상에서 새롭게 탐구한 점은 우선 부정인물로서의 부정의 격을 높게 형상한것이다.

문학작품에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성격창조는 호상 깊이 련관되어있는 문제이다.

긍정인물의 성격과 부정인물의 성격은 서로 부딪칠 때 량자의 내부적속성이 더 예리하게 드러나며 투쟁이 격렬할수록 그 진면모가 잘 드러난다.

부정인물의 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부정인물 그자체를 옳게 형상하는데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상대인물인 긍정인물의 형상을 부각하기 위한데도 목적이 있다.

장편소설 《진달래》에서 엄강호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하며 그를 어떤 차원에서 격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장편소설 《진달래》에서 엄강호는 송사리새끼같은 작은 인물이 아니라 사령부의 로선까지도 정면으로 반대해나서며 자기만의 주의주장을 가진 《거물》로 형상되고있다.

엄강호는 지난 시기에 적들에게 복무하였거나 적들의 악착한 고문에 못이겨 변절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는 중학시절부터 계급사회의 불의를 통탄하고 폭력혁명을 부르짖으며 학생시위의 선두에 서서 《청년맑스주의자》로 불리워왔으며 그 누구와의 론전에서든 저본 일이 없고 과업이나 폭동도 언제나 승리로 이끌어서 혁명가의 천분을 타고난 남아, 시대의 풍운아로 사람들속에서 명성을 떨치였다.

그는 혁명경력도 매우 오랜 사람으로서 레닌의 학설까지 《통달》한 상당히 높은 리론을 가진 혁명의 《대가》로 행세하고있다.

엄강호는 한때 유격대의 한개 부대를 맡은 지휘원까지 하였고 사령부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청봉밀영을 책임졌던것이다.

그런데 그는 우리 혁명이 매우 간고해지자 청봉밀영에 틀고앉아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중요한 혁명임무를 성실히 집행할 대신 레닌이 로씨야사회민주당 2 차대회후 볼셰비크들이 더한층 철통같이 단결되어 당이 조직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에서 일보전진했다면 반대로 멘셰비크들이 떨어져나갔기때문에 이보퇴각했다는 뜻에서 쓴 《일보전진, 이보퇴각》이라는 표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외곡하여 자기만의 빈틈없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국경연안으로 진출할데 대한 사령부의 로선을 정면으로 시

비중상하며 반대하여 나섰다.

《…지금은 혁명의 퇴조기요. 퇴조기의 기본과제는 혁명력량을 적의 공세로부터 보호하며 보존하는것이요. …레닌이 경고하는 볼셰비크당이 그렇게 했소! 그러나 지금 우리 주력군은 남패자를 떠난 이후 국경쪽을 향해 강행군을 계속하고있소.》

엄강호는 4중5중으로 겹겹히 포위망을 좁히며 덤벼드는 적들의 대공세를 맞받아 과감히 뚫고나오는 주력부대의 역사적인 진군을 죽음의 함정으로 향해가는 길과 같다고 떠벌이면서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하였다.

엄강호는 이처럼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뒤집어엎으려는 더러운 야욕을 가진 무서운 야심가일뿐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귀중한 혁명동지들의 생명까지 무참히 빼앗는 폭한이며 모략가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참석하시어 청봉밀영사건을 취급하는 회의에서까지도 감히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하고 혁명동지들을 모해한 자기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한다.

이와 같이 엄강호는 우리 혁명을 정면으로 가로막아나선 혁명의 배신자이며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창작된 혁명전통주제소설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을 많이 취급하였으나 엄강호처럼 격이 높은 부정인물을 형상화한적은 없다.

장편소설은 변절자의 격을 높이 형상하면서 그가 무엇때문에 사령부의 로선까지 반대하는 혁명의 배신자로 되었는가 하는 그 사상적본질을 그의 개성적인 성격을 통하여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인간의 성격은 바로 그의 사상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혁명의 배신자로서의 엄강호의 성격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사상적특질은 바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혁명적신념이 없는것이다.

혁명적신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배신자, 변절자를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된다.

신념을 고수한 사람은 주체형의 혁명가로 영원한 생을 가지지만 신념을 고수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산송장이나 뿌리를 잘리운 나무와 같다.

신념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닌 힘있는 무기이며 심장이고 생명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수십만의 적들을 사나운 눈보라도 혹한도 굶주림도 이겨냈으며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런데 엄강호에게는 바로 주체형의 혁명가의 생명인 혁명적신념이 없었던것이다.

엄강호가 혁명을 배신한것은 그가 혁명경력이 적거나 이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엄강호는 신념이 없었기때문에 자기판의 주의주장을 가지고 혁명의 《대가》로 자처하였지만 적들의 대공세에 겁을 먹고 시련과 난관의 포로가 되어 패배주의의 진창속에 빠져 혁명의 배신자로 되게 되었다.

엄강호의 머리속에는 혁명적신념 대신에 패배주의의 사상독소가 가득차있었기때문에 적들만 크게 보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을 믿지 못하였다.

그리고 적들의 대공세앞에서 퇴각이 아니라 언제나 과감한 돌진으로 역공세를 취하여 전투마당에서 승리하며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 항일유격대의 위력한 힘도 볼수 없었으며 항일무장투쟁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국경연안으로의 진군의 의의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리해할수가 없었던것이다.

혁명적신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정세가 좋을 때나 평상시에는 잘 알수 없다.

신념이 확고한가 확고하지 못한가 하는것은 정세가 불리하거나 시련의 시기에 더 잘 드러난다.

엄강호는 자기판에 혁명의 《대가》처럼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지만 사령부를 절대적으로 믿는 혁명적신념이 없었기때문에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혁명가로서의 생명을 잃고 혁명의 배신자로 되었다.

장편소설은 엄강호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혁명의 길에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혁명승리에 의혹을 느끼고 신념을 저버리게 되며 나중엔 변절되어 반역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변절자인 엄강호의 성격형상에서 개성적인 특성은 다음으로 독선적이며 자고자대한 교만성이 다.

성격형상에서 개성적인 특성을 잘 살리자면 그 인물의 사상적본질로부터 표현되는 구체적이며 특징적인 세부들을 옳게 포착해야 한다.

혁명의 배신자 엄강호의 성격은 신념을 저버린 혁명에 대한 근본문제에서는 다른 변절자들의 형상과 공통점을 가지고있지만 그로부터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에서는 구별된다.

장편소설 《준엄한 겨울》에서의 변절자 박차석, 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에서의 변절자 최진팔,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에서의 변절자 태준이와 같은놈들의 경우를 놓고보면 신념이 없는데로부터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이나 단두대

앞에서 겁을 먹고 자기 일신의 안락과 더러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혁명을 배신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있다.

하지만 엄강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엄강호는 혁명의 《대가》로 행세하며 자기이상 없는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면서 나중에는 사령부의 로선까지 시비중상하고 반대하며 그우에 자기를 올려세우려고 하는 악독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바로 이런 인간이기때문에 엄강호는 다른 부정 인물들인 변절자 박차석이나 최진팔, 태준이와 같은놈들이 가지고있는 비굴성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자고자대적인 교만성을 가진 개성적인 특성을 체현하고있다.

엄강호의 자고자대적인 교만성은 우선 그가 사령부에서 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청봉밀영을 해체하려고 책동하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청봉밀영은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장자 국경연안으로 진출시킬것을 미리 예견하시여 사전에 튼튼한 후방기지를 꾸리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밑에 설치된것이다.

그러나 밀영을 책임진 엄강호는 수십만대군의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겁을 먹고서 주력부대가 북방멀리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자의대로 분석하고는 제마음대로 청봉밀영을 해체하려고 책동한다.

사령부에서 아무런 제시도 없는데 자의대로 이런 결심을 가진다는 그자체가 더없이 교만한 행동이다.

사령부의 지시없이 마음대로 밀영을 해체해서 되겠는가고 묻는 견실한 공산주의자 박두성에게 엄강호는 이렇게 말한다.

《참, 속이 태평스럽소… 적이 수만대군을 들이밀어 포위했다는데 무슨 연락이란말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각까지 하게 되겠소. 누가… 누가 그래주겠소?》

이 말속에는 적들앞에 겁을 먹고 자기의 신념을 저버린 엄강호의 정체와 할때 그의 자고자대적인 교만성이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엄강호는 신념을 저버린데로부터 안중에는 사령부도 없었다.

그는 사령부에서 연락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으며 누가 자기네한테 연락해주겠는가고 하면서 사령부까지 하찮게 보며 믿지 않는다.

이것은 엄강호가 신념이 없는 교만한 인간이라 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엄강호의 자고자대한 교만성은 학습토론에서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의 국경연안으로의 행군에 대한 사령부의 로선을 주관주의로 보며

시비중상하는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주관적관념론은 오늘 우리 혁명을 위태하게 만들고있소. 그 엄혹한 위협성을 똑똑히 인식해야 하오… 그때 주력부대가 오늘 왜놈들이 수십만대군을 동원해서 대공세로 나오고있는 형편에서 자기 전투력을 보존한채 국경에 가닿을것 같소?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하오!

…이런 형편에서 과연 국경까지 가내겠는가 가 닿는대도 몇사람이나 성해서 압록강물을 볼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오… 아, 얼마나 통분한 일인가! 지금 사령부의 측근에 누가 있소? 박철산이? 오중흡이? … 아!》

엄강호는 마치 사령부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옳게 보좌만 했더라면 이런 파오를 범하지 않았을

게라고 우려하는척하면서 사령부의 로선을 주관주의로 보면서 시비중상하고 정면으로 반대한다.

엄강호가 사령부의 로선을 주관주의로 보면서 반대하는것은 무엇때문이며 그 속심은 어디 있는가?

엄강호의 속심은 사령부의 로선을 뒤집어엎고 그우에 올라서려는데 있다.

엄강호는 또한 사령부의 로선을 목숨으로 지켜 싸우고있는 박철산과 오중흡이와 같은 혁명에 충실한 혁명가들까지도 눈아래로 깔보면서 마치 자기가 있어야 문제를 바로잡을수 있는것처럼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

이처럼 엄강호는 자기만이 정치적식견이 높고 자기만이 옳은 로선을 내놓을수 있는것처럼 자처하며 사령부의 로선도 혁명동지들도 다 무시해버리는 자고자대적인 교만성을 가진 혁명의 극악한 배신자이다.

자고자대적인 교만성을 가진 인간들은 환경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정세가 불리하게 되면 쉽게 변절되고 자기를 더 내세우려는 더러운 정체를 드러낸다.

엄강호의 과대망상적이며 자고자대적인 교만성도 결국 그를 혁명을 배신하는 길로 이끌어갔다.

이것은 생활이 보여준 필연적인것이며 비굴성으로서 혁명을 배신한 엄강호의 성격형상이 다른 부정인물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변절자 엄강호의 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그의 성격이 음모적인 교활성과 악랄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교활성은 배신자, 변절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성격적속성의 하나이다.

그런데 엄강호에게서는 교활성이 보다 음모적이고 악랄한것과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특징적이다.

엄강호의 음모적인 교활성은 사령부의 로선을

시비증상한 그 정체를 폭로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신 김정숙동지께 악랄하게 양갓음을 하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엄강호는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한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행동한다.

엄강호는 김정숙동지를 모해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신파지구에서 활동하실 때 직접 추천하여 유격대에 입대시키신 지세천을 도망쳤다고 교활한 방법으로 날조하여 체포하고 무서운 고문까지 들이댄다.

엄강호가 죄없는 지세천을 체포한것은 단순히 그를 다스려 혁명규율을 세우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세천에게서 《밀정》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김정숙동지를 모해할뿐아니라 그이께서 지도하신 신파지구를 비롯한 국경일대 혁명조직들에 대한 의심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사령부의 로선까지 뒤집어엎자는 악독하고 교활한 음모이다.

엄강호는 이 교활한 음모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악랄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며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녀대원들까지 구금하고 죄인처럼 다스리며 악착하게 고문한다.

이런 악착한 행동은 엄강호와 같은 모략가, 야심가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것이다.

엄강호의 음모적인 교활성은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한데 대한 그의 변명에서도 볼수 있다.

엄강호는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하고 뒤집어엎을 검은 칼을 속에 품고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만이 혁명을 생각하고 인간성이 있는것처럼 떠벌인다. 그는 자기가 사령부의 로선을 우려한것은 적들의 포위공격을 받아 흑한속에서 굶주리고 얼고 쓰러질 대원들의 비참한 운명이 가슴아프고 혁명력량을 적들의 공격에서 전술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숨기려고 교활하게 행동한다.

엄강호의 이 음흉한 교활성때문에 혁명적신념이 확고하게 못한 일부 대원들과 정치지도원인 리금준이까지도 무엇이 무엇인지 잘 분간해볼수 없게 되었으며 엄강호가 청봉밀영에서 것처럼 독선적으로 활개치며 악랄하게 행동할수 있었다.

엄강호의 음모적인 교활성과 악랄성은 사령관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박두성이를 정신병자로 몰아 가두어넣고 박해한데서도 볼수 있다.

엄강호에게 있어서 박두성은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은 청봉밀영에서 자기의 비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판하며 충고하는 사람이 바로 박두성이였기때문이다.

박두성은 사령부의 로선을 반대하고 동요분자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려고 한 엄강호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엄강호는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점차적인 방법으로 박두성이를 고립시키려고 책동한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박두성이는 부상당한 다리때문에 너무 고심해서 정신이상이 왔다. 그가 하는 원칙적인 말들은 모두 정신발작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불쌍한 인간으로 동정하는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죄인처럼 가두어넣고 박해했다.

음모적인 교활성과 악랄성이 결합된 엄강호의 비인간적인 악독한 행동은 서애순이와의 관계에서도 볼수 있다.

서애순도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통탄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뜻을 품고 청봉밀영으로 들어왔던것이다.

엄강호는 이 순박한 녀성을 할 도와줄대신 그를 자기의 식모로 두고서 유혹한 다음 사령부가 가까이 온다는 통신원의 연락을 받고서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감추기 위해 감언리설로 그를 꾀여 마을로 되돌려 보내었다.

새삶의 길을 찾아 헤매이던 서애순이가 길가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아파하였지만 엄강호만은 철면피하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머리를 돌린다.

순박한 녀성인 서애순은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악당인 엄강호를 출중한 혁명가로 참다운 남자로 보고 속히우며 따랐던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엄강호가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잘 감춘 음흉하고 교활한 인간이였기때문이다.

이처럼 엄강호의 형상은 혁명전통주제소설의 부정인물형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가진 김주현의 형상이 기정사실화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하는 성격으로 잘 형상되고 배신자 엄강호의 부정적형상이 개성을 가진 산 인간의 성격으로 특색있게 형상됨으로써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 풍부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전통주제소설창작에서 새것을 탐구하며 새로운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혁명전통교양에 더 훌륭히 복무하며 주체문학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 리정표

박희구

가도가도  
침침 산발  
숲을 헤치고 진대를 넘는  
답사길우에 서있는 리정표

-백두산밀영으로 가는 길!

그날  
이 길엔 리정표가 있을수 없었다  
허나 투사들  
사선을 헤치며 위훈을 안고  
가던 길

지하공작의 밤길 걸어도  
철창속에 홀로 있어도  
이 길에  
마음의 리정표를 둔 그들

선혈이 흐르는  
한자옥 또 한자옥...  
이 길우에 찍어가며  
장군님의 영상 우러러  
그리도 빛나던 그 눈빛도

넘어서면  
밀영의 귀틀집이 보이건만

령을 하나 앞에 두고  
육탄이 되어  
원주의 《토벌》을 막은 그 녀도  
어려있는 리정표여

네앞에 서니 들려오누나  
기어이 돌아올 전사를 기다려  
찬눈우에 옮기시던  
장군님의 뜨거운 발자국소리

이 길의 한끝에서 빛발쳐오는  
아버이 그 사랑  
오직 그 품밖에 모르는 투사들이기에  
떴떴한 보고만을 안고가던 길

영광의 그 길만을 가리키는 너를  
내 또한  
영원한 마음의 리정표로 삼으려니

그 어떤 폭풍속에  
모든것이 묻혀버린다 해도  
너는 내앞에 솟아 빛을 뿌리리라  
세상엔 오직 하나 혁명의 사령부  
당중앙을 따르는 그 한길!  
삶의 가장 빛나는 길로 부르며...

## 나의 저 푸른 하늘은

윤 경

가없이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이여  
네 그리도 맑고 푸르고 시원함은  
조국강산이 아름다와서만이더냐

아침길을 걸을 때에도  
저녁길을 걸을 때에도  
끝없는 희망과 랑만의 언덕으로 불러주는  
나의 저 푸른 하늘이여

나의 저 푸른 하늘은  
어제도 그 하늘  
오늘도 그 하늘  
변함없이 이 강산우에 높이 솟아 끝없고

나의 저 푸른 하늘은  
사철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꽃피는 락원의 강산을  
찬연한 화폭으로 덜어주고

나의 저 푸른 하늘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추억의 역사를 더듬으며  
어제와 오늘을 불러주는 그 무엇  
내 사랑하노라  
내 자랑하노라  
영원한 축복을 담고  
한없이 푸르른 나의 저 하늘을  
언제나 이 땅과 함께 고요히 숨쉬는  
나의 저 푸른 하늘을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강산에  
향도성 높이 솟아

나의 저 하늘이 그리도 찬연하고  
나의 저 하늘이 그리도 눈부시거니

시인도  
가수도  
저 푸른 하늘 없이야  
시가 무엇이랴  
노래가 무엇이랴

수수천년 봉건의 울타리와  
압제의 쇠사슬에 묶이여  
인간의 존엄 잃고 원한의 피눈물만이  
이 땅우에 도랑저 흐를 때

오, 하늘도 무심타  
만백성 통곡하며 몸부림 칠 때  
네 캄캄한 밤하늘 가르며  
우뢰울고 번개치며

분노에 치를 떨지 않았더나

바로 그 하늘이었다  
나의 저 푸른 하늘은  
어제도 그 하늘  
오늘도 그 하늘

허나 네 오늘 이 땅을 포근히 품고  
끝없는 희망과 랑만 속에  
다함없는 축복속에 푸르청청 열려있음은  
진정 어머니조국이 있기때문이어라

아, 나의 푸른 하늘이여  
조선의 하늘이여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품에서  
은빛으로 금빛으로 더욱 빛나라  
영원한 축복담고 조선의 하늘로  
높이 솟아 푸르라

## 용해공의 신념

계 훈

그것은 마치  
이 가슴에 떨어진 불씨와 같다  
한시도 조용치 않고  
나에게 속삭여주고 불태워주는...

때로는 은근한 노래가 되어  
내 마음속 깊은곳에 흐르기도 한다  
때로는 폭풍을 불러  
이 가슴에 번개처럼 번쩍이기도 한다

내 삶의 매 숨결속에 내가 있거니  
신념이여, 너는 그 누가 준것이나  
소박하고 근면한 내 어머니더나  
아니면 파묵한 용해공의 성격이  
너를 강철로 빚어주었더나

나를 낳은 어머니가 준것도 아니다  
그 누가 나에게 준것도 아니다  
너는 백양나무 설레이는 철의 도시  
밤노을 흐르는 하늘가에  
아름다운 내 꿈을 싶던 그 행복한 밤에,

너는 불길이 너울대는 용해장쇠정판우에서  
눈물에 젖어 입당청원서를 읽던  
못잊을 화선입당의 그날에  
내 가슴에 심어져 뿌리를 내린 이 신념-

내 일생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리라!  
살아도 여기 용해장에서  
생의 마지막순간도  
여기 용해장에서 맞으리라!

그래서 오, 그래서  
화광이 충천하는 후야근 구내길을 걸으며  
내 로동의 벗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용해공에게 쇠물을 떠나  
그 무슨 신념이 따로 있으랴

진정 쇠물을 끓이며  
바치고 바쳐온 청춘과 삶  
내 나이 이제는 반생이 흘렀어도  
젊지도 변치도 않는  
강철로 당을 받드는 나의 이 신념

내가 없으면  
내 육신은 무너지고  
나의 사색도 노래도  
모래처럼 부서지고 흩어지려니

가슴속에 심장이 하나이듯이  
태어나 단 한번 부른 이 신념의 노래  
당이여, 그대에게 바치여라  
쇠를 떠나 다른 삶 모르는  
용해공의 이 마음, 이 노래를

## 백두의 행군길

우리가 탄 급행열차는 이깔나무숲이 울창한 백암령을 넘어 해산으로 달렸다.

초봄에 접어들었으나 해발 1,400여미터의 산정에는 여전히 흰눈이 쌓여있는데 회오리바람에 휘날린 눈가루가 휘파람소리를 내며 투명하게 얼어붙은 창공으로 타래쳐올라가고있었다.

차창으로는 랭기가 흑흑 끼쳐들었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웃기를 여미었으나 올초부터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량강도문학창작실 작가들의 친숙한 얼굴들을 그려보며 몹시 흥분해있었다.

열차는 소소리높은 북계수령을 지나자 어느덧 내림반이로 속력을 가하여 종착역인 해산에 가닿았다.

량강도문학창작실은 해산 시내에서 유충진 압록강가의 호젓한 정원수들속에 자리잡고있어 여름이면 진한 록음속에 묻힐것이라고 생각되는 아담한 건물이었다.

도창작실장 김재운동무는 친절한 미소를 띠우며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웅자가 바라보이고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노래하며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시작되는 량강땅에서 살며 창작하는 작가들의 남다른 긍지와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 도창작실 작가들은 한사람같이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에 진입해서 지금 일정하게 성과를 보고있습니다.》 실장은 여러 작가들의 창작정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소설가들만 놓고보더라도 리철모동무는 장편의 구상단계에 있고 김원중동무는 새 장편의 초고를 쓰고있으며 전홍식동무는 장편의 초고를 펴고구나서 추고중이고 백보흠동무는 장편을 출판에 넘겼는데 그 장편소설들은 다 혁명전통주제작품들이라는것이였다. 이밖에도 소설가들인 김수범, 김명희, 강태정, 조재홍동무들은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직접 연결된 현실주제의 장중편소설들을 창작하고있으며 시인들도 혁명전통주제의 서정서사시, 련시, 시초들을 쓰고있는중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창작실이 어째서 이렇게 텅 비여있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실장동무는 껄껄 웃었다.

《우리 작가들은 오늘아침에 배낭을 메고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를 떠났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56년 6월에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개척하신 로정을 따라 작가들이 지금 걷고있습니다. 올해가 꼭 30돛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고 실장은 긍지

있게 설명하였다.

《나는 기자동무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기별을 받고 혼자 남아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우리 동무들을 따라잡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퍼그나 걸어갔을테니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차를 타고 보천보, 삼지연 방향으로 달렸다. 우리의 마음은 설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습니다.》

백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아가는 우리의 로정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이신 뜻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로정이였다.

길은 두꺼운 얼음이 덮인 압록강을 끼고 상류 쪽으로 뻗어있었다.

키높은 이깔나무며 검푸른 전나무, 은백색 황철나무숲이 피곳피곳 차창으로 엿갈려 지나가는데 깊은 골짜기에는 커다란 얼음덩어리들이 차갑게 번쩍거렸다. 마치도 떠밀려내려오던 북극의 빙하조각들이 걸린것 같이 보였다. 골짜기의 폭포수가 덧 얼어붙어 생겨난 거대한 그 얼음덩어리들은 소설가 김수범이 어느 소설초고에서 표현한 것처럼 《폭포를 찍은 영화화면이 일시 정지된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보천보에 다달은 우리는 가림천가의 황철나무 밑에서 김수범동무를 만났다.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를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는 지금 유리함속에 보존되어있는 사령부 경위대의 기관총을 들여다보며 수첩에 무엇인가 적고있었다.

우리는 그와 인사를 나누고나서 혁명전통주제작품창작정형을 물었다.

《지금 구상중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 수범동무는 이야기하였다. 《체험과 그의 재조직과정인 구상이 완전하게 무르익었다면 초고집필의 순간은 말그대로 환희로운 명절로 될것입니다. 그 <명절>이 나한테 오려면 아직도 멀었습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소설가 김원중동무는 가림천가의 전나무숲속을 거닐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멀리로 날고있었다.

이미 20여편에 달하는 혁명전통주제의 단편들을 써내어 《압록강의 봄》이라는 제목의 단편집을 묶었으며 역시 같은 주제분야의 중편소설

《의사는 집을 떠났다》와 장편소설 《광명을 찾는 사람들》, 전쟁주제장편인 《모란봉》을 써낸 바 있는 정력가 김원중동무였다.

우리는 원중동무에게서 그가 지금 집필하고있는 장편소설 《우등불》의 간단한 내용을 들을수 있었다.

1940년대초, 사령관동지의 원대한 작전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립산로동자들속에서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조선 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의 투쟁을 담고있는 소설이었다.

지금 1,700매정도 써나갔다고 하였다.

《새로운 소설의 내용은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요구하리라고 보는데 형식면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고있습니까?》

《이전에 창작했던 장편들과는 달리 주인공선만을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립 없는 항일혁명투사의 신념과 정신세계를 깊이 추구할수 있게 구성을 짰습니다. 말하자면 폭이 아니라 깊이를 가진 소설을 써보려 합니다.》

《김원중동무의 25여년간의 창작생활을 놓고보면 총적인 주제는 혁명전통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관된 주제를 세우고 창작하게 된 개인적동기는 없는지요?》

《물론 내가 어려서 학원을 다닐 때부터 항일혁명투사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았고 그때문에 일찍 백두밀림의 눈보라와 친숙해질수 있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되는 동기로 될수는 없습니다. 나뿐이 아닌 많은 작가들이 혁명전통주제작품 창작에 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거나 거두고있는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대에 빛날 항일혁명전통을 대하는 우리 작가들의 환희에 찬 심장과 시대적인 의무감으로 설명해야 할것입니다.》

《김원중동무가 쓴 작품들은 모두 과거에 대한 것들인데 작가의 직접 체험이 없는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있는지요? 역사문헌자료연구나 과거 체험자에 대한 취재, 현지답사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간접체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직접체험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고봅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 과거를 그리는 경우에도 현실체험을 앞세워야 합니다.

당정책이 구현되는 우리 현실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묘사하려는 과거는 현대성의 의의를 강하게 띠면서 점점 눈앞에 선명하게 재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실속에서 과거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지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난 기회에 혁명전통주제작품 창작과

관련해서 여러 작가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바로 준비해두었던 말은 없습니다만...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혁명적대작들의 창작성과는 혁명전통주제작품 창작의 보다 넓은 가능성과 전망을 열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할것없이 혁명전통주제의 작품들을 더 많이 더 높은 수준에서 써내여 우리 시대 작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자는것을 호소하고싶습니다.》

소설가 김원중동무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가파로운 곤장덕을 내려서 가림천의 얼음장을 타고 시인 서봉제동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있었다. 그는 49년전 항일유격대원들의 보천보전투로정을 따라가면서 시초를 쓰고있는중이었다.

우리는 그의 시들을 소리높이 방송하였다. 시의 서정이 짙고 감정이 참신하였다.

우리는 시인 서봉제동무에게 물었다.

《서봉제동무는 보천보에 대한 시를 발표한것만 도 벌써 여러편 되지요?》

《그렇습니다.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이번에 열한번째로 답사합니다. 매번 새로운 시를 찾게 되는 로정입니다. 올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이곳 보천보를 찾으신지 30돛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나는 그때의 그 영광의 행군대오에 자기를 세워보며 그 심정으로 시를 쓰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량강도창작실의 작가일행과 함께 보천보를 떠나 삼지연으로 향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인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였다. 30년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이 길을 걸으시였다. 그때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의 앞에 날리던 붉은기가는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걸음을 다그쳤다. 이 영광의 로정으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군복차림을 한 남녀청년들의 답사대렬이 가고 휴양답사빠스가 달린다. 걸음을 재촉하는 작가들의 대렬앞에는 희끗희끗 머리 센 김조규시인이 걷고있다. 지난날 종군의 필봉을 잡고 불타는 강을 건느던 그때처럼 그의 걸음걸이는 오늘도 힘에 넘친다. 그의 가슴에는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삼지연의 맑은 물이 출렁거린다.

높이 들린 하늘은 끝간데 없이 푸르고 앞길은 곧추 뻗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작가들은 영광의 한길을 걷고있다. 수천수만의 독자들과 어깨나란히 걷고있다.

저앞에는 삼지연이, 그앞에는 백두산이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 러전

백보흠

류광일은 창턱에 두팔을 얹은채 광산마을을 감회롭게 바라보고있었다.

기복이 심한 넓은 광산땅에 한벌 뒤덮인 수많은 전등불들은 불야경을 이룬 대도시의 찬란한 밤풍경을 련상시켰다. 그래서인지 달빛속에 비낀 광산일경의 검푸른 산릉선들마저 그 무슨 건축예술의 군상들처럼 거창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느끼게 했다.

《30년의 세월이란 결코 짧은것이 아니군...》

류광일은 슬며시 눈을 감으면서 중얼거렸다. 그가 이고장에 탐사의 첫 발자국을 찍었던 30년 전 그때에는 여기 금덕광산지구의 수십리 주변에 주인 없는 낡은 오두막 한채가 있었을뿐이었다.

그전에는 이고장의 이름을 《녹솔이골》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지도에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곳 령복사람들에게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다.

류광일은 얼마후 창가에서 물러나 두리상우에 무드기 쌓인 원고더미들을 내려다보았다. 밤이되면 이렇게 옷방에 두리상을 펴놓고 지질론문을 집필해온 그는 이 밤에 비로소 마지막 원고장에 종지부를 찍은것이였다. 그것은 대규모적광산으로 일떠선 여기 금덕광산의 지질상태를 리론적으로 집대성화한 큰 과학론문이었다.

광일은 이곳에서 34여년간 현장지질기사로 일하면서 해마다 광산탐사보고서들을 써왔지만 이와 같은 과학론문을 집필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아마도 이런 과학저서의 력작은 그에게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될지도 모른다.

광일의 나이는 벌써 선여섯이다. 이미 예순나이를 눈앞에 두고 늙어가고있는 류광일은 사실상 여기 금덕광산밖에는 그 어떤 다른 광산에 대하여 자신있게 알고있는것이 없었다. 그렇다. 그는 일생에 오직 이 금덕광산 하나밖에 개발한것이 없으며 오직 그 하나의 광산을 위하여 30여년을 바쳤었다. 청춘도 사랑도, 그의 인생의 많은것이 이 령복의 광산땅과 더불어 흘러갔었다.

혹시 광업에 생소한 사람들은 금덕광산 하나에 전 생애를 바친 류광일을 두고 공적이 그리 많지 못한 지질기사로 생각할수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광업계에서는 《하나의 굴지의 광산을 찾아낸다는것은 천번중 한번, 천사람중 한사람에게 차례지는 행운이다.》라는 말이 있다. 기실 세계의 어느 나라이든 지질탐사대원의 수자와 광산의 수자를 비례해보면 그렇게 된다.

하기에 류광일이 역시 조국과 후대에 바치는

유일무이한 창조물인 금덕광산을 놓고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였다.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류광일은 아래방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쳐들었다. 광산에 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러 문화회관으로 갔던 광일의 안해가 장지문을 조용히 열고 옷방으로 올라왔다.

《오늘 밤엔 집필을 다 끝내신다더니...》

옥경은 두리상우에 무드기 쌓인 원고더미들을 스쳐보고 눈을 슴벅이였다. 이 광산땅에 처음으로 진료소가 생겨났을 때 꽃같은 얼굴을 들고 찾아왔던 그 녀의사에게서도 이제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서산의 해처럼 누엿누엿 저가고있었다.

《그렇소. 다 끝냈소. 이제 저 론문을 <시집>보낼 차비를 해야겠소. 그래 공연은 재미있었소?》

광일은 두리상앞에 불려앉으며 안해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네, 재미있었어요. 우리 정옥이가 출연한 시랑송이 아주 인기를 끌었답니다. 서정시 <광산의 탄생>을 읊었는데 막 눈물이 나더군요.》

《음, 그 애가 그 시를 읊었다단말이지...》

광일은 실눈을 짓고 어딘가 높은곳을 올려다보았다. 분석기사인 외동딸 정옥이가 읊었다는 그 서정시는 금덕광산에 현지체험을 나왔던 어느 한 시인이 류광일을 서정적주인공으로 하여 쓴것이였다.

그대의 30년은 자랑차구나... 하고 시작되는 서정시에는 이 광산력사속에 응결된 류광일의 사랑과 탐사의 생애가 집약되어있었다. 기실 돌이켜보면 결코 순풍에 돛을 단것처럼 순조롭게 흘러온 30년이 아니였다. 때로는 성공의 희열을 맛보고 때로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시였었다. 조화가 많은 자연의 희롱으로 하여 그는 번민속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다. 환희와 번민, 성공과 실패- 그 모든것이 부단히 뒤바뀌며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 금덕광산은 가행가치가 완전히 담보된 광산으로, 이를테면 국보로서의 《광산일가》를 이루게 된것이였다.

《정옥이가 <광산의 탄생>을 읊었다단말이지? 그런데 그 <랑송배우>는 왜 아직 안들어오우?》하고 류광일은 입을 빙글서하고 안해에게 물었다.

《글쎄요. 아까 회관앞에서 웬 낯선 젊은이와 얘기하는걸 봤는데... 여보, 집필두 끝냈는데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그새 당신이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렇가-》

류광일은 두팔을 우로 뻗치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정옥이가 옷방문을 열었다.

《아버지, 연구사동지가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류광일은 느닷없는 딸의 말에 어정쩡해있는데 가을외투를 입은 젊은이가 문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류광일기사동지이십니까?》

《그렇소.》

류광일은 눈을 치뜨고 불현듯 나타난 젊은이를 의아스럽게 건너다보았다.

후리후리한 키, 리치적인 번듯한 이마에 조화되는 빛나는 눈매, 높은 코마루와 역세계 각을 이룬 턱... 전혀 생소한 젊은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춘갑이라구 합니다. 전 기사동지를 통해 무얼 좀 알아보자구 왔습니다.》

젊은이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밝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광일은 두리상을 한쪽 옆에 밀어놓으며 여전히 의아스럽게 손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는 손님이 방안으로 들어서자 어줍은 웃음을 띠고 물었다.

《앉으시오. 그런데 나한테서 무얼 알아보자구 그 면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소?》

박춘갑은 길마리에 앉아서 원고더미들에 잠깐 눈을 주더니 자기는 근대조선력사를 전문하는 연구사라면서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제가 기사동지께 알아보자고 하는것은 금덕광산을 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를테면 기사동지가 어떻게 되어 지난날 녹솔이골을 찾아와서 탐사하게 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일은 잠시 박춘갑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도대체 광산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이 젊은력사가에게 왜 필요한것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였다.

《저는 이미 광업문헌고에서 기사동지가 해마다 올려보낸 금덕광산지질보고서의 탐사연혁편들을 죄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탐사의 동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썼기때문에 석연치 않습니다.》

박춘갑은 총명하고 기지가 넘쳐보이는 빛나는 눈매로 광일을 뵈니 지켜보았다.

그의 말은 옳았다. 광일은 광산지질보고서의 《탐사연혁편》에 언제나 간단하게 《나는 대학졸업무렵부터 <녹솔이골>이라는 특이한 지명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지질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혀놓곤했었다. 그는 년간지질보고서를 올려보낼 때마다 보고서의 공식적요구에 의하여 늘 그렇게 탐사의 동기에 대하여 관에 박은 소리를 했지만 지금까지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거나 더 깊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여태 보지 못했었다. 그런데 광업가도 아닌 력사전문가가 그 문제를 캐여보려고 찾아온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박춘갑은 류광일의 그런 심정을 짐작하고있는 듯 말을 계속하였다.

《기사동진 저같은 사람이 그런걸 알아보려고 하는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것입니다. 털어놓고 말하면 저는 조선북부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에 대한 문제를 쥐고 준박사론문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녹솔이골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게 되었고 기사동지가 녹솔이골을 찾아가게 된 동기에는 훨씬 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혹시 기사동지가 이 광산을 개발하게 된데는 오동식이라는 사람과 련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방전에 풍천군 경찰서에서 순사질을 하다가 조선인민혁명군정치공작원에 의해 처단됐다고 하는 그 오동식이말입니다.》

류광일은 전혀 예상밖의 기상천외한 일에 부닥친듯 눈이 뻥해 앉아있었다.

박춘갑의 생각은 정확하였다. 류광일에게 녹솔이골을 개발하게 한 그 행운의 안내자, 탐사의 안내자는 경찰서에서 순사질을 하던 그 오동식이였다. 녹솔이골에 쇠돌이 있을것이라고 처음으로 추측한 사람도 오동식이였고 녹솔이골탐사를 발기한 사람도 그였다. 《금덕광산》이라는 그 이름에도 류광일이만이 알고있는 오동식이와 관계되는 비밀이 있었다.

풍천군경찰서 외출순사였던 오동식은 해방전에 풍천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들춰내려고 뛰여다녔을뿐아니라 혁명가들을 죽인 일까지 있어서 친일적인 악질순사로 소문이 난 사람이였다. 더구나 그는 혁명군 공작원에 의해 처단됐기때문에 령북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류광일은 애초에는 녹솔이골탐사의 발기자가 경찰서 순사질을 하던 사람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미 광맥을 찾아내고 탐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때에야 자기의 탐사의 안내자가 바로 풍천군사람들속에 친일적인 순사로 유명해진 오동식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류광일은 자기의 한생의 창조물인 금덕광산의 개발력사의 시초가 친일순사와 련관되어있는것을 가장 수치스럽고도 불쾌한 일로 여기고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성스럽고도 신성한 탐구사업을 얼룩지게 하는 오점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그때문에 그는 광산탐사의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삼가하였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어 안해와 딸까지도 모르고있는 광일의 심중속 비밀로 남아있게 되었던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있단말인

가?)

류광일은 매우 심각해졌다. 무엇보다도 경북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에 대한 혁명력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가 천리길도 마다치 않고 찾아온것이 심상찮게 느껴졌다. 사료의 진실성을 귀중히 여기는 젊은 력사가의 뿔뿔한 재빛눈은 마치도 《당신은 투철하지 못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광산의 탐사력사를 기만해왔소!》하고 가차없이 타매하는것만같아 부끄러웠다. 그러나 한편 그의 가슴에서는 력사가의 그 눈빛을 향해 뿔뿔이 항변하는것이 있었다.

그렇다. 나는 구태여 오동식이라는 너절한 이름을 내비치여 우리 시대의 깨끗한 창조물을 얼룩지게 하고싶지 않았고 현시대사람들과 또 후대들이 금덕광산이라는 이름을 외울 때 불쾌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싶지 않았다. 여기에 무슨 나쁜 것이 있는가.

《기사동지, 대체로 연혁적방법으로 일반 사료를 고찰하여 당대사회의 본질과 력사적교훈을 밝혀내는 우리 력사가들도 때로는 작가들처럼 평범한 한 인간의 운명과 생활을 연구하여 력사의 본질을 밝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숨겨져있는 오동식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하겠습니까.》

박춘갑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가라앉아있었으나 류광일에게는 매우 날카롭고 격렬하게 느껴졌다. 광일은 어딘가 뿔뿔치 못한 생각이 자꾸 들었으나 이제는 어차피 이 젊은 력사가앞에서 오동식이나 관련된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는 박춘갑이가 오동식의 자료를 통해서 조선북부지구의 조국광복회 활동에 대한 어떤 력사적반증을 하려는것같이 공민적의무감과도 같은 신중한것을 느끼었다.

광일은 피곳 아래방을 내려다보았다. 안해와 딸이 서로 어깨들을 붙인채 웅충그리고 앉아서 울통해진 눈으로 류광일을 지켜보고있었다. 바로 몇시간전에 무대우에서 《광산의 탄생》을 읊은 정옥은 출연복으로 입었던 은근한 회색비로도치 마저고리를 그냥 입고있었다.

광일은 이제 저 안해와 딸의 가슴을 몹시 놀래울수 있는 깊은 비밀을 터놓자고 하니 마음이 괴롭고 번거로웠다.

티없이 순결한 딸의 눈동자, 사려깊은 안해의 온화한 눈, 그 눈들은 자기들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류광일의 세계, 그의 공적과 탐사의 생애에 대하여 여태 조금도 의심한것이 없었다.

류광일은 머리를 수긏하고 꺼져들어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소. 내가 이 녹솔이꼴을 탐사하게 된데는 악질순사 오동식이나 련계되어있소. 나는 그자의 <안내>를 받아 여기로 왔소. 나는 동무가 력

사가라는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 말하겠소.》

류광일은 실눈을 짓고 추연히 창문밖을 내다보았다. 산자락에 주련이 늘어선 광산주택의 무수한 지붕들이 황홀한 달빛에 반사되어 유난스레 번들거렸다. 번성하는 광산마을, 사랑하는 그 창조물들이 어째선지 이 순간에 광일의 가슴을 한층 더 야릇하게 흔들어놓는것이였다. 그리고 창문앞을 스쳐가는 소슬한 가을바람소리와 마당 건너에서 들려오는 소연한 내물소리가 이 광산과 더불어 빚어진 잊을수 없는 추억들을 새삼스레 불러일으켰다.

류광일은 혈기왕성하던 청춘시절, 힘이 넘치고 희망과 열정으로 약동하던 대학시절을 회고하며 광산탐사의 동기에 대한 옛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1954년 봄이였소. 나는 그때 북행렬차를 타고 졸업논문실습지인 관모봉지구로 가고있었소.》

이렇게 허두를 때는 광일의 눈앞에는 30여년전의 려행길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때 류광일을 태운 밤차는 지루하게 어둡속을 달렸다. 려객들은 모두가 밤차에 지쳐서 머리를 건둥거리며 졸고있었으나 탐구심에 불타던 광일이만은 확대경을 들고 광물표본들을 감정하느라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있었다. 그는 객차가 함흥지구에서 거의 이르렀을 때에야 누구인가 곁으로 다가서는것을 보고 확대경을 눈가에서 떼며 머리를 쳐들었다. 흰 수염을 길게 드리운 두루마기차림의 로인이 맞은편 좌석에 앉더니 조용히 말을 건네었다.

《보아하니 임자는 쇠돌공부를 하는 대학생같구만...》

《그렇습니다, 아버님.》

광일은 창턱에 놓여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광물들을 쭉 훑어보며 빙긏 웃음을 지었다. 두루마기를 입은 그 로인도 유순하게 생긴 작은 눈을 슬며시면서 번쩍거리는 광물표본들을 호기심에 차서 한동안 여겨보았다.

《그래 임잔 어디로 가는 길인가?》

류광일이 졸업론문을 쓰기 위해 탐사현장으로 찾아간다고 하자 로인은 흰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임자가 쇠돌공부를 하는 대학생이라니 내 옛말이나 좀 할가》 하고 눈가에 주름을 모으며 허연 대문이를 드러냈다.

《예, 어서 하십시오.》

광일은 무슨 말을 하려는가싶어 호기심을 품고 로인을 건너다보았다. 로인은 교양이발통만한 공작석표본 한개를 집어 들고 천천히 말을 뱉었다.

《저 려북쪽에 가면 녹솔이꼴이라는 천하 몸솔놈의 땅이 있네. 어찌 녹솔이꼴이라 하시고 하니 그놈의 땅에선 무시게든지 쇠불이로 된 물건은

이내 녹이 쓸어 못쓰게 되길래 그랬다네.》

녹썰이골이란 이름은 옛날 그곳에서 정배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붙인것이라 했다. 그곳에서는 농쟁기들도 신기한 녹썰이때문에 얼마 쓰지 못하고 내버려야 했다. 게다가 녹썰이골은 물까지 나빠서 사람들은 자주 배탈을 만나고 부역소들도 가끔 원인모르게 죽어넘어지곤 했다. 장마철이나 눈석이때면 어떤 바위쥬에선 물감을 풀어놓은것 같은 파랑물이 흘러나오곤하는데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 물을 마시면 즉시에 배를 앓다가 죽게 된다. 그런 고약한 땅이어서 정배살이를 하던 사람들마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죄다 가버렸다. 그래서 그 아근일대가 자연히 무인지경으로 돼버렸고 녹썰이골이라면 사람 죽이는 악귀가 있는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도 발길을 하지 않았다.

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녹썰이골에서 살다가 열한살때 덕수골이란 마을로 나왔었다고 했다.

《어찌지 녹썰이골에서 살던 사람은 다 일찍 요절하며 남은 사람이라곤 나혼자뿐이였네. 그런데 어느해부터인가 젊은 소금장사군 하나가 우리 마을에 가끔 소금팔러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하주는 나더러 하는 말이 녹썰이골에 분명 큰 쇠돌이 묻혀있는것 같다질 않겠나. 자기는 워낙 여덟살때부터 근 15년간 광산로동을 하다가 요즘부터 소금장사를 해본다면서 쇠돌물계를 좀 안다는게지. 그러면서 지금은 왜놈세상이니 꼼짝 입밖에 내지 말구 있다가 독립이 되면 함께 쇠돌을 찾아보자는게야. 소금장사군 남의 에미네 홀리듯한다는 말도 있지만 세상 허풍쟁이가 소금장사군이여서 나는 들은동안동했네. 그런데 그 소금쟁이는 락도까지 그르보이면서 <난 아버님의 아들이 사상운동을 하다가 옥사했다는 말이랑 들었길래 민구 이런 말을 하우다. 이제 보우다. 십년안팎으루 독립이 되구 독립이 되면 저 녹썰이골이 쇠돌터를 입는 금덕골이 될거우다. 그러니 락심말구 좋은 세상이 오길 기다리오다.> 하고는 녹썰이골 애길 다른 사람들에게겐 절대로 하지 말라구 재삼 당부하잖겠나. 내 그때 아들녀석은 감옥에서 죽구 로친마저 심화병으로 상사가 나서 속안에 먹구름이 차있었는데 좌우간 소금쟁이의 귀맛좋은 말을 듣고나니 가슴이 좀 후련해집데. 한데 소금장사군이 그다음엔 영 우리 마을에 나타나질 않았네. 하기사 마을이래야 똑막같은 집 여섯채밖에 없는 외딴 산골마을이니 장사수지가 맞지 않아서 오지 않았겠지...》

로인은 소금장사군에 대한 애투한 추억을 더듬는듯 차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류광일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나서 더위를 느끼는 사람처럼 나이론샤쓰의 옷단추를 끄르고 목을 휘저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었다. 방안의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긴장하게 시선을 집중하고있었으나 광일은 오래도록 덤덤히 앉아있었다.

《기사동지께 소금장사군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 로인의 이름이 뭇입니까?》

광일은 이야기를 재촉하듯이 이렇게 묻는 촌갑의 목소리를 듣고야 손수건으로 이마와 목덜미를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그 로인의 이름은 김순보요. 그때 순보로인은 소금장사군이 마을에 찾아올 때면 늘 동네아이들에게 엿가락과 사탕알을 나눠주고 소금값도 아주 녹게 받았다면서 인정이 있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였다고 했소. 그러나 로인은 해방되기 몇해전에 출가한 딸을 따라 함흥쪽으로 이사를 간 이후부터 점점 소금장사군과 녹썰이골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됐다는것이요.》

그렇게 모든걸 잊어버렸던 순보로인이 해방된 이듬해에 어느날 신문에서 나라의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할데 대한 글을 읽고 문득 녹썰이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것이다.

그래서 순보로인은 서둘러 도에 올라가서 광업부문을 담당한 어느 간부에게 소금장사군과 녹썰이골에 대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기이한 녹썰이골이야기를 듣고 난 그 간부는 흥분하거나 기뻐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이 지나가던 소금장사군의 말을 고지식하게 새겨두고있었는데 웃었다. 사실 거기에 《노다지》가 있음직하다면야 소금장사질이나 해먹던 녀석이 무슨 애국자라고 가만 있었겠는가, 벌써 왜정때 판을 벌려 덕대가 됐을 게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쇠돌물계를 잘 아는 애국자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 자신은 왜 아직 나라에 녹썰이골에 대한 계기를 하지 않습니까. 녹썰이골이란 말을 들으니 지금 처음입니다. 허풍입니다.》 하고 그 간부는 머리를 내저었다.

로인은 어쩌면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그 때부터 로인은 다시 녹썰이골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쇠물공부를 하는 대학생들 보자 그 생각이 불쑥 머리를 쳐들어 그저 옛말처럼 되뇌인다고 했다.

그때 류광일은 몹시 흥분하였다. 결코 소금장사군의 말이 허용으로만 생각되지 않아서였다. 녹썰이골에서 가끔 보게 된다는 파랑물은 유색금 속광상지역에서 발생할수 있는 류산용액물로 인정되었고 쇠돌불이들이 녹이 잘 쓰는것은 바로 그 파랑물의 조화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렐차가 어느 한적한 어촌마을에 멎었을 때 광일은 서둘러 로인의 이름과 주소를 수첩에 적어놓고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길로 대학으로 되돌아가서 논문대상지를 바꿔달라고 강경히 제기하였다. 그는 대학의 승인을 받고 길을 떠난지 십여일만에 겨우 녹썰이골을 찾아냈다.

절해고도와 같은 인적없는 외로운 땅이었다.



혹은 천년고목이 무성하고 혹은 물뿌다귀들이 우죽빠죽 솟은 산릉선들이 가로세로 내뻗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깊이 떨어져내린 수많은 골짜기들에서 물소리가 소연했다.

광일은 천막칠 자리를 고르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녔으나 정배군들이 살던 인가의 흔적은 하나도 볼수 없었다. 그는 해가 기울어졌을 때 남향한 산기슭에서 낚은 오두막 한채를 발견하였다.

오랜 세월 주인없이 비어있었으므로 오두막의 나무기둥들은 고리삭아서 이그러지고 지붕은 두엄처럼 썩어버렸다. 막에서부터 얼마 내려가서 박우물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사람의 손이 가지 못해서 푸른 이끼와 나무껍질들이 한가득 가라앉아있었다. 광일은 잠깐 주변을 돌아보는 사이에 오두막의 주인이 지질학적으로나 위생학적으로 충분히 고려된 아주 기막히게 좋은 터전에 막을 지었었다고 감탄하였다. 남향한 산기슭의 오두막 터전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누기가 들지 않는 중생대 단천암군 화강암풍화토였고 박우물은 깊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압력수였다.

이 훌륭한 오두막터전은 유독한 광물용액이 흘러나오는 거칠고 스산한 땅, 녹솔이골에서도 맑은 물과 따뜻한 해빛과 신선한 땅의 혜택을 받는 그런 터전을 얼마든지 마련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바로 녹솔이골에서 미래의 광산도시를 창조하려는 류광일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그는 곧 오두막을 허물어버리고 그자리에 력사적인 탐사의 《집》을 지었다. 천막을 쳐놓고는 박우물을 가서버리고 전쟁터로 떠나는 옛무사처럼 군용밥통으로 샘물을 랑껏 떠서는 의미있게 들이마시었다. 그때로부터 4개월만에 광일은 대단히 품위가 높고 맥이 두터운 첫 광맥을 발견하였다. 그날에 그는 궁상스럽고 귀맛 거칠은 《녹솔이골》이란 이름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이름, 그 옛날 소금장사군이 예언했던 《금덕》이란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심정으로 광맥이 뻗은 벼랑에다 《사람들이여! 이제부터 이 땅을 금덕골이라 부르시라!》라고 간데라불로 글을 써놓았다. 그때 찾은 한줄기의 광맥은 아직 전망을 확정할수 없는 하나의 광산징후에 불과한것이지만 그는 마치 세계적인 대규모의 광산을 벌써 일궈놓은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러웠던것이다. 그는 읊으로 달려가서 대학과 북부지구탐사단인 제7탐사단에 전보를 치고는 그 길로 자기에게 소금장사군의 이야기를 들려준 순보로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때 순보로인은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있었다. 수염을 길게 자래워 풍신중년 로인의 얼굴은 광대뼈만 앙상하게 수척해졌고 깊이 꺼져들어간 두눈은 병고에 시달린듯 사라져가는 별처럼 희미한 빛을 띠고있었다.

광일은 로인의 여윈 손을 잡아쥐었다.

《로인님,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구 달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허허허... 장군님이 찾아주신 이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자구 했는데 나두 녹솔이골사람이라 어쩔수 없는가부네. 어렸을 때 마신 녹솔이골물이 지금 독을 쓰는것 같네. 하기가 이만하면 오래 산죽이지...》

이미 림종의 시각이 다가왔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있는 로인의 두눈에는 행복한 이 세상과 리별하게 되는 크나큰 슬픔과 생에 대한 강렬한 애착이 그대로 비껴있는것 같았다. 그래서 류광일은 로인을 고무하며 힘주어 말했다.

《로인님, 무슨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래 사셔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녹솔이골에서 광맥을 찾았습니다.》

그 말에 서글프게 꺼져있던 로인의 두눈에서 번쩍 빛을 뿜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 솟아나는 생명의 불꽃과도 같이 생신하고 강렬한것이였다.

《그게 사실인가?》

《자, 이 돌을 보십시오. 바루 이 쇠돌이 파랑물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장사군은 쇠돌을 아는 사람이였구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그분의 소식을 아직 모르십니까?》

광일은 흥분에 떠서 성급히 물었으나 로인은 소금장사군의 말이 나오자 웬일인지 눈길을 돌리고 덤덤히 있었다. 그는 한참만에야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나두 여태 소금장사군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있었는데 알고보니 나쁜놈이란말일세.》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며칠전에 그걸 알았는데 그놈은 해방전에 혁명군의 총에 맞아죽은놈일세. 친일경찰일세.》

류광일은 너무도 뜻밖의 말이여서 어리둥절해졌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나두 처음엔 그말이 믿어지지 않았네. 우리 덕수마을에서 살던 젊은이 하나가 해방전에 저 풍천쪽에 가서 로동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소금장사군이 칼을 차구 다니는걸 보았나지 않겠나. 풍천군에서 오순사라 하면 모두 치를 떤다는데 글썽 그 순사 오동식이야 바루 소금장사군이라는 게야. 우리 마을에서 살던 그 젊은이가 엇그제 평양으로 가는 길에 집에 들려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로인은 당시 오동식은 풍천일대에 꾸려진 조국광복회조직을 들춰내기 위해 집집을 싸다니며 가택수색을 했기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것까지 죄다 꿰들고있었다고 했다.

《그놈은 어찌나 총기두 좋은지 하루는 함바집을 수색하다가 우리 마을 젊은이를 보더니만 대뜸 <음, 너 덕수마을에서 온 녀석이구나. 넌 순보령감의 아들이 사상운동을 함메 하구 거들먹거리다 죽은걸 알구있을터이니 감히 풍산조직에 들

생각을 안하겠지.> 하더니 덕수마을에 공산조직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볼려구 그때 자기가 소금장사군행색을 하구 다녔다구 말하더라는거네. 제 입으루 말일세. 내 원 세상에...》

로인은 발작적으로 기침을 짓었다.

류광일은 점차 의혹의 심연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생각이 머리를 혼돈시켰다. 사실을 놓고 추리해보면 오동식은 분명 순보로인의 마음을 중편보기 위해 녹솔이골에 쇠돌이 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감언리설을 늘어놓은것 같은데 자기는 실지 팡맥을 찾은것이였다. 팡맥이 나타난 그 엄연한 사실로 하여 팡일은 덕수마을청년이 전해주었다는 그 말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도록 심사숙고한 끝에 그는 이렇게 단정하였다.

(그렇다. 소금장사군은 결코 녹솔이골에 쇠돌이 있다고 생각한것은 아니였다. 쇠돌이 문헌곳에서 녹이 잘 쓴다는 말을 어디서 주어들은건 있어서 그저 한마디 체크했을것이다. 그자의 목적은 순보로인의 마음을 중편보는것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일은 너절하게 됐다. 나의 탐사의 동기가 그놈과 련계되어있으니말이다.) 류광일은 번민하면서 로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사실 그는 졸업론문의 머리말에다 순보로인과 소금장사군의 이야기를 적어놓으려 했었다. 그러나 소금장사군의 정체가 그렇고보면 자기의 론문에 그따위 말들을 조금도 비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순보로인은 그때 마치도 팡일의 심정을 들여다보고있는듯 그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의 메마른 가슴우에 올려놓았다. 로인의 심장은 얼마남지 않은 생의 한조한조를 귀중히 간직하기 위해서인지 오히려 더 높이 고동치고있는것 같았다.

《그 래 녹솔이골에 실루 팡산이 일어섬죽한가?》

《예, 저는 꼭 일켜세우겠습니다. 로인님, 부디 장수하시여 로인님의 슬픈 과거가 있는 그 땅에서 팡산이 일어서는걸 보십시오.》

팡일의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흘러나왔다.

《고맙네, 장하이. 하지만 난 그걸 못보구 갈것 같네.》

병고의 신열로 허영게 채리가 앓은 로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면서 이그러졌다. 분명 로인의 생명은 도저히 건질수 없게 기울어져있었다.

류광일은 생명이 꺼져가는 로인앞에서 《일 후에 팡산이 서면 로인님의 공적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려다가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오동식이와 관련된 로인의 공적을 과연 세상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수 있을가싶었다. 은연중 다행하게 생각되는것은 자기와 순보로인과 오동식-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모

르고있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위낙 입이 무거운 순보로인은 딸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다.

류광일은 이처럼 복잡한 마음을 안고 순보로인과 헤어졌다. 그가 다시 녹솔이골로 찾아갔을 때에는 전보문을 받고 벌써 7탐사단에서 많은 방조로력을 보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금덕골탐사현장》이라고 표말까지 박아놓았었다....

류광일은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중동무이하였다. 어쨌든 가슴이 답답하여 입을 열수가 없었다. 하긴 그만했으면 박춘갑이 요구하는 팡산탐사의 동기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밝혀진가도싶었다. 그후 30여년 흘러온 팡산개발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박춘갑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것이다. 아니 그것은 이미 신문지상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류광일에게 팡산땅을 사랑하는 애국자, 금덕팡산의 창조자의 영예를 부여하였고 나라에서는 그의 가슴에 무수한 훈장을 달아준것이였다.

《일은 그렇게 됐군요.》 하고 박춘갑은 허아래 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팡일은 방안의 사람들을 외면한채 긴 한숨을 내쉬고 지갑에서 담배를 꺼내었다. 그는 어색하고 피로왔다. 그는 안해와 딸과 그리고 박춘갑에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고싶었다.

《내가 순보로인의 공적까지도 자기 몫으로 독차지했다고 말할수 있는데 리해하여주기 바라오!》

박춘갑은 류광일의 입에서 쏟아져나오는 담배연기의 미묘한 움직임을 음미하듯이 오래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기사동지가 허물어버린 그 오두막자리, 다시 말해서 기사동지가 대학시절에 탐사의 첫 천막을 쳤던 그자리는 어디쯤 됩니까?》

《이 집이요. 바로 우리 집이 그 오두막자리요.》

《아, 그렇습니까?!》

박춘갑은 무중 놀라더니 오두막자리를 확인이라도 해보는듯 방안을 둘러보았다.

《기사동진 그 오두막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팡일은 그 오두막이 바로 옛날 정배살이군들이 쓰고살던 녹솔이골인가의 유일한 흔적이였다고 말했다. 그 오두막의 매력은 서정시 《팡산의 탄생》을 통해 사람들속에 더욱 널리 알려진터였다.

류형살이 눈물이 스민 오두막터전에  
지질기사는 인생의 집을 지었더라  
마당밖을 나서면 수난자가 마시던  
옛 박우물도 그대로 고여있나니  
여기서 우리의 후대들은 보게 되리라  
문명과 략후, 략원과 지옥을 대조하는  
력사의 두 시대를...

박춘갑은 명상에 잠긴 표정으로 이윽히 창문가를 지켜보았다.

《기사동진 그 오두막이 19세기말 20세기초에 지은 녹솔이팔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1930년대에 더 정확히 말해서 1937년 10월 하순에 오동식이가 지은 집입니다.》

《뭘요?!》

류광일은 부지중 부르짖으며 몸을 뒤로 젖히었다. 박춘갑의 말은 그에게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의 안해와 딸도 얼굴들이 해죽해죽해 박춘갑을 치며보고있었다. 류광일은 말할수 없는 치욕을 느끼면서 그의 말을 완강히 부정하였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수 없소.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오!》

《기사동지, 그건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로와할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동식 그분은 악질순사가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특수공작원이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류광일의 머리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방바닥에 두손을 짚은채 춘갑을 훑어보았다. 아래방의 녀인들도 너무 놀라와 장지문턱에들 다가와 앉았다.

《오동식동지의 본 이름은》 하고 박춘갑은 계속하였다.

《그분의 이름은 리철진입니다.》

《리철진!》

류광일은 재차 놀라면서 그 이름을 외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고장을 현지도하실 때마다 회상하시는 항일투사의 이름이었다. 돌이켜보면 광일은 그 이름을 오동식이란 이름보다도 먼저 낫을 익혔었다. 그는 1953년 9월에 대학강당에서 광산탐사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던 그날에 리철진이란 이름을 알게 되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광산탐사에 대한 교시를 하시고 탐사일군들과 헤어지실 때 리철진을 회상하셨다는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리철진이가 여덟살때부터 15년동안 광산로동을 하다가 혁명군에 입대한 동무로서 머리가 총명하고 나라의 지하자원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다고 하시면서 그의 소식을 몰라 가슴아파하셨다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일전쟁과 관련하여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함흥, 원산 등지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실 때 박룡순 리철진동무들에게는 장기적인 공작임무를 주시어 압록강연안 북부지구에 보내셨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그후 룡순동무가 정치공작사업을 하다가 애석하게도 해방의 날을 며칠 앞두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

셨지만 리철진동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고 하시며 못내 괴로와하셨다고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이곳 평북지구를 찾아오실 때마다 리철진을 자주 회상하셨기때문에 그 이름은 류광일의 뇌리에 깊이 인찍혀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동식이가 바로 리철진이란말인가!

《그렇습니다. 리철진입니다.》 하고 박춘갑은 류광일의 심중속 반문에 대답하듯 힘주어 뇌이고들가방안에서 두툼한 자료첩을 꺼내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박룡순동지의 비밀공작일지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발굴된 이 박룡순동지의 자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와 함께 일하던 철진동무의 소식도 있을수 있으니 꼭 해명하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수자로 쓴 암호글이었다) 발굴되면서 모든것이 해명되었습니다. 오동식동지는 참으로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 북부지구에 광범히 분포되었던 조국광복회조직이 해방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움직일수 있는것은 오동식동지의 숨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품문에는 그가 <사상가>를 죽였다는 말이 많이 떠드는데 그가 죽인 <사상가>란 밀정과 변절자들입니다.》

박춘갑은 침통한 표정을 지은채 진술을 내쉬고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동식동지는 국내공작 첫시기에 박룡순동지와 함께 바로 이 녹솔이팔 오두막에 비밀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다가 필요에 의해 특수공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4년 11월 5일에 장렬히 희생되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관련하여 기록하여 둔 박룡순동지의 공작일지의 몇대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춘갑은 종이꽃개를 꽃은 문건 한통을 자료첩에서 꺼내었다. 그 문건이 바로 암호글로 쓴 박룡순의 정치공작일지를 해제하여 우리 글로 옮겨 쓴 것이었다. 박춘갑은 산뜻한 흰종이에 정자로 박아쓴 먹글을 더듬으며 슬픔에 젖은듯한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나갔다.

...1944년 11월 5일, 이날은 가장 슬프고 괴로운날이다. 오동식동무가 전사하였다. 그가 우리의 결을 영영 떠나갔다. 하늘이 무너진듯 앞이 막막하다.

어쩌면 내 불찰로 그가 희생된것 같아 더욱 가슴이 터진다. 내가 동만에 있을 때 한마을에서 살던 한계백이란놈이 요즘 풍천땅에 와서 밀정질을 하고 있는줄을 몰랐다. 바로 그놈이 사흘전에 내 얼굴을 피어보고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날 나는 그놈이 고등계형사 세놈과 주재소경찰 세놈을 안내하여 까치골 비밀쪽막으로 은밀히 기어드는것도 모르고 그안에 편안히 앉아 공작일지를 쓰고있었다. 오동식동무도 그 사실을 좀

뒤늦게 알고 급히 쫓아왔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격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그는 룡혈포를 발사하고 단검을 휘둘러 일곱놈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나 자신도 치명상을 입었다. 이것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내가 총소리를 듣고 똑딱박으로 나왔을 때엔 벌써 까치골심산속에 고요한 적막이 깃들어있었고 오동식동무는 벼랑우에 쓰러져 숨지고있었다..

...오동식동무는 내 무릎에서 숨지는 순간 적의 일곱놈시체가 널려있는 벼랑밑을 가리키며 자기 시체를 그 벼랑밑에 내던지라고 하였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자기도 혁명군의 총에 맞아죽은 것으로 가장시키기 위해서였다. 사실 오동식동무의 정체가 드러나면 사태가 매우 엄중해진다. 만약 오동식동무가 특수공작원이었다는것이 발로되면 놈들은 그에 의하여 《량민》으로 확인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것이다. 악독하기 그 지없는 놈들은 오동식에 의해 《량민》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닥치는대로 학살할수도 있었다. 오동식은 죽는 순간에도 그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어서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아니요! 그럴수는 없소. 더는 못참겠소. 이제 나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다 말하겠소.》

그러자 오동식동무는 최후의 힘을 다 모아 내 팔목을 잡아쥐었다.

《룡순동무! 그러지 마우. 우리가 늘 혁명을 위해서라면 이 한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게 말만 해서야 되겠소. 내 시체를 던지시오. 그 누구에게도 내 말을 하지 마시오. ...만약 이 부락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동문 혁명의 배신자로 될게요.

...룡순이, 울지 마우. 울지 말라구...》  
아, 이 말을 남기고 오동식은 갔다.

사랑하는 전우는 눈을 감았다...  
박춘갑은 목이 메이는지 읽기를 그만두고 손에

쥔 종이장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두눈귀에 굵은 이슬이 맺혔다. 불현듯 아래방에서 터지는 녀인들의 흐느낌소리를 듣고 광일은 어금이를 짹 깨물었다. 혁명렬사의 공작일지를 다시 읽어나가는 박춘갑의 목소리도 오열에 떨리었다.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 어려운 지하공작을 하면서도 나는 오동식동무가 옆에 있었기때문에 온갖 피로움도 이겨내고 마음이 든든했었다. 그 동무 없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웬일인지 5년전 5월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난다.

우리 혁명군들이 무산지구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때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고싶어 매일밤 잠을 못이루며 진정을 못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하루는 오동식동무가 따듯이 나를 충고해주었다.

《룡순동무가 요즘 너무 흥분을 로출시키고 기분을 억제하지 못하는것 같은데 난 그게 걱정되오.

우리 지하공작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일을 망치게 할수 있다는걸 누구보다도 동무가 잘 알고있지 않소. 우리 동무들중에는 철창속에서 스스로 허를 끊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천번중 한번이라도 사소한 실수가 있어선 안되겠기에 그런게 아니겠소. 동무가 왜 <녹솔이골>에 대한 비밀을 조직원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태 자기만이 알고있었소? 그것두 사소한 부주의를 생각해서지요.

룡순동무, 피로움도 슬픔도 그리움도 다 참아내면서 우리 지하공작을 잘하기요. 우리가 사령관동지를 만나뵙을수 있는 날은 오직 조국광복이 성취되는 그날밖에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단단히 각오를 가집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면 그는 늘 이렇게 곁에서 값있는 편달로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던 혁명동지였다.

꿈이 많은 동식동무는 조국이 광복되면 우리의 비밀근거지였던 녹솔이골에 선잠 찾아가서 인민의 광산을 세우겠다고 무시로 외쳤었다. 그 꿈이 하도 소중해서 나도 녹솔이골 <광산비밀>을 조직의 비밀처럼 지켜왔건만 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그는 벌써 가버렸다.

녹솔이골에 광산이 서면 누구보다 그곳 태생인 순보로인이 기뻐할게라고 즐겁게 공상하던 동무가 영영 가버렸다. 순보로인과 같은 이름없는 조선의 한 로인까지도 혈육처럼 사랑하던 애국의 열혈심장이 굳어져버렸다...

박춘갑은 또다시 목이 메여올라 읽기를 중단하였다.

류광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충격으로 전신을 가뻐게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몇발 자국 비칠거리다가 바람벽에 손을 짚었다.

(아, 내 탐사의 안내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류광일은 오동식의 순결무구한 량심과 그 참다운 헌신성에 대해서 음미해보았다.

오동식은 죽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에게 차례질 미래의 영광을 털끝만치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였다. 그는 자기에 대하여 유일하게 알고있는 박룡순이도 어려운

지하공작의 살얼음을 밟고다니다 모든 비밀을 가슴에 묻은채 순식간에 죽을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조국광복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을것이며 그래서 가까운 혈육들과 만나게 될 상봉의 꿈을 안고 살았으리라...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꿈도 사랑하는 친인들도 멀리 두고 살았으며 그처럼 귀중한 동지에게서조차도 다는 리해 못할

저주로운 이름을 남긴채 자기의 시체마저도 싸움터에 내던지라고 그처럼 간곡히 유언했었다. 그런데 나는... 이 광산이 민족배반자의 이름에 얼룩질가봐 우려된다고 하면서 광산탐사의 《연혁편》에서 순보로인의 이름마저도 지워버렸었다. 광산의 《명예》를 위한다는 합법화된 구실밑에는 나 개인의 명예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처럼 귀중한 사람의 공적을 30년이 나...

《연구사동무, 그러구보니 내가 큰 실책을 범한 것 같소.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겠소. 참으로 죄송스럽소.》

류광일의 눈길은 활짝 열어제낀 창문너머 어둡이 깃든 광산마을을 더듬었다. 오색찬연한 전등빛이 명멸하는 광산문화회관앞에서 아직도 삼삼오오 떼를 지어 오가는 청년들이 밝혀왔다.

(아, 그도 얼마나 저이들처럼 살고싶었으랴! 얼마나...) 류광일의 눈앞에는 순간 아직 한번도 본적 없는 이름없는 항일혁명투사의 모습이 방불히 나타났다. 온 방안을 채우며, 온 우주를 채우며...

류광일은 여전히 방벽을 짚고 서있었다. 그의 가슴은 감격과 자책감으로 끓어올랐다. 박춘갑이도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가로 걸어가며 무거운 어조로 웅대하였다.

《기사동지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동지야말로 혁명렬사들의 넋원을 꾀운 애국자입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이 땅에 훌륭한 광산을 일궈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소. 우리는 이 녹슬이골에서 수많은 광맥을 얻어냈소. 하지만 나는 더 고귀한것을 놓치고 살았던말이요. 천길 굴속에 파묻힌 광석은 찾아내면서도 이 광석에 깃든 혁명렬사들의 고귀한 넋은 찾지 못했던말이요. 나는 광산탐사에서는 언제나 신중했고 한번도 속단하지 않았지만 오동식동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경솔하게 속단했소. 오동식동지에 대하여 내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다면 벌써 일찌기 모든걸 알아냈을지도 모르오.》

정말 과학자로 되기전에 먼저 혁명가가 되었었다면 최덩어리를 알기전에 인간을 알수 있었을게 아닌가...》

류광일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그는 비로소 혁명렬사의 숨은 공적에 자기를 비추어볼 때 정신적뇌리와 량심의 순결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로서의 자신의 소심성과 리기심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높뛰는 가슴을 아프게 움켜쥐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고 박춘갑이 창밖에 던졌던 시선을 광일에게 돌리며 입을 열었다.

《력사가인 우리들이 더 많은 가책을 느끼게 됩

니다. 우리 력사가들이야말로 혁명투쟁자료들을 발굴하고 고증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학위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수령님의혁명력사가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 위대하고 성스러운 투쟁자료들이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못한것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동식동지가 활동하던 풍천지구만 하여도 조국광복회 회원들이 수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가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그러한 혁명적리전이 이 땅 곳곳에 닦아져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민주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그처럼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처에서 보게 되는 숨은 영웅들의 위훈도 역시 오동식동지와 같은 항일선렬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을 계승한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춘갑은 다시 창문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밝고도 부드러운 달빛이 마냥 쏟아져내리는 광산마을을 바라보며 계속하였다.

《저는 박용순동지의 최후를 놓고도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해방되기 바로 나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놈들이 망하게 되자 높은 절벽우에 막아놓은 수전공사장 물동 한귀통이를 터치고 도망치려는것을 발견하고 몸으로 막았지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물동밑에서 일하던 수백명의 토공들이 다 죽을번했습니다. 용순동지는 그들이 안전한곳으로 피할 때까지 한사코 물동을 막고있다가 동을 터치고 밀려나오는 물사태와 함께 벼랑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살려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항일선렬들은 이렇게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용순동지가 뜻밖의 사건으로 급작스레 돌아가셨기때문에 오동식동지에 대한 비밀도 정치공작일지도 40여년이나 누구도 모르게 묻혀있었습니다.》

류광일은 뜨거운 걱정이 솟구쳐올라 눈을 지그시 감았다. 불현듯 정옥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그런듯이 서있는 광일에게 달려왔다.

《아버지!》

광일은 자기 가슴에 얼굴을 묻은 딸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었다. 그는 이 시각에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인가 의미깊은 말을 하고싶었으나 격동된 심정을 표현할수 있는 적중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박을 내다보았다.

광산마을의 무수한 전등불들이 새로운 뜻,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슴에 안겨왔다. 문득 맞은편 산중턱에 붉은색으로 새긴 글발-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혁명선렬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다고 가르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판이 바라보이였다. 오랜 세월 이 광산길을 걸으면서

무시로 우러른 교서관이지만 예순나이에 다달은  
이제 비로소 그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는것 같  
았다.

광일은 마당건너 저편, 거울처럼 달빛을 반사  
하는 사연깊은 박우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참으로 항일선열들의 발자취는 조국땅 그 어디  
에도 어려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오두막터전이  
조국의 혁명터전의 한부분이며 우리 당 혁명뿌리  
의 한 모근이었음을 내가 모르고있을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딛고있는 이 땅에 깃든 성스러운  
래력을 모르고 지낼수 있을것이다.

풍성한 거목에는 반드시 깊고도 억센 뿌리가  
있는 법이다. 하나 뿌리란 땅속에 묻혀있는것이  
여서 그것이 주는 혜택과 고마움을, 그 중요한  
역할을 참답게 알기란 그리 쉬운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늘 혁명의 뿌리에 대해서  
강조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문득 광일은 서정시 《광산의 탄생》을 생각하  
였다. 그 시를 쓴 시인이 이제 광산탐사의 연혁  
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것인가. 그는 틀림없  
이 새로운 시를 쓰게 될것이다. 오동식의 깨끗한  
량심, 그의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정신을 노래  
하는 불같은 시를 쓰게 될것이다.

《오동식동지! 동무는 오늘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 천길막장에서 얻을  
수 없었던 30년의 세월속에서도 찾지 못했던 삶  
의 진리를 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들의 가  
슴속에 살아있을것입니다. ...당신처럼 티없이 맑  
은 량심으로 혁명에 충실하고 조국을 사랑하겠습  
니다.》

류광일은 창력을 두손으로 짊 붙든채 마음속으  
로 부르짖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이슬이  
솟구쳐올라 랑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 눈보라를 안고가자

김수남

내리자니 아쉬워  
한포기 풀도 눈여겨 다시 보고  
작은 부석 하나도 정히 간수하며  
저마다 선뜻 발걸음 못 떼는데

백두산은 웅심깊은  
마음속 진정을 터치는가  
우르릉- 천길 땅속에서 우뢰 올라  
저기 뒤설레는 밀림의 바다위에 김김이 회오리쳐  
살갈이 내달리는 흰갈기여

아, 신비로워라 꽃피는 봄날에도  
백두산엔 눈보라가 있구나!

눈보라 눈보라 네 아니냐  
하늘땅이 얼어붙는 고난의 행군길  
은하수 흐르는 속영의 밤이면  
떠나온 조국산천 너도 그리워  
사령부 천막가에 소연히 설레이다  
천리만리 따라서며 불어예던

네 아니냐 눈보라  
걸음걸음 피로써 이어지는  
준엄한 결전의 그 언덕에서  
장군님의 품에 안겨 눈감은 전사  
그 열혈의 꿈을 안고 넋을 안고 울부짖으며  
원쑤의 머리위에 서리발치던

그러한 낮과 밤은 하도 깊어  
흘러간 세월도 다 알지 못하는  
못잊을 그 사연 그 천신만고의 역사를  
오는 세월의 갈피에 력력히 새겨주고저  
눈보라, 너는 사시절  
이 산정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가고오는 세월의 모든 추억들은  
행복의 파도에 밀려 사라져가도  
우리 백천번을 헤아려 다 알길 없는  
그것만은 그것만은 잊지 말자고  
때없이 부르며 속삭이며  
잠시도 조용할줄 모르는 그 마음

네가 있어  
진정 백두산에 네가 있어  
더더구나 소중한  
한떨기의 꽃, 한방울의 물...

동무여, 우리  
후더운 가슴속  
깊이 새겨안고 가자  
그날의 배낭을 메고가는 천만리-  
진필이라 불속이라  
영원한 신념의 그 나라로 하여  
죽음앞에서도 비겁할수 없는  
오, 백두와 눈보라를 안고 가자

## 미지막 눈보라

김원종 그림 리수길

사령부귀틀집을 나서자마자 정학봉은 고개를 돌리며 털모자를 얼른 눌러쓰고 몸을 웅크렸다.

마치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던듯 눈보라가 옥하고 달려들었던것이다. 뿐만 눈보라는 어제까지 치열한 전투와 강행군을 치르고 부대가 발자국을 메우며 들어온 그 골짜기어구로부터 개울을 거슬러 파도치듯 밀려오고있었다. 눈덮인 개울 건너 검푸른숲의 상공에는 은회색으로 펼쳐진 눈보라의 장막속에 사라져가는 락조의 여팡이 싸늘하게 얼어붙어있었다. 저녁무렵에 숲을 뒤흔드는 바람소리는 죽어가는 맹수의 신음소리같다. 립춘이 지난지 언젠데 아직도 날씨가 이 모양인가. 정학봉은 음산한 하늘을 훑어보았다. 아직 산생활에 익숙되지 못한 그였으나 사나운 날씨가 두렵지는 않았다. 방금 훈훈한 방에서 나온탓인지 아까보다 추위도 덜 느껴졌다. 하긴 눈보라도 살기가 한풀 꺾인것이 완연하게 느껴진다. 살품에 파고드는 바람결에도 찌르는듯한 핑기가 없고 축축해진 눈가루는 옷에 처분처분 들어붙는다. 개울가의 전나무에도 바람받이쪽에는 젖은 눈이 솟처럼 두툼하게 덮였다. 세월이 제아무리 모질다 해도 철따라 봄은 오는것인가... 방금전에도 그는 사령관동지의 여유작작하신 미소에서 봄의 전조를 느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아우성을 치는데 방안에는 때아닌 미풍이 싱그러운 꽃내를 담아내고 살랑살랑 불어드는듯하였다. 그것은 사실 기이한 대조였다. 작전지도가 펼쳐진 사령관동지의 책상우에는 적들의 뼈라 몇장이 놓여있었다.

놈들은 우리 인민혁명군을 《바다에 뜬 좁쌀알》과 같다고 하면서 투항하라고 지껄여댔다. 왜놈 《토벌대》를 찍은 사진밑에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 미구하여 공산군의 《완전소탕》으로 종결을 보게 되리라고 씌여있었다. 뼈라장들에는 하나같이 총창구멍이 뚫려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정학봉에게 주전자의 더운물을 따라주시면서 놈들의 소위 《특별공작》계획은 지난 겨울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에 의하여 이미 휴지장으로 되어버렸으며 이번 전부까지 치르고나면 완

전히 끝장을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요즘 신입대원들이 많이 들어온 조건에서 대내신문의 발간사업은 하루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시고나서 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의 선전공세가 극심해진 때에 출판사업에 경험있는 동무가 찾아온것은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것과 같다고 사뭇 만족해하시였다.

정학봉은 다시금 가슴이 후터워졌다. 인쇄소에서 비밀공작이 탄로되어 적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이송되어가던 자기를 무장소부대의 불의의 습격으로 구원해주신 사령관동지시였다. 출판사업의 경험이라야 고작 개인인쇄소에 들어가 반년남짓한 기간 지하공작을 해온것밖에 없고 주로는 광산마을에서 오래동안 교편을 잡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나이든 학봉을 몸가까이 두시고 친히 보살펴주시려고 출판소성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어떻게 해야 이 산같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을 할수 있을까, 앉으나서나 학봉은 노상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사령관동지께서 래일중으로 대내신문을 발간하라고 하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 마음다지며 사령부를 나섰던것이다.

날도 저무는데 이제는 더 머물어물할 시간이 없다. 될수록 자기 힘으로 원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리충근이 이 밤으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다고 해도 짧은 시간에 것처럼 중요한 기둥원고를 써보낼수 있을까. 그것은 사뭇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리충근의 지식과 리문수준이 어느 정도라는것은 학봉이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질통을 지고 광산에서 오소리굴을 기여다니며 학교문전에도 못가본 그가 아닌가. 그의 학력이란 정학봉이 선생노릇을 하던 야학방에서 서너달동안 가가거거나 겨우 뎌 정도이다. 공부할 나이를 놓치고 고역살이에 시달려온 그는 글이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래도 학봉은 꼭 붙어잡고 꾸중을 해가며 밤마다 글을 배워주었다. 왜놈감독의 가족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모난 돌이 깔린 난장의 버럭무지결에 쓰러져있던

그를 안아오던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과정에 학봉은 여느 아이들보다 충근에게 애가 썩고 정이 갔다. 버럭처럼 퐁글며 천대받는 조선의 새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식으로 눈을 띄워주고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인가. 하지만 학봉은 충근을 더 가르쳐줄수 없었다. 광산에 나왔던 유격대공작원을 따라 충근이 산으로 들어가던 날 학봉은 한자의 글이라도 더 배워주지 못한것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바로 그러한 그가 용감한 소대장이 되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장한 일인가. 입대하여 많은것을 배웠겠지만 전투와 행군의 연속인 간고한 생활속에서 언제 글공부를 할새가 있었겠는가. 글쓰는 일이란 워낙 조런치 않아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어지간히 숙련을 거치지 않고는 꼬아내기 어려운것이다. ...

고개를 짓수그리고 눈보라를 맞받아가던 정학봉은 누군가가 찾는 소리에 몸을 돌렸다. 몸매가 다부진 경위중대장이 봇나무비자루를 쥐고 서서 빙글빙글 웃는다.

《학봉동지, 허리를 쭉 펴십시오. 아마 이 눈보라가 마지막일겁니다.》

정학봉은 왼손으로 눈가루를 막으며 경위중대장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다. 산생활의 벗인 우등불과 눈보라에 습관되지 못한 자기를 가끔 익살조로 위로해주고 고무해주는 그가 정답게 느껴졌던것이다. 하긴 애송이도 아니고 나이가 지숙한 신입대원인데다가 경뽀한 몸에 군복저고리가 클령하여 헉뻐를 맨 허리등엔 온통 주름투성이인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웃음이 나지 않겠는가. 학봉은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경위중대장의 말을 룡담으로 건승 들어넘길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이 눈보라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있을가? 산생활에 미립이 터서 그럴가? 아니면 그에게도 제 룡감이라는것이 있어서 눈보라속에서도 태동하는 봄기운을 느낀것인가...

정학봉은 역시 반룡조로 되물었다.

《거기선 대체 뭘 하오? 게으른 농사군처럼 저녁에 마당을 쓸면서.》

《이게 다 눈보라 덕이지요.》

《쓸어놓으면 또 메워질걸 가지구.》

《누가 견디나 해보자는겁니다... 남달리 일찍 일어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혹시 래일새벽에 이 샘터를 찾으실적에 눈이 덮여있으면 어찌겠습니까.》

까.》

《음... 한데 그 샘물은 여전하오?》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퍼내도 수정같이 맑은 물이 그저 남실남실 고입니다. 그리구 저 버드나무를 좀 보십시오. 겨울에도 김이 올라서 저렇게 하얀 성애가 불린것이 마치 봄날에 버들강아지가 된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구보니 바람만 몇으면 경치 또한 절경이겠소!》

《여부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샘물은 여름에는 이가 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법이라고 사령관동지께서도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경위중대장은 마치 큰 보물이라도 자랑하는 소년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정학봉도 마음속에 기쁨이 찰랑거리며 흐무지게 웃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아두 이 좋은 샘물을 찾아낸건 경위중대장의 공로라고 벌써 소문이 짜하오.》

《그게 무슨 제 공로겠습니까.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을 때 사령관동지께서 저 버드나무밑을 찾아보면 사냥꾼들이 먹던 좋은 샘물이 나질것 같다고 가르쳐주신 덕분이지요. 같은 값이면 저 물이 약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피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게말입니다.》

《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마 그게 진짜 약수일는지두 모르지. 그 주변에 약초덩굴이 엉킨걸 못보았소? 참 안성맞춤이요. 사령부의 문앞에 약수터까지 있겠다. ... 그리구 저 귀틀집은 어느 알뜰한 사냥군이 지어놓았는지 구들두 뜨끈뜨끈하구. 푸송이를 꼭꼭 틀어막아서 걸바람 한점 없겠구만.》

《집두 좋구 물두 좋습니다.》

순간 정학봉은 한발 다가서서 경위중대장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말안해두 어련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사령관동지께서 다문 며칠이라도 폭 쉬시게 경위중대장동무가 각별히 노력해주오. 식량도 좀 얻었지, 집도 따뜻하지, 이고장에 혼치 않은 진짜 샘물까지 있겠다... 지하조직에서 사업하다가 갑자기 산에 들어와보니 제일 먼저 느껴지는것이 사령관동지의 건강에 대한 문제였소. 한뼘 따뜻한 구들에서 먹고 자면서도 혁명을 한다고 생각해온 자신이 부끄럽더란말어요. 요즘 안색이 더욱 촉가신걸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오. 간혹 빛다른 음식이



생겨도 그렇고 어떤 때는 한장의 모포와 털외투마저 대원들에게 덮어주시질 않겠소. 정말 이번에는 결심품고 사령관동지의 건강을 돌봐드려야 하겠소.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오.》

《알겠습니다. … 한데 풍을 치고 숙영하라는 명령을 내리신걸 보면 여기에도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지 않구만요.》

경위중대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번민이 어린 표정으로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정학봉은 덧물이 질벽하게 번져흐르는 버석버석한 개울을 건너 숲의 자드락을 끼고 내려갔다.

아주 어둡기전에 련대에 들러 리충근소대장이 도착하면 곧 출판소에 보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둘 작정이었다.

눈보라를 맞받아 한참 내려가니 도리장풍(천막)들이 나타났다. 그 장풍들의 꼭대기로는 푸른 연기가 솟아올라 바람에 땡기처럼 훑날리고있었다.

불어오는 바람결에는 생나무 타는 연기냄새와 통강냉이 삶는 들크레한 냄새가 섞이여 아늑한 밀영생활에로 유혹하는듯하였다. 여기다 밀영을 짓고 한 보름 휴식이라도 하게 되었으면! 지나가는 대원에게 물어보니 리충근이 속한 중대는 개울건너에 있다고 하였다. 언뜻 건너다보니 한쪽 지붕이 바람을 안은 듯처럼 우묵해진채 금시 얼음판우로 미끄러져갈듯 눈보라에 시달리고있는 천막이 있었다. 얼음구멍에서 얼굴이 가름한 녀대원이 법랑소랭이에 물을 떠가지고 황급히 천막쪽으로 간다. 아직은 낮이 서먹서먹한 그에게 학봉이 다가가며 물었다.

《저… 리충근동무네 소대가 돌아왔는지 모르겠소?》

빨강게 언손으로 물소랭이를 들고 치며보는 녀대원의 시름스런 눈에는 당황한 빛이 그림자처럼 스쳐갔다. 그는 파르르 떨리는 눈길을 떨구며 간신히 대답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 좀 있다가… 아 니 후날 만나시면 안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소?》

정학봉은 가슴에 찬물이 닿는것 같은 느낌이였다. 언젠가 병원에서 얼핏 본듯한 그 간호대원의 눈에는 물기가 펴 돌았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부상을 당했소? 중상이요?》

드디어 간호대원의 목소리에서는 울음기가 섞여나왔다.

《중상은 아니지만 출혈이 심한데다 온몸이 얼 대로 얼어서…》

《충근이가 쓰러지다니!》

정학봉은 천막안으로 얼어질듯 달려들어갔다.

우등불가에 놓인 들것에는 눈을 감은 리충근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정학봉은 다짜고짜 부르짖었다.

《충근이! … 정신차리라구… 날 모르겠소? 학봉이요… 충근이! 아, 이 사람이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학봉은 날카로운 쇠붙이에 가슴을 쿵 찢리운듯 신음소리를 질렀다. 지난날의 야학선생을 혁명의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두 기뻐하며 얼싸안고 돌아가더니… 그날저녁 충근은 우등불가에서 함께 쉬면서 나이 든분이 산에 들어와 추위가 제일 고생스러울게라고 제가 입었던 털내의를 벗어주었었다. 학봉은 이 대오속에서 영영 추위를 느낄것 같지 않았다. 그가 가르쳐준것은 고작 우리 글 몇자에, 버릴수 없는 민족적량심뿐이었던만 받아안은 존경과 사랑은 실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학봉은 행복했다. 스승에게 있어서 후날 성장한 제자들로부터 변함없는 존경을 받는것보다 더 큰 기쁨과 긍지는 없을것 같았다. 그리하여 학봉의 마음속에는 충근에 대한 애정이 새삼스레 가득차게 되었고 그가 남보다 더 잘 싸우기를 은근히 바랐었다. 그러던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부상자의 머리맡에 지켜앉은 중대장은 환자의 맥박을 고누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부가 이리로 들어오던 날 충근동무는 자진해서 소대와 함께 꼬리에 달린 적을 유인해 갔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선 이삼십리 끌고가다가 떼팡개치고 얼른 돌아오라고 당부하시였는데… 이 사람은 아마 안심치 않았던지 먼길을 돌아왔구만요. 첫탕에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냥 전투를 지휘하며 반나절을 탄 방향으로 갔다지 않습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모두 말없이 눈굽을 찍어냈다. 군의와 간호대원은 불가에서 열심히 치료준비를 서두르건만 학봉은 충근이 혹시 위험하지나 않을까 싶어 가슴이 바질바질 타들어오는듯했다.

중대장은 정학봉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 사람이 아까 도착하자마자 신문이 어떻게 하며 중얼거리길래 아마 원고 쓰라는 분공을 받은것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안심시키고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짬만 생기면 쓰자고 했던지 주머니안에 종이 몇장이 있는데 그건 아직... 백지더군요.》

정학봉은 가슴이 뭉클하여 흥분김에 대답했다.

《언제 글 쓸 경황이 다 있었겠소... 그 걱정은 아예 말고 치료나 잘해주오. 내가 약은 주지 못해도 원고야 대신 써주지 못하겠소.》

《고맙습니다.》

《넌려 마오. 충근인 내 제자요!》

정학봉은 자랑스레 강조하였다.

잠시후 그자리에서 수술이 진행되었다. 학봉은 잠시후 천막에서 나왔다. 숙영지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덮여있었다. 눈보라만이 굶주린 맹수처럼 우우 소리치며 어둠속을 들쭉고있었다.

출판소로 돌아온 학봉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밤새도록 글을 썼다.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싸운 충근이를 대신하여 쓴다고 생각하니 피곤도 범접을 못했다. 리충근이 말았던 원고제목은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반드시 승리한다.》였다. 바로 그것을 당당하게 론증하기 위하여 학봉은 온갖 지식과 열정을 다 기울여 원고를 써나갔다.

바야흐로 1940년대를 맞이하여 시시각각으로 격변하는 주변정세의 어수선했던 파도, 현대화된 각종 군사장비들을 다 끌어오고 선전공세까지 들이대며 우리 혁명군을 《완전소탕》하겠다고 미쳐날뛰는 험악한 적정, 놈들의 악랄한 봉쇄책동으로 하여 식량도 소금도 천도 신발도 얻기 어렵고 날마다 눈보라와 진대발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말할수 없이 어려운 형편... 그러나 그속에서도 우리 혁명은 굴함없이 전진하고 싸움마다에서 강적을 무찌르며 나간다. 이 무비의 강유력한 힘은 과연 어디서 솟구쳐오르는것인가. 우리 위업의 정당성,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 백절불굴의 의지, 인민대중의 열렬한 지지성원 그리고 국제혁명력량과의 굳은 련대성... 정학봉은 예리하고도 론리정연한 필치로써 강도일체의 취약성을 능란하게 발가냈고 우리 승리의 수많은 요인들을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등잔의 석유도 거의 말라들고 동창이 휘뽐해졌다. 서둘러 원고를 검토해보던 그는 웬일인지 허수한 감을 느꼈다. 거듭 음미해보니 글귀는 모두 거칠매없는데

따끔히 찌르는 맛이 없고 그저 장황하기만 하여 마치 롱가재미 알빠진 느낌이였다. 왜 이럴까? 이리저리 궁리해보아도 까닭을 알수가 없다. 이제 다시 쓰자면 시간이 없다. 그런대로 차후 첨삭을 가하는수밖에... 마음은 그저 조급하기만 했다. 밤새 환자가 어떻게 되었을가... 뒤숭숭해 앉아있던 그는 원고를 안주머니에 쑤서넣고 밖으로 나갔다. 사위는 아직 어슴푸레한데 눈보라는 멎었었다. 그리도 극성스레 날뛰던 눈보라가 언제 불어쳤던가싶게 숙영지의 상공에는 아늑한 마을의 정경을 련상시키는 새벽연기가 희푸름한 안개처럼 떠있었다.

정학봉은 또다시 개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저기 리충근이 들었던 천막의 띄창으로는 사위여가는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있었다. 필경 그 등잔불도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 이 어수선했던 밤을 지새우기에 지쳐버린듯 색이 바래였는가.

《셋!》

천막 가까이 다가갔을 때 뜻밖에도 아름답리 잣나무뒤에서 총맨 대원이 불쑥 나서며 그를 멈춰세웠다.

《?!》

찬찬히 보니 사령부의 경위대원이다. 학봉은 잠시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서있었다. 마침 얼음구멍에서 세수를 하고 올라오던 경위중대장이 그를 알아보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어떻게 된 일이요? 난 충근동무가 근심되어 왔는데...》

《아, 모르시겠군요.》

샘물자랑을 하던 경위중대장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간밤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밤중에 리충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눈보라를 헤치시며 이 천막으로 찾아오시였다. 그때는 충근이 수혈도 받고 열었던 몸도 녹아 정신을 차렸다가 깊이 잠든 때였다.

충근의 맥을 짚어보시고 상처자리도 조심히 살펴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눈바람에 펄럭거리는 천막지붕을 이윽도록 올려다보시였다. 그러시다가 경위중대장을 비롯한 지휘원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드신 사냥군막이 아주 뜨뜻하고 좋은 샘물도 있어 병치료에 적합할것이니 충근동무를 당장 그리로 옮겨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손수 담가채를 잡으시였다.

순간 담벽처럼 둘러섰던 근엄한 얼굴들에 눈물

이 쭈루룩 흘러내렸다.

아, 장군님! ... 정확봉은 이글거리는 불덩이를 한가슴 안은듯하였다. 부상당한 한 전사를 위하여 자신께서 드셨던 사냥군막마저 내주시고 눈보라 사나운 밤중에 한지로 나오셨던 우리 장군님... 학봉은 아직도 삼라만상이 추위에 얼어붙은 이 새벽에 온몸이 열풍에 휩싸인것만 같아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적들에게 체포되어 가던 자기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사령부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백주에 대도로에서 불의습격을 단행하게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선 모든 전사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시며 눈바람 찬이슬을 다 헤쳐가시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간밤에도 충근이를 따뜻한 구들에 눕혀주시고 저 펄럭거리는 천막안에 앉으시여 우등불에 언손을 녹이시며 새 작전을 구상하시였으리라. 그 천막을 우러러보는 정확봉의 가슴에는 뜨거운 흙모의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리하여 누리를 밝혀줄 새벽빛은 숲너머동녘에서 밝아오는것이 아니라 꺼질줄 모르는 사령부의 저 불빛에서 찬연히 비쳐오는가싶었다.

개울건너 산기슭에서는 통나무를 끌어내리는 대원들의 거울친 모습들이 어스름속에 조용히 역세계 움직이고있었다. 그들은 다만 하루라도 장군님 모실 새집을 지으려고 밤중에 남몰래 뛰쳐나온것이다. 그들의 앞장에는 충근이네 중대장이 도끼를 차고 일하고있었다.

정확봉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충근이 누워있을 그 귀틀집을 향해 달음쳐갔다. 경위중대장이 눈보라가 잘무렵에 또다시 비질을 한듯 우묵해진 눈길에는 비자루자국이 생생히 찍혀있었다.

바로 그 샘터에서는 여전히 허연 김이 안개발처럼 피어오르고있었다. 명주필같이 부드럽고 포근하게 펼쳐지며 두리를 애무하고 덮어주는 그 김발이 학봉에게는 마치 충근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는 장군님의 다정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이 훌륭한 샘물, 그 따뜻한 구들 그것이 결코 호화로운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깃든 한량없는 사랑을 충근은 지금 알고나있을가...

샘터에 나와 아침쌀을 씻던 간호대원이 학봉을 알아보고 얼른 일어섰다. 그바람에 머리우에 실실이 드리운 버드나무가지에 앉았던 고운 메새 한쌍이 포르릉 날아났다. 이어 흰 떡가루같은 성에가루가 확 퍼져 방금 비치기 시작한 노을빛에

꽃보라인양 령롱하게 반짝이며 너대원의 머리와 어깨우에 내려앉는다. 충근에게 피를 나누어준 그 너대원의 얼굴에도 아침노을이 비껴 진달래꽃처럼 물들었다. 그는 방실방실 웃으며 학봉에게 먼저 인사했다. 학봉은 다급히 물었다.

《환자가 좀 어떻소?》

《안심하세요. 벌써 식사를 한축 했답니다.》

《그렇소?》

너대원은 학봉이 찾아다니는 까닭을 제사 다 안다는듯 묻지도 않는 말까지 자랑스레 했다.

《아까 충근소대장동무가 말하기를 오늘까지 신문원고를 써내야 한다가에... 그가 누워서 부르는 대로 제가 받아썼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보아주세요. 그리구 참, 소대장동무의 만년필이 여기 있어요.》

너대원은 자기가 받아쓰다가 그체로 가슴주머니에 꽂았던 만년필을 학봉에게 주었다. 그것을 무심히 받아쥐며 물었다.

《그 동무가 글까지 썼단말이요?》

《저두 충근소대장동무가 그렇게 훌륭한 글을 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받아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렇소? 충근동무는 워낙 글쓰는 일엔 소질두 없구 공부두 많이 못한 동무였는데...》

그러자 너대원은 끝없는 감격과 확신이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만년필을 가지고있는 충근동지가 어떻게 공부를 안했겠습니까. 그건 장군님께서 입대초기 충근동지의 학습을 친히 지도해주시다가 자신께서 쓰시던 만년필을 그에게 선물하신거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군님께서 주신 만년필이란말이요?》

정확봉은 지금까지 무심히 쥐고있던 만년필이 금시 천근무게로 변한듯 두손으로 받들어쥐고 정중해진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았다. 깨끗한 금촉이 눈부시게 번쩍한다. 그 빛은 한순간에 너무도 많은 사연을 속삭여주며 학봉의 가슴속에 해살처럼 비쳐들었다. 얼마나 많은 가슴뜨거운 사랑의 사연이 이 금촉만년필에 깃들어있는것이라! 그것은 바로 천대와 굴욕의 나락에서 헤매던 한 인간을 품에 안아 보람찬 인생의 빛을 뿌리게 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태양처럼 은혜로운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내 왜 진작 이것을 몰랐

던가!

정학봉은 울렁이는 가슴에 만년필을 안고 귀틀 집으로 들어갔다. 순간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바로 그자리에 그 담요를 그대로 깔고 충근이 누워있는것을 보았다. 후끈한 방안에는 잉결불을 담아놓은 흙두구리우에 놓인 주전자에서 뿜어나온 초약 달이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 찼다. 주전자도 장군님께서 쓰시던 그대로였다.

《충근이!》

정학봉이 구들에 걸터앉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불렀다. 리충근은 옷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누우며 학봉의 손목을 꼭 잡았다. 간밤에는 얼음갈던 그의 손이 뜨끈뜨끈하고 꺼렇게 죽어가던 그 얼굴에는 혈기가 돌고있다. 충근은 한참이나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터갈린 입을 뻗었다.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눈보라 사나운 한지로 나가시게 하였으니…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선생님,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충근은 목이 꺾 메여 뒤말을 잇지 못하였다. 샘솟듯하는 눈물이 귀바퀴에 고였다가 베개로 넘쳐내린다. 정학봉도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고나서 말했다.

《충근이, 진정하구 치료를 잘 받으라구. 눈보라는 멎었어. 아마도 그게 마지막일게야. 립춘도 지난지 오랫동안… 아, 후날 얘기를 더 나누자구.》

하지만 리충근은 학봉의 말속에서 울리는 의미심장한 뜻을 다 깨달은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머리말에 놓았던 원고를 보여주었다.

《늦어져서 안됐습니다. 이런 글두 신문에 낼수 있겠는지… 선생님이 보시구 부족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원고를 받아쥐는 학봉의 손은 열렸다. 충근은 신문원고 쓰는 일을 에누리할수 없는 혁명임무로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 임무를 망각할수 없었다. 혁명이란 이렇게 하는것이다. 충근이 학봉에게 혁명하는 사람의 일본새를 말없이 가르쳐주는것만 같았다. 정학봉은 감동의 눈물이 핑그르 고여와서 글자들이 잘 안보였다. 그는 잠시 천정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가 눈굽을 닦아내고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후방도 없고 부모처자, 살

뜰한 집도 없고 먹을것 입을것도 없다. 우리가 어려워한다고 남들이 그 무엇을 거저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맨주먹으로 원쑤를 맞받아 일떠섰던

우리들, 오늘도 의연히 빙천설지에 눈보라만 올부짚는데 그 모진 광풍을 뚫고가야 할 우리의 앞길에는 또 얼마나 깊은 강, 끝없는 진펄이 있을손가!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한가지만은 있으니 그것은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굳은 단결이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전사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끝없이 사랑해주시고 우리들은 장군님만을 태양처럼 믿고 따른다. 이 사랑과 충성이 한덩어리로 엉키여 굳은 단결을 이루었다. 것처럼 굳세고 값높고 아름답고 변함없는 우리의 단결! 이 단결이 바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쳐부시는 우리 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이요 필승의 요인이다. 이 세상 그 어떤 힘이 우리의 이 강철같은 단결을 깨뜨릴수 있다더냐, 그렇다. 이 단결이 있어 우리는 승리한다. 장군님을 모시여 영원히 승리자로 될것이다!…》

아, 이것이다! 밤새도록 펜을 쥐고 모대기며 찾은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정학봉은 자기 심장이 쿵쿵 높뛰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이였다. 지난날에는 리충근이 나의 제자였지만 이 위대한 진리를 깨우쳐준 오늘에는 그가 고마운 선생님이 되였구나, 그렇다. 이 진리를 모르는 선생님보다 그것을 깨달은 제자로 되는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드디어 정학봉은 눈보라치던 지난밤이 마치 이처럼 고귀한 투쟁의 진리를 찾아 달음쳐온 자기 인생의 수십년 로정과도 같이 느껴졌다. 그리하여 그의 가슴속에도 금빛만년필처럼 빛을 뿌리는 보석같은 진리가 깊이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신문은 오늘 나날것이며 대원들의 심장에는 더욱 굳센 필승의 신념이 안겨질것이다.

《충근이, 수고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렇게 부르짖은 정학봉은 벌떡 일어서더니 안주머니에 넣고왔던 자기의 원고뭉치를 불붙는 아궁지에 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문을 열자 눈부시게 비껴드는 첫 해살을 온몸에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어느덧 숙영지에는 봄빛이 뛰노는듯하였다.…

# 나는 사랑한다 외 1 편

김석주

못사람들속에서도  
쉬이 가려들던  
어머니의 그 정다운 목소리를  
내 사랑한다

늘 손에서 놓지 않고 물어다니던  
그 수수한 옷자락을 사랑한다  
남의 비단옷보다  
우뢰우는 날 밤이면 감싸안아주던  
그 수수한 치마자락을 사랑한다

불을 쓰다듬어줄적에  
칭얼거리면 등을 긁어줄적에  
그 거칠고 마디진 손이  
어쩌면 나에겐 그리도 부드럽고 따스했던가

내 어머니 비록 남들보다  
두루 못한점도 없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내 그것을 모르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어머니 세상 제일이었듯이

조국이며, 어머니의 그 모든것을 사랑하듯이  
나에겐 그대가 제일이구나  
남의 광활한 대륙보다도 귀중하구나  
부드러운 한줌의 흙조차  
돌부리에 걸채이던 그 한줄기 오솔길조차

한 아들에게  
두 어머니가 있을수 있으라  
한 아들에게  
두 조국도 있을수 없네

어머니가 있어 아들이 있고  
내 조국이 있어  
존엄 높은 이 아들의 삶이 있네  
우리 수령님 한평생 가꾸어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이며, 내 사랑하는 어머니여

## 인간의 값

막돌보다 못한 인생이라 했다  
돌은 먹지 않아도 인간은 먹어야 했으니  
네발로 탄굴을 기여다닐 때  
감독놈의 채찍에 등이 아물 날이 없었다  
-네놈은 동발목 한대값도 안돼...  
인간의 값이 썩은 동발 한대 값도 못되었다

소에겐 잠자리가 있었으나  
머슴에겐 잠자리가 없었다  
여물속의 콩을 몇알 주어먹은 날  
지주놈의 개화장에 피를 토했다  
-내간놈 열을 쥐도 송아지 한짝 못사...  
인간의 값이 송아지 한마리값도 안되었다

짐승은 쉬어가며 일을 시켜도  
짜낼수 있는것 다 짜내고  
깎을수 있는것 다 깎아내고  
않아 쓰러졌을 때 주인놈은 말했다  
-송장 치르기전에 어서 내다버리게...  
인간의 값이 신다버린 헌신짝보다 못했다

오늘에 사는 인간의 참된 값을 알라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신세 달리는 되지 않았으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우리 수령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에 받들려  
그 값이 인간만세의 상상봉에 빛나는것임을

## 겨울에도 샘물은 얼지 않는다

전흥식

아직은 러멍이 눈을 뜨지 못한 새벽이다. 밀림은 찬바람에 아우성치고 캄캄한 어둠속에서는 눈가루가 사납게 날뛰고있었다. 그래도 우등불만은 거침없이 활활 타올랐다.

광막한 초원의 길 잃은 나그네를 손짓해부르는 듯한 우등불가에는 두사람이 앉아있었다. 방금 유격구로 들어보낼 원호물자대렬을 이끌고 온 강정국이와 차은심이였다. 함께 왔던 사람들을 먼저 되돌려보낸 그들은 이렇게 상촌유격구의 망원초소가 뻗히 쳐다보이는 산기슭에다 우등불을 지피며 신호를 보내는중이였다. 이제 그들마저 조용히 사라지면 유격대원들이 나타나 불가에 무저놓은 원호물자들을 가져가게 될것이다. 어디서 누가 가져다놓았는지도 모르고...

(오늘두 그냥 돌아갈 모양이구나!)

은심은 초신감발을 부지런히 돌려감는 강정국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벌써 몇번이나 원호물자를 훑어지고 60리 밤길을 허위단심 걸어왔지만 배변 이렇게 상촌사람들의 빛도 못보고 돌아가야 하는 일이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정해진 규률이 그렇다니 할말은 없으나 원호물자 하나하나에 고여온 알심과 정성이 웬일인지 여기 와서는 무시당해버리는것 같아서였다.

우등불은 점점 기세를 올리며 타번지였다. 어둠을 태우는 그 불길우로는 부나비떼마냥 눈송이들이 날아들어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래도 쉽없이 날아드는 눈송이, 눈송이...

《무슨 생각을 하오?》

《네?》

강정국의 목소리에 무심히 눈길을 쳐들던 은심은 화끈해지는 얼굴을 황황히 수그렸다. 정열에 빛나는 강정국의 크고 검은 두눈이 오래도록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는것을 알아차린때문이다. 그러지않아도 강정국의 앞에서는 늘 까닭없이 가슴이 울렁거려지는 은심이였다.

《전, 아무 생각두...》

은심은 숨저고리앞으로 늘어뜨린 실박한 머리를 공연히 만지작거리였다.

《허허, 내가 알아맞춰볼가?》

강정국은 부지깽이로 불가에 흘러나온 나무토막들을 밀어넣으며 빙그레 웃었다.

《유격구를 생각하겠지, 상촌마을의 아담한 학교,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그 애들을 대견스레 바라보는 너선생의 다감한 미소... 어땠소?》

《아이, 어찌문!...》

부지중 은심의 작은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강정국이 너무도 자기의 속마음을 환히 들어

다보는것이 놀라왔다. 사실 그랬다. 은심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상촌을 그려보았었다. 사는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희망도 눈부시던 상촌의 옛생활이였다. 어쩔수 없이 버리고 온 그 생활에 대한 갈망은 한순간도 은심이한테서 떠나지 않고있었다.

《조금만 더 참기요.》

강정국은 여전히 부지깽이로 우등불을 뒤적이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인차 가게 될거요. 내 그땐 은심일 어깨우에 등등 태우구 가겠소.》

《그런 룡담을 다...》

《룡담이라니? 저걸 보요.》

강정국은 한열의 원호물자들을 가리켰다.

《오늘밤의것두 동무의 몫이 더 많지 않소?》

《그야 뭐, 다 시켜주신대루 한거지요.》

《아니요. 아무리 시켜줘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는거요. 여하튼 은심이와 같은 보배덩이를 곁에 두었으니 허, 이 강정국이두 그만하면 사람복을 타고난셈이거든!》

《아이그 참!...》

소심은 또다시 달아오른 얼굴을 옆으로 돌리였다. 그것이 어찌 인사치레로만 한 말이라. 마음속에 귀중해진 사람이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은심은 가슴속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드는듯하였다.

《저, 오늘은 꼭 무슨 소식이 올것만 같아요.》

《그건 왜?...》

《전, 요전번 설명절 원호물자속에 편지를 넣어 보냈어요. 그 애들이 얼마나 보고싶던지...》

그 말에 강정국의 얼굴이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만 골몰해버린 은심은 우등불에다 마냥 달가운 미소를 선물하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그 애들한테 죄다 썼지요. 제가 피눈물을 삼키면서 삼촌에서 쫓겨났다가 정국동질 만난 일이라 또 함박골의 까치둥지를 비라보며 상촌으루 가게 될...》

《자, 인젠 그만 가지요.》

강정국은 컴컴한 낮색을 지우지 않은채 그의 말허리를 잘라버리며 벌떡 일어섰다. 두릿한 얼굴에서 늘 유순하게 떠돌던 웃음은 가뭇 사라지고 대신 검은 두눈이 엄엄하게 번쩍거렸다.

《우린 너무 지체했소.》

강정국은 부지깽이를 불속에 던지고는 빈 망태를 거머쥐더니 고개를 수긏하고 어둠속으로 성큼 성큼 걸어갔다.

은심은 얼른 일어날념을 못하였다. 너무도 갑작스런 강정국의 돌변에 어리둥절해졌다.

강정국의 모습은 어둠속에 녹아버렸다.

은심은 허전해지는 마음을 달랠길이 없어하며 일부러 멀찍이 사이를 두고 강정국을 따라갔다.

바람질은 차츰 수그러들고 날도 희붐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때문일까?)

은심은 강정국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두 달남짓이 적구에서 함께 공작해오지만 한번도 저런 일이 없었다. 언제나 너그러운 아량으로 은심을 대해주고 설사 무슨 일을 저지른 경우에도 웃으면서 차근차근 잘못을 일깨워주던 강정국이였다. 비밀이 루설될가봐 그럴수는 없었다. 강정국은 자기들 두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 유격구의 아이들까지 다 알고있노라고 장담까지 했었다. 그렇다면 어찌된 일일까?

은심은 느닷없이 잇달아 일어나는 의문의 유혹을 물리칠수 없었다. 강정국이 어찌된 일인지 유격구사람들과는 될수록 접촉을 피하는것 같았다.

매번 원호물자를 넘겨줄 때에는 급박한 정황이 아닌데도 극도로 긴장하여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였다. 이런 때엔 유격구사람들을 만나볼 의향을 비치기만 해도 공연히 흥분을 앞세우며 말머리를 돌려버렸다. 더구나 강정국의 얼굴에서 이따금씩 얼핏일핏 떠오르는 고뇌의 빛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가.

은심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조갈이든 사람처럼 입술을 감치며 안타깝게 모대졌다. 불원한 의혹과 불안의 검은 그림자가 은심의 정결한 심장을 덮어버리려고 사납게 육박해왔다. 하지만 강정국이라는 강의한 사람의 걸음걸음에 치욕의 검은 그림자로 한치라도 더럽혀질번한 생각조차 머금을수 없는 그런 은심이 자기가 아닌가. 강정국이, 그는 자기와 기구하게 운명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가.

문득 소름끼치는 공포가 온몸을 휩쓸던 나날들이며 위태로운 순간에 감각하였던 그 억센 숨결의 체취, 지금까지 걸어온 나날들의 추억이 실재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앞에는 절벽, 절벽밑에는 강물, 바위굽을 안고 넘실거리는 검은 강물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차갑게 번뜩였다.

빛이 꺼진 눈길을 하염없이 강물우에 던지고있던 은심은 메마르고 암담한 소리로 조용히 말하였다.

《오빠, 욕하지 말아요. 지금 내겐 오빠의 억울한 루명을 벗겨낼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억울한 루명을...》

목이 꺾 막힌 그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못하였다. 유격대의 소대장이였던 오빠가 유격구에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있던 나쁜놈들과 맞서 싸우다가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그 불행에 뒤따라 당장 유격구를 떠나라는 불같은 성화까지 겹치자 떠나는 이 순간 낯선 이국땅에 눈을 감지 못하고 땅속에 묻힌 오빠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은심이었다.

《오빠, 혁명을 하자구 같이 왔다가 이렇게 떠나니. 아, 이 원한을...》

목소리는 낮아도 비통한 절규를 온 강산에 날린 그는 강심을 먹고 뱀 돌아서서 기약할수 없는 길을 떠났다. 마을을 벗어나서 퍼그나 멀리 반달 읍처 달리던 은심은 절벽을 끼고도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억세게 그의 팔을 틀어잡았다.

《이게 무슨짓이요?》

은심은 눈을 멍하니 떴다.

팔을 틀어잡은 사람은 머리예다 봉대를 감은 상촌유격대의 키쫄이 후릿한 강정국소대장이였다.

《어찌자구 이러오?》

《봐요. 이걸 놓으란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방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은심은 두눈에 불을 켜달았다.

《무슨 상관이에요? 이 팔을...》

《은심동무!》

《비켜요. 혁명하려던 내 오빠가 죄없이 억울하게 루명쓰고 죽었어요...》

분격과 원망이, 강렬한 호소가 일그러진 은심의 눈동자에 사납게 비껴쳤다.

은심은 그동안 후방병원에 입원해있던 강정국이 방금전에야 소식을 듣고 분노로 치를 떨며 달려왔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저 모든것에 억겨워진 그는 사나운 생마처럼 불잡힌 팔을 비틀어대며 불같은 항변을 늘어냈다.

《우리 오빠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없는 고아들을 내쫓는게 나쁘다구 말한것이 어떻게 <민생단>이란말이에요? 생사람을 해치구두뭇, <감방>에서 도망치는걸 쫓다구?...》

가까스로 몸을 빼낸 그는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강정국을 쏘아보았다.

그에게로 향해지는 극도로 되는 분노의 도발은 맹목적인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은심이였지만 그 또한 달리 행동할수 없는 본심이기도 하였다.

《저주를 받을거예요. 혁명 위해 나선 사람을 죽이구 내쫓구... 그놈들에게 저주를...》

은심은 잡고있는 강정국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뱀 돌아서서 내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눈앞에서 별찌가 부서지는듯하더니 그는 마가울의 락엽이 어지럽게 널린 풀덤불속에 볼모양없이 나동그라졌다.

《바보같은것!》

강정국이 두손을 허리에 얹고 노기둥둥해서 소리쳤다.

《그만한 일두 건디지 못하는 주제에 혁명을 할 생각은 어떻게 했어? 부끄럽지두 않아?》

은심은 쓰리진 몸을 일으켜세울 생각도 못하고 얼얼해진 뺨에 손을 붙인채 강정국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끝까지 싸워야지! 그렇게 모두 억울하구 어렵다구 달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어!》

《싸운다구요?》

은심은 어이없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남의 말을 하기야 쉽겠지요. 장군님께서도 계시지 않는 이 상촌에서 그래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싸운단말이에요...》

종잡기 어려운 말마디를 번지던 은심은 불시에 말라까드라진 풀덤불을 움켜잡으며 몸부림쳐 울기 시작했다. 강정국의 꾸짖음속에서 자기를 위해주는 진정을 헤아려보자 치밀어오르는 설음을 건잡아낼수 없었다. 그것은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고통과 불행과 절망의 분출이었다.

사실 은심이가 당한 재난은 그대로 상촌의 재난이기도 하였다. 소왕청과는 멀리 떨어진 번두리에 갓 생겨난 이 유격구는 요즘 몇몇 안되는 파쟁군들의 장난질로 진통을 겪고있었다. 내렬안에 기여들어 숨죽이고있던 그자들은 이 가을 장군님께서 멀리 복만원정을 떠나시자 상촌을 제놈들의 세상으로 만들자고 온갖 전횡을 다 부리었으며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해치기 시작했다. 은심의 오빠도 그 희생물의 한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자들이 유격구의 요직을 차지한데다 자기들의 비행을 혁명가의 결단성으로 가리워놓아서 은심은 물론 강정국처럼 준비된 사람들도 감히 어찌내지 못하고있었다.

《자, 이젠 그만하오.》

은심이가 기진해지자 강정국이 손잡아일으켜주었다. 그리고는 앓는 사람을 부축하듯 산언덕으로 조심조심 이끌어내려갔다. 몸보다도 마음이 더 지쳐버린 은심은 아무런 지향도 못하고 순순히 따라 움직였다. 왜 그렇게 되는지 놀라운 생각도 없었다.

그들은 산기슭의 자그마한 샘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마가울의 황량해진 풍경에는 실로 아까우리만치 맑고 정가로왔다.

《세수를 하오.》

강정국은 은심의 손에다 머리빗까지 쥐여주고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였다.

은심은 시답지 않은 눈길을 샘물에 던지였다. 거울같은 수면우에서는 낮모를 녀자가 마주올려다보고있었다. 풀어헤쳐진 옷고름, 흐트러진 머리칼, 중병을 앓고난것처럼 해쓷한 얼굴... 그 참혹한 모습이 다름아닌 자기라는것을 알아차린 그는 소스라쳐 놀라며 황급히 샘물을 휘저어놓았다.

그 다음 서둘러 수채처럼 흐르는 샘물을 받아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었다. 몸을 거두고나니 마음이 좀 진정되는듯하였다.

얼마후 강정국이 다시 오더니 은심의 곁에 있는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정신이 좀 드오?》

《...》

은심은 저도 모르게 뺨으로 손을 가져갔다. 아팠던지 안아팠던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이요. 녀성에게 손을 대는것과 같은 조폭한 행동은... 그러나 어찌할수 없었소.》

그 말에 은심이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었다.

바람결에 수풀이 와수수 뒤설레었다.

샘물우에는 옅은 구름이 떠돌았다.

《당분간은 상촌을 떠나는게 좋을것 같소.》

강정국이 한참만에 조용히 말하였다.

《저 산밭을 타구 60리쯤가면 함박골이란 화전마을이 있소, 까치둥지를 엮은 황철나무결에 있는 집에서 한씨라는 어머니 혼자 사는데 내가 보냈다면 반가이 맞아줄거요. 거기서 장군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오.》

《네? 장군님께서...》

《그렇소. 우리야 장군님밖에 더 믿을데가 있소? 이제 장군님께서 돌아오면 상촌의 일두 다 바로 잡힐거요, 그게 언제쯤이겠는지...》

강정국의 목소리도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어쨌든 우리 그날까지 모든걸 참구 기다리거요. 내 말을 알만하오?》

《네.》

《다시는 탄마음을 먹지 말구, 참...》

문득 강정국은 군복주머니에서 잣을 한줌 꺼내더니 은심의 손바닥에다 담아주었다.

《이거라두 까면서 가오, 꼭 가야 하오.》

《네, 고맙...》

잣을 담은 두손을 앞가슴에 모두어안은 은심은 또다시 솟구치는 눈물때문에 진정어린 눈빛 한번 보여주지 못한채 상촌을 떠났다.

함박골의 한씨는 말그대로 은심을 극진히 맞아들였다.

《그 사람이 보냈다니 남갈질 않네.》

이 궁벽한 심심산골에서 인정에 주려온 한씨는 마치 오래동안 헤여졌던 딸자식을 만나기라도한듯이 은심의 손을 부여잡고 놓지 못하였다.

《인젠 딸처럼 내내 같이 살자구. 내내 같이...》

《고마와요. 어머니.》

한씨의 진정을 읽은 은심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며 자기를 여기로 보내준 강정국을 새삼스레 고맙게 여기었다.

알고보니 한씨는 일찌기 독립군이였던 남편을 잃은데다 이해전에 또 하나뿐인 아들마저 왜놈들한테 잘못되었다고 했다. 아들은 조직의 비밀을



지켜 스스로 폭탄을 안고 놈들의 무리속으로 뛰어들었다는것이다. 그때의 공작원이었던 강정국의 보살핌으로 함박골에 옮겨앉은뒤 왜놈들이 망하는 꼴을 보자고 기를 쓰며 살아간다는 한씨였다.

은심은 인차 한씨에게 정을 붙일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강정국의 소식을 눈이 까매서 기다렸다. 그는 애오라지 억울하게 희생당한 오빠의 생각과 함께 상촌마을에서 벌어지고있는 험악한 사태 앞에서 차나깨나 늘 장군님 오시기만을 기원하였다.

그런데 달포도 못되어 강정국이 인부차림으로 불쑥 나타났다.

《어머니!》

그는 오래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처럼 한씨를 붙안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어머니, 따님이 하나 생겼는데 좋지요?》

《이사람!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한씨도 연신 웃고름으로 눈굽을 적으며 말하였다.

《내 집 문턱을 넘어선 아가야 머느리감이겠지.》

《허허, 어머니두 그런 강짜가 어디 있어요? 참, 은심동무!》

강정국은 불그레해진 얼굴로 외면한채 한옆에 움직일줄 모르고 서있는 은심을 보고 입을 열었다.

《내 기쁜 소식을 가져왔소. 동문 다시 상촌으로 가게 됐소.》

《네에?!... 그게 정말...》

《허허, 정말이요. 하지만 얼마간은 여기서 날 도와줘야겠소. 유격구원호공작말이요. 어땡소?》

《네, 하겠어요! 얼마든지!...》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야말로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그것은 두달나마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가슴속에 생생한 그대로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그리걸래 은심은 비록 오빠를 잃은 아픔은 가져내지 못했을망정 어려운 지하투쟁의 나날에도 늘 그를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곳곳이 싸워왔다. 그런 은심이였기에 사람들을 향해 밝고도 정다운 웃음을 아낌없이 뿌려줄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투쟁이란 곧 생의 환희였고 보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덮인 수림속의 새벽길을 걷노라니 것처럼 언덕같이 믿어온 강정국이한테도 자기를 들여놓지 않는 비밀의 울바자가 따로 있다면 분명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옥죄어드는것 이였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담...)

또 한번 한숨을 짓던 은심은 흠칫 떴어섰다. 멀리 앞서 걸어가던 강정국이 길을 막아 서있었다.

《힘드오?》

《아니요.》

침묵이 흘렀다. 무어라 이름못할 안타까움과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좀 쉬기요.》

강정국이라도 이 침묵이 싫었던지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길게 부풀어오른 눈무지로 걸어갔다. 눈에 파묻힌 진대나무였다.

눈을 쳐내니 진대나무우에서는 파르무레한 이끼가 살아올랐다.

강정국은 그우에다 목수건을 퍼놓고 설자리를 마련했다.

두사람은 진대나무우에 가지런히 앉았다.

수림속은 아주 밝아졌다. 설핏해지던 눈발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눈의 요람속에 누운 수림이란 언제나 신비의 세계를 펼쳐놓는 법이다. 하얗게 눈살이 오른 검푸른 송림숲은 눈부시게 화려하다. 거기에는 나무가 흰눈을 뒤집어써서 마치도 엄청나게 큰 흰 버섯을 방불케 하는것도 있고 흰 강아지, 흰 토끼, 흰 곰들이 부르면 달려올듯 생동하게 그 모양을 뽐내고있었다. 그사이로 정교한 사슬무늬처럼 찍혀진 짐승의 발자국들조차 한결 운치를 돋구는듯하였다.

그중에도 은심의 눈길을 끄는것은 몇발자국앞의 개버들가지들이였다. 그 무수한 가지들은 마치 순수한 백옥으로 뽑아낸 신기한 장식품같았다.

그결에는 더운 김을 문문 피워올리는 샘물이 있었다. 눈의 세례를 받아안은 겨울의 원시림속 황홀경중에서도 극치를 이루는 《백옥의 장식품》은 샘물이 피워올리는 입김의 조화였다.

《허, 이 눈천지에서 샘물을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것 같구만.》

강정국은 신묘스런 버들가지보다 샘물에 더 관심을 두고있었다.

《은심이의 옷은 얼굴을 볼 때처럼 기운두 나구.》

은심은 모래알을 바글바글 굴리는 샘물을 보노라니 문득 상촌의 샘물이 생각났다. 그리고 이 겨울에도 얼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속에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있는것 같기도 했다. 허나 그는 샘물이 안고있는 뜻보다는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의문을 빨리 헤쳐보고싶은 생각뿐이었다.

《저, 한가지 물어두 좋아요?》

《무언데?》

《저한테 무언지 숨기구 계시지요?》

《...》

《전 그래두 기쁨이나 슬픔을 다같이 나누시는 줄만 알았군요.》

강정국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수림속에서 노루 한마리가 나타났다. 노루는 이쪽으로 조심스레 나오다가 멈칫 서더니 어떤 불안을 예감한듯 갑자기 방향을 돌려 숲속으로 경충경충 내뺐었다.

수림속에는 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그건 사실이요.》  
 강정국이 마침내 말을 뗐다.  
 《하지만 그걸 동무가 알 필요는 없소.》  
 《그러시다면 할수 없지요. 그저 서운할뿐이지.》

은심의 얼굴엔 침울한 표정이 언뜻 스쳐지나갔다.

은심의 그 모양을 눈여겨 바라보고있던 강정국은 못마땅한듯 미간을 찌프리며 내키지 않는투로 말했다.

《좋소, 그럼 말해주지. 그런데 놀라지 않을까?》

은심은 갑자기 오한을 만난 사람처럼 몸이 떨렸다.

강정국이 그의 손을 꼭 그러잡았다.

《난 상촌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네?!...》

은심은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수가...》

《그자들이 또 불집을 일구었댔소.》

강정국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은심이가 떠난후 얼마 안되어 파쟁군들은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더러운 야심을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더더욱 날치기 시작하였다. 강정국은 책상을 두드리며 그자들의 본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급해맞은 그자들은 터무니없이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민생단》으로 몰아 군중심판장까지 끌고갔다. 허나 상촌총대의 모든 대원들과 혁명군중의 항의로 총살을 면하고 대신 유격구에서 《추방》당한것이다.

은심은 기가 막혔다. 어찌하여 수많은 유격구들가운데서 유독 상촌에서만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나는가싶었다.

《그럼 빨리 장군님을 찾아가서야지 않아요?》

《나도 처음엔 그 생각뿐이었소. 그런 일을 당하구보니 장군님을 얼마나 만나뵈고싶던지...》

강정국은 멀리 복벽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상촌형편을 보니 차마 발길을 뻗수 없더구만. 먹을것두 입을것두 다 떨어졌지만 아무 대책두 없소. 배고프고 추워서 견딜수 없는 사람은 다 가라는 속심이지, 게다가 일본놈들의 <토벌>은 점점 더해지구, 그래서 원호공작을 시작한거요. 아무튼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유격구야 지켜내야지 않겠소?》

《고마와요, 죄다 말씀해주셔서... 또 저를 생각해서 사실을 숨겨오신것두...》

은심은 강정국의 손에서 조심스레 손목을 빼내었다. 그리고는 더 앉아있을수 없어 발길이 내키는대로 눈길을 헤치며 걸어갔다. 운명의 가혹한 결말을 보게 된 그는 중심점을 잃은 사람처럼 허청거렸다. 실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허무감만이 몸과 마음을 쥘그리 가져간듯했다.

한참이나 정신없이 내걸던 그는 길을 막아서는 새로운 진대나무앞에 이르러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허허, 놀란 애기사슴같은!》

말없이 뒤따라오던 강정국이 그를 이끌어 진대나무를 타고넘었다. 갈길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그는 은심의 손을 놓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은심이도 눈물이 그렇게서 마주 쳐다보았다. 그렇듯 모진 피로움을 혼자 안고서도 자기를 위해 웃어주고 살뜰히 돌봐주는 강정국을 눈물없이 는 바라볼수 없었다.

《또 눈물이군.》

강정국이 눈물을 머금고 서있는 은심을 나무람했다.

《그래두 양보는 안하겠소. 더 어려운 길루 뻔려물겠단말이요.》

《내몰아주세요. 내몰아...》

《그래야지. 동문 오늘부터 혼자서 함박골조직을 이끌어야겠소.》

《네에?!...》

은심은 깜짝 놀라 뒤걸음질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야밤에 불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두눈을 빛내며다 급히 한걸음 다가섰다.

《그럼 사령부로 떠나실 작정이예요? 알겠어요. 저 혼자서두 꼭 해내겠어요.》

《아니요. 난 물남쪽으로 가겠소. 거기두 조직을 내오구 판을 크게 벌려야지. 지금은 도무지 성차지 않아서...》

실망한 은심은 그 목소리가 아득히 먼 수림너머에서 들려오는듯하여 어둡게 눈을 내리깔았다. 이제와서 그한테는 원호공작에 대한 의욕이 나지 않았다. 강정국이나 자기는 이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 그냥 해나간단말인가.

강정국이 조용히 타일렀다.

《은심 동무! 혁명의 부름이 우리더러 상촌사람들을 잘 도와주라는건데 달리는 살수 없소. 마음을 든든히 가지구 한번 잘해보지요.》

은심은 그 간곡한 말을 감히 거절할수 없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도 무어라 모를 강한 힘이 강정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알겠어요.》

이리하여 은심은 함박골조직에서 제기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떠맡아안게 되었다.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나간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강정국이 있을 때는 무어나 척척 험하게 풀리는것 같았으나 정작 당해보니 전혀 달랐다. 조금 한되 박 구해들이고 성냥 몇갑 얻어내는 일조차 애를 발발 태우고 남모르게 눈물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나 은심은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일단 맡아놓은 일이니만치 사소한 에누리도 두고싶지 않았다.

하기는 그에게는 하나의 큰 기대가 남아있었다.

자기들의 온갖 성의를 다 바치는 일이 상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있는지, 그것부터 똑똑히 확인해보고싶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손을 바로 붙들수 없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침내 원호물자가 마련되자 그는 지체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다.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하든 우등불가에서 상촌사람들을 만나볼 잡도리였다.

하나 생활이란 실로 알곶은것이였다.

은심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적들의 대대적인 《토벌》공세로 강정국이 겨우 개척해놓은 통로가 막혀버린것이다. 상촌유격구는 원수들의 완전포위속에 갇혀버렸다.

은심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기백을 잃고 그자리에 주저앉아버릴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어려워진 정황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술한 눈길들 앞이라 나약해지거나 당황한 모양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떤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급한 대목부터 넘기고보자는 생각이 치받친 그는 강심을 먹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짐작들을 눈속에다 파묻어놓자요.》

사람들은 묵묵히 눈속에다 짐작들을 파묻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유격구가 봉쇄당한 엄혹한 현실앞에 기가 질린듯 낯빛들이 컴컴하였다.

이런 때는 웃음을 주고 힘을 주는 말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어야 했다. 하나 자신이 먼저 암담한 생각에만 사로잡혔던 은심은 함박골로 이를 때까지 종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였다.

함박골에서는 한씨가 눈이 까매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애야, 상촌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아니, 뭐라구요?》

은심은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여서 헤덤벼치며 물었다.

《언제요? 누가요? 무슨 일루?...》

《네가 상촌으로 편지 보낸 일이 있나?》

《예, 있어요, 애들한테...》

《그럼 정말이랬구나!》

한씨는 웃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네 편지를 보구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구나. 술한 물건들을 받아쓰면서두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몰라 애를 태우다가 네 편지를 보구는...》

《그 래요? 어머니 그담엔 또 뭐라구 하던가요?》

은심은 기운이 나서 한순간에 모든 피로를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가! 원호물자를 받아안고 목이 메여 흐느끼는 어머니, 아버지들, 공책과 연필이며 신발을 받아안고 좋아라 짹자공이 칠 일남이, 성호, 삼순이들... 그 눈물겨운 정상이 한순간에 떠오르며 은심의 가슴을 한없이

이 부풀게 하였다.

하나 한씨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애야 너희들이 술한 고생을 하더니만...》

한씨는 은심에게 조그마한 글썽지를 내주었다. 상촌에서 온 젊은이가 내놓고 간것이라 했다.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은심은 들떴던 감정이 줄지에 사라져버리고 가슴이 섬쩍해서 서둘러 글썽지를 펼치였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소대장동지, 2소대 3분대장 오영삼이 동지들을 체포해오라는 지시를 받구 왔다가 돌아갑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동지들의 수고와 정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과>를 감추고 민심을 소란시키자는 연극이라는겁니다. 분한 일이지만 이곳 일을 그만두고 여기서 조용히 피해주시시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으니 꼭 그렇게 해주시시오, 부탁입니다.》

은심은 까맣게 질린 얼굴을 글썽지에서 쳐들지 못했다. 가슴속으로는 싸늘한 얼음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울씨년스러운 바람소리가 들리였다.

《어머니, 전 정국동무한테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은심은 글썽지를 접으며 일어섰다.

《애야.》

은심이가 차비를 서두르자 한씨는 나무뿌리같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마음을 크게 먹어라. 괜히 약한 소리 해서 그 사람의 속을 태우지 말구.》

아마 한씨도 사태를 다 아는것 같았다.

《알겠어요 어머니, 약한 소리루 그 동무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은심은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한낮인데도 날은 춥고 음산하였다. 얼어붙은듯한 납빛구름밑으로 눈발이 설레발을 치며 홀날리였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나 해주는듯하였다.

《다른 길은 없다. 북만으로 가는수밖에...》

은심은 줄곧 그것만을 생각했다. 여기에 남은것이란 파멸뿐이다. 그러니 지체없이 사령부를 찾아 북만으로 떠나야 했다. 그래야만이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모든 일이 바로잡힐게 아닌가. 희망의 그 언덕이 아무리 멀리 가있어도 기어이 찾아가야만 했다. 그래야 강정국 이도 구원할수 있는것이리라. 이제 와서 은심은 자기보다 강정국의 존재가 더없이 귀중했다. 그는 이 함박골과 물남마을을 비롯해서 조직을 움직여나가는 기둥이 아닌가.

그가 이런 생각으로 물남마을의 방아간집을 찾아간것은 어슬턱이였다.

강정국은 뜻밖에도 그 집에서 몸져누워 앓고있었다.

《금방 잠이 들었수다.》

몸은 체소하나 아직은 박달나무처럼 단단해보

이는 주인집 로인이 입가에 구부정한 손을 갖다 대며 옷방을 가리켰다. 그의 말에 의하면 늘 바깥으로 나돌아살던 강정국은 사흘째나 축한을 앓는다는 것이었다.

《축한이 심한가요?》

《말두 마우. 우린 무슨 변이 나는줄 알았수.》

은심은 더 묻지 않고 조심히 옷방으로 올라갔다.

어둡시그레한 등불이 가물거리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운 강정국은 기척없이 자고있었다.

소리없이 곁에 가 앉은 은심은 가슴이 더럭 무너지는것 같아 눈길을 강정국이란테서 떼지 못했다. 폭 꺼져내린 눈썹, 꺼칠해진 창백한 얼굴, 갈라터진 입술, 아직도 빠르게 내여쉬는 숨결, ...며칠사이에 너무나도 수척해진 강정국의 모습이어서 은심은 살을 저미는듯한 아픔으로 입술을 떨었다. 이렇듯 육체와 정신을 깡그리 일에만 쏟아부으며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도 오히려 운명의 가혹한 희롱만을 받아안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듯하였다.

이제 상촌의 소식까지 듣게 되면 또 얼마나 괴로와하랴.

바람질은 점점 더해졌다. 갑자기 문풍지가 봉하고 울씨년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강정국은 눈을 떴다. 자기앞에 그르듯이 앉아있는 은심을 띠여온 그의 두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그는 이불을 제끼고 얼른 일어나 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소?》

《예...아니, 그저...》

은심은 당황한 가운데 애써 웃음부터 지어보였다.

강정국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혼자서 수고가 많았겠소. 내 가본다 하면서 두그만...》

은심은 더 참을수 없어 얼굴을 수그리며 가늘게 어깨를 떨었다.

《아니 왜 이러오?》

강정국이 더욱 놀라서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허나 은심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짓눌린 울음소리를 삼키며 그냥 터지려는 오열을 묵새기느라 애썼다.

《허, 이거 정지간에서 들겠소.》

《몸이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어요...》

《괜찮소...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여기에두 조직이 하나 꾸려졌소!》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한단말이에요.》

은심은 안절부절 못해하였다.

《생각할수록 정말 분해서 못견디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혁명밖에 모르시는데 글썽... 이걸 봐요, 이걸...》

은심은 상촌에서 가져온 글썽지를 내흔들었다.

《허, 뭐게 그러오?》

강정국은 글썽지를 받더니 이불부터 개여 한편으로 밀어놓은 다음에야 등불앞으로 다가갔다.

문풍지는 그냥 봉봉거리고 등불은 불안스레 춤을 추었다.

은심은 병약해진 강정국이 글썽지를 읽고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랴 싶어 조마조마하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강정국은 껄껄 웃기 시작하였다.

《허허, 이것때문에 그렇듯 놀란단말이요? 원, 은심이답지 않구만.》

《아니?!...》

은심은 아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조차 웃을수 있다는것을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이것보오.》

강정국은 은심의 곁으로 다가와앉으며 글썽지를 내들었다.

《이 글을 보니 파쟁군들이 우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알수 있지 않소? 그건 우리가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구 있다는 증거지 뭐요?》

《그러니까 원호공작두 계속 하셔야겠군요.》

《그야 물론이지, 왜 그러오?》

강정국은 도리어 놀라와하는 표정이었다.

은심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아직도 강정국이 자기의 신상에 다가드는 위험을 모르고있으니 놀람기만하였다. 사람의 목숨을 생나무 꺾듯하는 그자들의 비렬한 속심과 모략을 과연 잊을수 있단말인가.

《그렇게는 안될거예요.》

은심은 숨이 가빠올라 매몰차게 말했다.

《진 정국동무가 몸이나 추세우시면 같이 사령부를 찾아떠날것을 결심했어요.》

《거, 대단한 결심이군! 그럼 상촌은 어쩐다?》

《인젠 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통로는 막혀버리구. 상촌은 <토벌대>놈들한테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두 부득불 원호물자들을 눈속에다 파묻지 않으면 안되었어요.》

《뭐라구?》

성난 은심을 보는것을 재미스러워하는듯하던 강정국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게 정말이요?》

은심은 대답대신 눈을 내리쬘었다.

바깥에서는 또 한차례의 바람소리가 소란스럽게 났다. 문풍지가 길게 신음소리를 냈다.

《눈속에 파묻어놓구 오다니...》

강정국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럴수 있소? 동무가 가르쳐주던 애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면... 음...》

은심은 참을수 없어 고개를 쳐들었다. 물론 강정국의 꾸지람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그릇되게 처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은

심이었다. 강정국이 움쭉 일어나더니 말코지의 숨저고리를 벗겨 입으며 길차비를 하는바람에 그만 당황해졌다.

《어찌자구 이러세요?》

《같이 가보지요.》

강정국은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형하니 밖으로 나갔다.

은심은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몸으로 눈보라치는 밤길을 떠나겠다는 강정국의 행동에 놀람보다 맥이 탁 풀리었다. 이렇게도 남의 진정을 몰라주는가싶었다.

은심은 비록 내색은 않아도 강정국이 분명 그 글썽지때문에 격분을 새기다못해 이렇듯 자체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노한 사자같은 강정국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며 강정국이 못지않게 강해진 자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는 눈을 뜰수 없게 몰아쳤다. 모래알같은 눈알갱이들이 얼굴을 맴파게 때리고 캄캄한 밤하늘에서는 무시무시한 평음이 으르렁거렸다.

강정국은 벌써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있었다. 병약한 몸으로 나선 길이 스스로도 자신없었던지 지팽이까지 짚고있었다.

은심은 숨차게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못가요. 거긴 위험해요.》

《음?...》

《제가 살이있는한은,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루...》

은심은 숨이 차올랐다. 심장의 박동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크게 소리쳐 말하고싶었다. 아무리 애써야 불행만 더해지는 일에 강정국을 내놓고싶지 않은 심정을, 누구한테도 강정국을 뺏기고싶지 않은 심정을... 허나 웬일인지 그 말은 입안에서만 뱅뱅 돌았다. 그대신 마음은 더 조급해났다.

그는 강정국의 어깨를 붙잡고 간곡히 타일렸다. 《복만으로 가지자요. 정국동지두 얼마나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하시나요. 또 그렇게 해야 일이 바로 잡혀나갈게 아니예요. 네?》

강정국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아내리웠다.

《그러니 우리만 빠져나가겠다는거요?!》

《그런게아니라 복만으로 가는 길만이...》

《그만두오.》

강정국은 침울하게 말하였다.

《동문 겁을 먹었구만, 파쟁군들이 위협을 하구 상촌이 원수들한테 포위당하자 겁을 집어먹었던 말이요. 물려서오. 그 험악해진 상촌을 살려내는 건 혁명의 부름이요. 그 부름앞에 나는 가야 하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두. 나는...》

강정국은 은심을 비켜세우더니 단호히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몇발자국 못가서 다시 고개를 돌리었다.

《꼭꼭히 들소. 내가 가다가 못가면 동무가 대

신 가야 한다는걸... 누가 어떻게 하든,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구 총탄이 쏟아지구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긴다 해두말이요, 그건 의외이구 량심이요. 또 그렇게 하는것이 장군님결의로 제일 가까이 가는길인거구.》

말을 마치자 강정국은 눈보라를 맞받아 걸어나갔다.

은심은 자기를 잊어버린채 선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하였다.

강정국이 남긴 말이 그냥 우뢰처럼 가슴을 때리고있을뿐이었다.

그러고보면 강정국의 이 걸음은 혁명의 부름앞에서는 당장 눈더미속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을 기어이 가야 한다는 억센 신념을 앞세운 확신있는 걸음이었다.

(그랬됐구나!)

은심은 눈썹리가 아프도록 눈보라 날뛰는 어둠속으로 걸어가는 강정국을 바라보았다.

강정국은 서두름없이 지팽이를 짚으며 걸어가고있었다. 비칠거리는 온전치 못한 걸음이었다. 그렇게 가다가 쓰러질수도 있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수도 있었다. 머리우에 드리운 치욕을 영영 벗어던지지 못할수도 있었다. 하나 그는 결코 이 길을 후회할 사람은 아니었다.

철의 심장파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강정국의 인간미를 새롭게 발견한 은심은 불시에 누를길 없는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막 뒤설레었다. 저렇듯 훌륭한 사람이 바로 자기와 함께 혁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러자 잠시나마 강정국의 마음을 어둡혀놓았던 그는 몇갑절의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충동을 안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다짜고짜 강정국의 지팽이를 빼앗아 어둠속에 내던지고는 자신이 지팽이로 되거나 하려는듯 팔을 단단히 끼여잡았다.

《끝내 불러주지는 않으시는군요.》

《뭇때문에 부르겠소?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데...》

어둠속이어서 보이지는 많았으나 은심에게는 분명 강정국이 밝게 미소를 짓는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러니 결국 은심이라는 녀자는 없어진셈이군요.》

《대신 참되구 강한 은심이가 태어난셈이지.》

은심은 강정국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해있지 않은 은심이와 새로 태어난 은심을 가지런히 세워보았다. 왜 그런지 별로 차이가 있는것 같지 않았다. 하나는 근심속에 싸여있는 은심이고 하나는 밝게 웃는 은심일뿐이었다.

《참, 이렇게 걷노라니 그 샘물이 생각나는구만.》

《샘물?》

《거 있지 않소? 요전날 설참에 눈속에 있던 샘

물말이요.》

생각났다. 샘물과 은심이의 웃음을 보면 기운이 난다던 강정국의 말도 생각났다.

《이 눈보라속에서두 얼지 않구 있을거요.》

《네, 그럴거예요.》

눈보라는 그냥 살판치듯 몰아쳤다.

두사람은 눈보라를 떠밀며 완강히 앞으로 걸어갔다. 하나 그들은 이 눈보라속으로 자기들보다

더 급한 걸음으로 마주오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 상촌에 그렇게도 그리던 장군님께서 그들 두사람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주셨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단지 그들은 오늘밤중으로 기어이 눈에 파묻은 원호물자를 상촌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대자연을 전률케 하는 눈보라는 그보다 더 강한 인간들앞에서 한걸음 두걸음 물러서고있었다.

## 독자편지

# 이런 류의 시를 기다렸습니다

리대훈

우리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군이므로 당일군들을 형상한 소설이나 시가 출판물에 실리면 빠짐없이 보고 저마다 자기 생각을 터놓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일군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면 당일군들의 심리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거의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놓고 이야기를 엮거나 시를 쓴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우기 당일군들을 취급한 시작품경우 그러합니다.

지난 시기 당일군을 취급한 시를 보면 흔히 《우리 리당비서》, 《우리 공장 당비서》라고 판조적으로 당일군들이 어떤 사람이라는식으로 노래하다나니 재미없고 딱딱하여 읽을맛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당일군들의 속깊은 심정이라고 할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가. 이런 류의 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선문학》 1호에 《한 당일군의 일기장에서》(리석)라는 편시가 게재되어 우리 당일군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그가운데서 시 《꽃밭에서》라든가, 《생활의 한 토막》이라는 시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날의 낚시군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바로 당일군들의 생각은 필자가 주장하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사업을 잘하고 군중을 움직여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충실하게 할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필자는 현시기 우리 당일군들의 생각을 바로 겨울날의 낚시군을 두고 당일군들의 자세와 립장

을 예술적으로 천명했다고봅니다.

바로 이 생각은 당일군들만이 할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하는 일에 몸을 푹 잠그어야 성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필자는 겨울날의 낚시군을 두고 너 당일군아,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하고파하게 하는것이 너의 사명인데 너는 어떻게 하고있는가고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며 당일군의 본분을 다시한번 자각하게 하는것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이런 견지에서 이 시는 판조적이며 피상적인 시가 아니라 심리적인 시라고 해야 마땅할것입니다.

바로 출판사에서 이런 시를 많이 내야 독자들이 읽을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를 아침에 우리 당위원회 일군들앞에서 독보했는데 우리 조직부비서동무까지 감탄했습니다. 왜냐면 조직일군들은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정서가 없는 일군으로 간혹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 좋아하는 이런 인상적인 시를 앞으로 많이 소개해주십시오.

필자가 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 당일군이 썼는지, 아니면 일반필자가 썼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작품이 있어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00명의 작가가 글을 쓰면 제 얼굴을 가진

100가지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관찰할수 있다고봅니다.

(평양 삼신탄광 초급당비서)

## 개선문앞을 거닐 때면

박해출

개선문앞을 거닐 때면  
쟁쟁히 들려오는  
해방의 환호성

그 환호성  
울려간 그 끝은 어데던가  
남해가 작은 어촌마을에도  
해방의 감격은  
파도쳐 설레이지 않았던가

그날의 그 환호성이  
아직도 쟁쟁한데  
갈라졌다고  
이 땅이 갈라졌다고 믿기엔  
너무도 가슴 저미누나

해저무는 모래불에서  
《통일렬차》 놀이하던 그 시절을 넘어  
《통일연》 띄운 하늘가에  
간절한 마음 싣던 그 뉘를 안고  
이 땅에 쌓인 세월의 숙원은

오직 통일 통일이어서

일을 해도  
그때문에 한몫은 더  
남녘의 형제들 뭉으로 하고  
옷감이 하나 생겨도  
한피줄 이은 그네들 뭉으로  
남겨두는 마음이어서

내 개선문앞을 거닐 때면  
그 환호성이 귀가에 더욱 쟁쟁코  
청동의 나팔수 높이 부르는  
끝나지 않은 위업의 길에  
내 신들메를 조이나니

이제 다시 울리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해방의 그 환호성과 화답하여  
통일문 높이 세우는 그날  
삼천리강산에 높이 높이  
통일의 환호성은 기어이 울리리

## 고향집 뜨락에서

김기성

초소에서 다섯해  
넓어진 가슴펴고  
정든 동구길에 들어서니  
입대의 그날  
뜨락에 심은 백살구나무  
이제는 추녀와 나란히 자라  
새롭게만 안겨오는 고향집  
그 고향집 부엌문이 서둘러 열리며  
어머니 아, 어머니 나오시네

내 이렇듯  
가슴가득 혼장 달고  
휴가길 오는줄 먼저 알았는가  
어릴 때처럼 내 이름 부르며  
두팔 벌려 안아주는 어머니

내 어릴 때  
해저문 동구밖에 들어서도  
비내리는 한밤중  
뜨락에 울리는 내 발자욱소리도  
다 가려들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서둘러 마중하는가

산악을 주름잡으며  
혼련길 내달리며  
이제는 나의 발걸음도  
어릴 때와는 다르건만

어머니는  
진정 어머니는 정정한 모습으로  
나를 한품에 껴안으니

잊지 않으셨구나  
고향에서 먼 방선의 전호속에서  
키워온 릉름한 발걸음이건만

그 언제나 조국을 지켜  
조국을 안고사는 아들들이 있기에  
이 나라 어머니들은 늙지 않는것이구나  
자식들의 장한 발걸음소리를  
다 가려듣는것이구나

## 시대정신과 생활의 심오한 탐구

- 1. 4분기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

김성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볼줄 알며 시대의 지향을 한가슴에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불타는 열정과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영화예술론》, 25페이지)

단편소설의 첫째가는 매력은 시대정신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제때에 장훈을 부른 단편소설이라야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줄기찬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단편소설은 말그대로 당사상사업의 전조선에서 맨 선참 진지를 박차고 일어나 돌격으로 전사들을 부르는 공격나팔이 되여야 하며 면바로 적의 가슴을 꿰치른 예리한 총창이 되여야 한다. 이미 먼발치 달려나간 산병선의 뒤전에서 때늦게 울리는 나팔은 벌써 맥빠진것이다. 아무리 곡조가 아름답고 지어 힘차다고 해도...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은 금년도 첫호에서부터 우리 당의 공격나팔수로서의 이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될수 있었다.

당은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였다. 단편소설 《평양행 급행렬차에서》(김관일, 1호), 《전선》(조필수, 2호), 《내 나라》(양해모, 3호)등은 우리 당의 이 전투적호소를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물고 과학기술혁명의 앞장에서 숨은 노력을 바쳐가는 한없이 고결한 숨은 공로자들의 형상과 이들을 믿음직하게 이끌어나가는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단편소설 《평양행 급행렬차에서》는 하나의 궤도우에 몸을 실은 각이한 사람들과의 대비속에서 로력영웅인 김승호연구사의 숭고한 형상을 그려내고있다.

급행렬차... 그렇다.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리상의 언덕을 향해 숨가빠 달려가는 생활의 급행렬차에는 얼마나 개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가.

한때 고등전문학교시절엔 공부를 꽤 한축이였고 자동화기구연구소의 연구조수로까지 배치받은 적이 있었던 청년은 지금 외교단사업총국의 운전사로 일하고있다. 무엇때문에 따분한 과학을 하

겠는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면 그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누가 일러주거나 하는가.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고도 즐겁게들》 산다.

신분증을 안보고도 기사를 알아본 렬차원치너는 자진해서 그의 침대표를 떼다준다. 연구사에게 방해를 구하는 그의 첫 말마디는 쌀쌀하게 울리고 기사에게 침대번호를 적어드리겠다는 둘째번 말마디는 저으기 정중하고 부드럽다. 그의 미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얼마전엔 우리 렬차의 경옥동무가 신문에까지 났는걸요...》 그렇다. 자기를 사회앞에 내세워달라는것이다.

작가는 이 《령리한》 사람들, 《수단군》들과의 예리한 대조속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내화물문제를 풀기 위해 자기가 선택한 고행의 길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묵묵히 걸어온 주인공의 고결한 형상을 보여주었다. 누가 그를 알아보았던가. 그의 등에 얹힌 그 무거운 광석배낭을 누가 맞들어주었던가. 나어린 지방예술선전대의 녀배우에게도 차례지는 렬차좌석조차 그에게는 차례지지 않았다. 하물며 침대표야...

이름없는 한 승용차운전사까지도 서슴없이 그를 《따분한 사람》으로 모욕하였다. 허나 그는 그 모든것을 참고 견디었다. 다만 《재능》이라는 이 소중한 말을 함부로 람용했을 때 그는 차락을 쳤다.

《재능이란... 자본이 아니요! ...사적인 리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적리윤이 많은곳에 투자하거나 필요에 따라선 바꿀수도 있는 그런 자본이 아니란말이요. 치부를 위한 수단도 아니구! ...누구도 재능이란 말을 욕된것에 함부로 갖다붙일수가 없소!...》

그의 이 불을 토하는듯한 웨침에는 당이 무엇을 요구하든 관계없이 명예와 리익이 있는곳을 끌아가며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숨쉴이게 바꾸는 수단군들에 대한 준렬한 단죄가 담겨있으며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지어준 선택의 자유와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여 성실한 사람들의 등에 업혀 《령리하게》 살아가는자들에 대한 치솟는 규탄이 스며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 과학자의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을 마구 깔보면서 자



기들의 그 속된 생활관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자랑하게까지 된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가슴아파하는 문제이며 오로지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과학자, 기술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똑바로 자각시키게 될때라야 생활의 《급행렬차》는 정시에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시대의 요구를 심장에 체현하고 대담하게 현실에 육박하여 당에 대한 참된 충성심과 깨끗한 과학적량심을 격조높이 레찬한 작가의 열정에 우리는 매혹되었다. 이 대담성, 이 예리성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준것이며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고 시대정신을 투철히 체현한 작가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이 준것이다.

《전선》은 다른 각도에서 중요한 시대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생산을 책임진 일군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진 지휘관들의 문제이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던 두 기사가 대학을 졸업할 때 하루빨리 《ㄷ-강》과 새 채탄기를 성공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자고 약속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리상이었다. 한 기사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여 새 채탄기를 설계해냈고 그 제작을 위해 꼭 필요했던 《ㄷ-강》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다른 한 기사의 꿈은 깨지고 순결한 사랑도 반쪽이 났다. 국가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새 채탄기제작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었다. 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두해전에 동수기사가 직장에 배치되어왔을 때 부직장장 유화영은 그에게 신발을 잘 신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오자부터 《ㄷ-강》이란걸 연구한다고 들며 돌아치면서 맡은 일에 착실치 못하다는것이다.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맡은 일을 착실히 하는것이 발전에도 유리한 길이다. 연구니 뭐니 하는것은 후날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동수를 통제하면서 자기가 할 일까지 시키었다.

동수를 극진히 위하는척하고 온갖 하정은 혼자 다 아는척하는 이런 위선, 이런 거짓사랑에 청년의 꿈은 시들었다. 사랑하는 처녀의 눈물도 애원도 일단 희망과 꿈을 버린 청년의 가슴속에 새움을 띄울수는 없었다. 그들은 갈라졌다.

결국 유화영이 청년에게 신긴 《신발》은 보신과 안일과 리기의 신발이었다. 그런데 진실로 무서운것은 화영이자신이 그 《ㄷ-강》에 대해서, 자기가 짓밟아버린 그 꿈에 대해서 감감 잊어버린것이며 자기가 당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다는데 있다. 지금쯤 동수의 《ㄷ-강》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 새 채탄기를 올렸을것이다.

비길데없이 크나큰 기쁨을...

작가는 초급당비서 김정근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련결시켜 생각할줄 모르는 지휘관은 혁명에 손해만을 끼친다는 심각한 문제성을 밝히고있다.

일군들이여! 저도 모르는 사이 과학기술혁명에 온 심장을 바치기로 한 새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열정을 소위 《인정》과 《사랑》으로 짓밟아버리고 자기들과 마찬가지로의 처세와 요령주의, 안일의 시궁창속에 이끌어넣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자. 자기가 맡은 전호를 굳건히 지켜야 할 한 전사를 스스로 보신의 은폐호속에 끌어들이고 과학기술혁명의 전선에 빈 자리를 만들어놓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보라. 그 빈 공간으로 어떤 무서운 후가가 우리 혁명의 가슴을 겨누어 기여들는지 가늠해보라. 이것은 범죄이다!

정근은 우리 시대의 참된 당일군으로서 동수의 가슴속에서 영영 꺼질뻔했던 열정의 불꽃을 다시금 피워주며 잃었던 사람도 되찾아준다.

실로 작품이 제기한 문제는 절실하고도 심각한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 예리하게 조명되고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당정책적립장에서 뚜렷이 밝혀지고있다.

시대정신에 대한 이러한 충실성은 단편소설 《내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 인상적인 단편소설에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한 청년지식인의 슬기로운 형상이 자기를 낳아준 향토와 조국에 대한 순결한 사랑의 감정과 결부되어 그려지고있다.

책속에서 터득한 과학기술이 진실로 은을 내자면 사랑과 희생의 고결한 감정이 굽이치는 뜨거운 심장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맹렬한 론리와 리성으로 두뇌속에 축적된 과학지식은 그자체로서는 아직 힘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수자와 공식에는 국경도, 계급적분별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열정에 불타는 심장과 결부될 때 벌써 그것은 《국적》과 계급적 《성분》을 가진다.

소설의 주인공 장운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지식인인가! 나라에서 제일 궁벽한 제고장의 사람들곁에서 그들의 기쁨과 만족, 그들의 요구를 몸가짜이 느끼며 식료공장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청춘의 온갖 열정과 지혜를 다 바치는 그의 모습은 눈물겨웁다.

그와 지배인은 무엇이 다른가. 지배인은 제대되어 강홍땅에 배치받았을 때 군말없이 《알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식료공장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그에게는 《나》 개인의 취미나 희망같은 것을 다희생시키면서도 조국이 요구하고 당이 배

치하는곳으로 무조건 가서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그러나 한갓 의무감으로야 어떻게 인민의 총복이라는 영예로운 직분을 잘 지켜나갈수 있겠는가. 장운혜야말로 그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사랑과 창조의 열정으로부터 스스로 강홍땅에 찾아온다. 《강홍땅이 다른고장처럼 살기 좋다고 이름난곳이었다면 구태여 자기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때문에 지배인은 10년이 지나자 이제는 여길 떠나도 량심에 꺼리낄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마침내 《상급의 소환》으로 떠났다. 운혜는 수도의 연구사로 소환을 받았으나 떠나지 못했다. 고소한 들깨잎향기가 달콤한 강홍땅의 고구마튀개와 더불어 그는 남았으니 그는 이고장을 배반할수 없다. 왜냐 하면 그는 이고장을 사랑하기때문이다.

물론 자기 고향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형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 작품의 주인공들도 언제나 《상급의 소환》, 《연구소》… 등의 화려한 길이 앞에 놓여있고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으로 그려졌다.

그렇다면 이번 운혜의 형상은 무엇이 다른가. 어쩌서 류형과 도식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독자들을 이끌어가는가.

다른 작품들에서 역시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때문에 《희생》이라는 문제가 설정되고 그 희생에서 오는 《자부심》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다르다. 여기에는 사랑과 결합된 과학이 그려지고있다. 사랑을 위해서 바친 노력은 희생이 아니다. 그에게는 《희생》할것이 없는바 온 심장을 바친 사랑은 다만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는 자기의 행복을 욕심스레 누린것이며 그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세라 이마에 백발이 날릴 때까지 의무가 아닌 사랑의 권리를 소중히 지켜왔다. 그렇다. 그는 사람을 창조하였다. 하기에 그는 가장 궁벽했던 산골농촌에 살고있었지만 생활의 번두리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 살고있었던것이다. 바로 여기에 작가가 새롭게 창조해낸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매력에 있다.

시대의 정신, 시대의 숨결이 굽이치는 이러한 단편소설들은 벌써 세상에 나가자마자 당정책관철을 위한 벽찬 투쟁에 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을 그러잡았으며 생활의 친근한 벗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 단편소설들이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문제성을 감명깊은 형상속에서 뜻깊게 밝혀낼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시대정신을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생활로써 천명하려는 진지한 탐구정신과 철학적사색의 심도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생활속에 정치가 있다. 정치라는것은 그저 허공에 떠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에 토대하고 생활속에서 생겨나는것이다. 생활이 세부화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그속에서 정치가 생겨날수 있는 배아가 생기게 된다. 바로 그속에 시대정신이 깃든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시되면 그것을 조급하게 도해하여 선언적으로 제시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당정책이 뿌리박은 인민의 현실생활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심도있는 철학적사색을 통하여 얻어낸 뜻깊은 사상적알맹이를 틀어잡고 생동한 생활적세부로 충만된 형상의 화폭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에서 레든 세편의 단편소설들은 한결같이 극히 평범한 생활의 세부속에서 심각한 정치적문제를 발견하고있다.

《평양행 급행열차에서》는 우리가 늘 리용하고 있는 열차안에서 레사토이 벌어지는 승객들의 대화와 자그마한 일화속에서 심각한 시대적문제를 찾아내고 있다. 사실상 소설에 그려진 생활장면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고 체험해온것인가.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극적》인 대사도 없다. 무심히 보아왔고 당연하게까지 여겨온 평범한 생활의 한토막이 소묘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을 당정책적안목에서서 날카롭게 분석해보고 심오한 철학적사색을 통해 문제를 파고들어갈 때 거기서 크고 심중한 문제성을 발견하게 되는바 그것은 지어 놀랍기까지 하다. 왜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가. 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버젓이 허용되고있으며 아름답고 진실한것이 저속하고 파렴치한것에 의해 모독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이제껏 무난히 자행되어왔을가…

새삼스레 우리의 가슴속에는 《령리한》수단군들에 대한 분노가 불타오르며 말없이 충성의 한길을 걸어가는 참된 과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정이 물밀어오른다.

작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었다. 그 눈은 당정책적눈이다. 생활속에서 가차없이 진실과 허위, 미와 추악성, 재능과 무능을 갈라보는 량심의 눈, 지성의 눈이다. 그 눈앞에서 《령리한》처세군과 암매한 리기분자들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할것이다. 생활의 《급행열차》는 전진한다. 결국 량심은 승리한다. 생활은 아름다운것이다.

《전선》을 보아도 소재는 평범하다. 사실 우리 일군들가운데 유화영이와 같은 《능란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들이 새세대의 꿈과 리상을 무심중 짓밟아버림으로써 당과 인민앞에,

시대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있는지 생각도 못하면서 혼시하고 꾸중하고 빈웃음을 짓는 일군들... 한시바삐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펼쳐놓은 3대혁명의 전선에는 무수한 빈자리들이 생기고 혁명의 새 후비대를 키워내기 위해 수만금의 자금과 정력을 기울인 당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되고말것이다.

준엄한 진실을 우리는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무엇이 터져나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요란한 사변속에서가 아니라 극히 평범한 생활세부를 통해서이다.

생활을 깊이 탐구한다는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고향의 특산물인 고구마튀개가 한 녀성기술자의 순결한 애국심에 대한 장엄한 교향곡의 동기로 되었다.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의 세부에서 시대의 숨결을 느끼고 뜻깊은 사상적알맹이를 찾아내자면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당의 뜻으로 늘 사색하고 모대기며 분노하고 기뻐하는 뜨거운 충성의 열정과 칼날같은 예지가 필요하다. 이런 열정, 이런 예지를 지닐 때 당의 작가, 주체시대의 작가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편소설 《표창장》(강귀미 2호)도 비교적 감명깊은 작품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이 작품에는 작은것 같으면서도 결코 작다고 볼수 없는 소박하고 진실한 한 인간의 열정과 성실성이 이야기되고있다.

표창장, 거기에는 당에 바치는 그의 깨끗한 마음이 깃들어있으며 숨은 공로자들을 따라배워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뜨거운 충성심이 담겨져있다.

이밖에도 우리는 훌륭한 소설들의 사상예술적 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4분기에 발표된 모든 단편소설들이 다 시대정신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한것은 아니다. 작가가 아무리 시대정신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생활을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 제기할만한 높은 지성과 열정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것은 단편소설 《석탄전선에 인사를!》(김천성 2호), 《길》(구경서 3호), 《보내는 마음》(리기창 3호)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이 소설들은 한결같이 탄광에 대한 지원문제를 취급하고있다. 정책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가운데서 단편소설 《길》은 비교적 생동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탄광에 지원해가는 한 처녀의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하였으며 탄광개척자들의 보람과 량만에 찬 정서를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석탄전선에 인사를!》과 《보내는 마음》도 자기 나름의 주장과 형상세계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들이 거둔 일정한 사상에 예술적성과를 긍정하면서도 시대의 높은 요구에 비추어볼 때 미흡하게 생각되는 몇가지 의견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보내는 마음》에 제기된 기본문제는 탄광에 보내는 지원력은 《애군》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는것이다. 작가는 이것을 직장장 심대영과 새 지배인사이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머칠동안 도에 출장갔던 심대영직장장은 중부에 새로 개발된 XX탄광에 보낼 지원력으로로서 자기가 예정했던 말썽군 박동길이가 아니라 직장장의 《노란자위》인 오명학이 뽑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오명학은 제대군인출신 당원에 공장대학 졸업생이고 직장에서 손꼽히는 창고고안명수이며 게다가 심대영의 외동딸과 각근히 지내는 사이이다. 그와 달리 박동길은 축구만 즐기고 경기도중에 다른 팀 선수에게 손찌검까지 한 청년으로서 착실히 일할 대신에 탄광지구인 고향에나 보내달리고 폐를 쓰고있다. 그런데 제발로 가겠다는 박동길은 내놓고 혁신자인 오명학을 보내다니? 새로운 지배인이 실정을 몰라서인가? ... 대영은 급히 지배인실로 향한다.

이 첫 대목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어느 정도 뒤를 내다본다. 거기에 새 지배인의 외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되여오게 되었다는 《복선》까지 내비칠 때 이제 무엇을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가. 지배인은 심대영의 제기를 받고 오명학을 보내라는 지시를 보류하는 대신 자기의 외아들을 보낼것이다...

여기서는 모든것이 도식화되어있다. 탄광진출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작가의 창작적의도는 물론 좋은것이였으나 그것은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지지 못하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도식화되었다. 당이 부르는 중요한 초소에 자기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두사람의 마음사이에 있는 커다란 차이는 자연스러운 생활로써가 아니라 작가가 꾸며낸 도식에 따라 단순히 천명되었다.

이 소설에 그려진 생활은 대체로 거짓이 이니다. 또 현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중한 문제를 안고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허전한 마음으로 마지막페지를 넘겨야 하였는가.

시대적으로 절박한 문제를 틀어잡았지만 작가

는 정치적인것을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생활의 내부를 깊숙이 파고들어갈 대신 그 외피만을 보고 사건만을 취재하였으며 매 등장인물들의 생활과 심리에 침투하여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민과 지향의 착잡한 세계를 그리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형상의 론리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있다.

우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계공장에서도 일하면서도 늙은 어머니와 녀동생이 있는 고향의 탄광에 내려가겠다고 《애를 먹이며》 일을 착실히 안한다는 박동길청년의 성격설정이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는다. 또 것처럼 자기 공장을 사랑하고 공장을 떠나게 될 마지막순간까지 자기가 제기했던 새 공구지구창안을 마무리하느라고 구슬땀을 흘리는 오명학이가 자기를 탄광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펼쩍 놀라듯 눈이 전조등처럼》 커지더니 《자기가 영예로운곳에 특별히 추천받았다가 직장장때문에 락선이나 당한듯이 얼굴을 붉히는》 것도 그리 진실한 묘사로 안겨오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지배인은 박동길이더러 고향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함께 일해보자면서 앞으로 그가 일을 잘해서 모범혁신자로 인정받을 때는 탄광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도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도 어딘가 어색한 점이 있다. 탄광진출문제를 론하면서 탄광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붙잡는것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도 탄광에서 데려내다가 이곳에 마음붙이게 하겠다는 것이 론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아빠트입사증을 쥐여주자 즉시 감화되는 박동길이가 참말 《애군》이였는지, 또 고향의 탄광에 가겠다고 하던것이 진정이였는지, 앞으로 정말 이곳에 정을 붙이고 모범혁신자가 된 다음에는 다시 탄광으로 가겠다고 하겠는지 의심스럽다.

고향이 그리워 이 공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애를 먹었다면 고향의 탄광에 보내주는것이 본인에 대한 교양이나 당정책적요구에 비추어 정당한 처사이며 반대로 주택문제때문에 일부러 탄광에 도로 가겠다고 생억지를 부리었다면 아마 모범로동자들에게도 다는 차례지지 못하였을 새 아빠트를 그에게 척 배정해주는것은 그의 부정과 타협하고 더욱 조장시킨 불공평한 처사로 될것이다. 교양을 위하여 고급아빠트를 말쑥군부터 배정해주는것이 옳은 교양방법이 아니며 반대로 일잘하는 사람에게 물질적대우도 크게 하여 뒤떨어진 사람을 자극하라는것이 현시기 당의 중요한 정책

적요구이다.

확실히 작가는 시대의 리념에 충실하겠다는 주관적의도만 앞서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을 깊이 탐구하려는 진지한 창작적자세가 부족하였다.

단편소설 《석탄전선에 인사를!》에서는 더욱 문제가 단순하다. 탄광에 갱목이 떨어진것을 알아차린 갱목작업소 지배인이 얼음이 채 녹지 않은 폐길을 열고 때이른 류벌을 보장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아무런 철학적인 종자도 문학적인 이야기도 없다. 갱목사업소 지배인 최운이가 무엇을 하였는가. 수달이란놈이 물고기를 잡아들고 난데없이 쑥 튀어나오는바람에 강우의 얼음이란 것이 알파하게 얼어붙은 《비계얼음》이란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동자들을 동원시켜 그 《비계얼음》을 까면서 점점 폐길을 열었다는것,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수달사냥》에 정신팔렸다는 헛소문이 나서 오해까지 하게 되었다는것이 전부이다. 여기에는 심중한 문제를 놓고 절절하게 엮힌 인간관계도 없고 사건적인 곡절도 없다. 작가는 작품의 끝에 가서 당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부르는 석탄전선인데 때를 물고서 얼음이 아니라 산이라도 넘겠다는,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의 혈맥처럼 이어져 힘껏 떠밀어주기에 우리의 석탄전선은 장엄한 진군길에서 승승장구》하고있다는 주정토로를 하였는데 역시 주관적선언이지 생활적감정으로 안겨오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선 인간문제가 없다. 인간성격도 없고 의미심장한 생활세부도 없다. 《수달사냥》이란 엉뚱한 오해선은 말그대로 아무런 형상적효과도 주지 못한다. 진실한 생활탐구가 없이 어떻게 시대정신을 감명깊게 밝혀낼수 있겠는가.

이상에서 지적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것은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인간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 탐구함이 없이 작품에 내건 주제로써 한몫 보려고 하는 경향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잡아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활로써 천명하지 못할 때 독자의 가슴을 치는 진리를 안겨줄수 없다.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항상 높은 요구상을 제기하여야 할것이다.

시대에 대한 충실성은 생활에 대한 충실성이다. 생활을 깊이 파고들면서 시대와 더불어 숨쉬고 사색하는 당의 작가가 되자, 당과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생활의 첨단에서 공격의 나팔을 부는 시대의 고수가 되자.

# 신념

김재규

사람들은 흔히 재부는 사색과 실천의 창조물이라고들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신념과 지혜, 노력을 두고 하는 말인가싶다.

무릇 과학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과학탐구의 길에 한생을 바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를 물려가면서 헌신하기도 한다.

자기 대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기도 하고 일신의 안락을 뒤로 미루며 과학성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는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그것을 응당한 본분과 사명으로 여긴다.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탐구와 사색의 한길로만 간다.

그렇듯 재부는 소중하고 고귀한것이다.

파연 무엇이 우리 시대 과학자들을 그렇게 살며 일하게 추동하는것인가?

그것은 매개 과학자들이 간직하고있는 신념과 의리가 있기때문이다.

신념! 그것은 사상과 의지의 표현이다. 의리!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은덕에 보답하려는 깨끗한 량심이다.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성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리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송죽같이 끈고 억센 마음, 자기가 선택한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확신하면 오직 그것을 위하여 만난을 극복해나가는 건인불발의 의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충실성은 신념으로부터 우리나라와야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 충실성으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문제를 해결하여 비날론생산의 넓은 전망을 열어놓은 과학원 화학연구소의 전체 과학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시였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접한 순간 나의 머리속에 는 백발이 성성한 로과학자 우수한박사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카바이드생산의 성과적해결!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인민의 고귀한 재부이다.

재부는 인민의 창조물이다. 우수한 박사가 지난 25년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바친 사색과 정열적인 노력의 결과에 이루어진 결정체이다.

1960년대초부터 우수한 박사를 잘 알고있는 우리들은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며 무기화학연구소로 달려갔다.

25년전만 하여도 그는 30대의 젊음이 팽팽하던 과학자였다. 어언 로년기에 들어서서 백발이 날리는 로박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저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외상박사〉의 무거운 짐을 오늘에야 벗어놓게 되었으니 무척 마음이 가볍겠습니다.》

하고 우라는 인사말처럼 말을 건네였다.

우수한 박사의 지난날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의 마음조차 가벼워지는상싶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좀처럼 연구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우수한동무는 량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빛을 지고산다는 의미에서 자칭 자기를 《외상박사》라고 불렀던것이다.

《외상박사》 이 네글자의 말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얼마나 열렬한 지향과 량심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오죽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불렀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카바이드생산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연구하도록 우수한박사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자신께서 그것의 공업화의 성공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고 박사는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하여 연구사업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우수한박사가 걸어온 그 길은 결코순탄하지 않았다.

세계 화학공업의 발전추세가 원유가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부 과학자들이 거기에 귀를 기

울이며 동요하고있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우리 나라의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카바이드생  
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밀어주시었다.  
새로운 방법의 카바이드생산문제의 연구, 이것은  
간단한 실험과정이 아니었다.

중간공장이 있어야 했고 큰 로와 거기에 따르  
는 설비들이 있어야 했다.

소형로에서 실험을 끝내고 큰 로실험으로 넘어  
가려고 하였을 때 연구집단앞에는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큰 실험로를 보장받을만한 힘을  
바랄수 없었으며 필요한 자재와 설비도 바랄수  
없었다.

그후 청수화학공장에서 필요한 모든것을 보장  
받은 그들은 거기에 다시 실험로를 전개하고 탐  
구의 나래를 펼쳤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것도 열번 스무번 정도가  
아니었다.

반대파들은 음으로 양으로 공격의 화살을 뻗쳐  
왔고 난관을 조성하였다.

게다가 가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  
러나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슬픔과 피로움도 그  
를 꺾꾸러뜨리지 못하였다.

피로움을 힘으로 바꾸며 다시 실험로결로 달  
려갔다.

10년, 20년, 세월은 흘렀으나 박사는 좀처럼  
성공수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단란한 생활도 가정적인 행복도 모두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바쳤다.

물론 우수한박사에게도 따뜻한 안해의 손길과  
단란한 가정의 품이 그리웠다. 그러한 호소가 담  
긴 안해의 편지를 받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였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호소도 받았고  
친척들의 노여움도 받았었다.

(안해는 내 연구의 성공을 절절히 바라며 갔는  
데 그가 바라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인간이겠는가.)

큰 로앞에서 몸을 탄가루속에 묻히며 실험과  
실험을 거듭하기는 그 얼마였던가.

세월은 흘러 20여년, 어느덧 박사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로년기에 들어섰다. 가족들과 집  
단의 동무들이 60뿔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하였으  
나 그는 《외상박사》의 빛을 벗지 못하고 무슨  
60뿔 생일상을 차리겠는가 하고 하면서 굳이 마다하  
였다.

1985년에 들어서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관심속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카바이드를 생  
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우수한박사가 중중첩첩한 만난을 박차고 25년  
간을 하루와 같이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정력적  
으로 계속해올수 있는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올리고야말겠다는 한줄기 불타  
는 마음을 심장속에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믿음을 주신 수령님께 심장을 바치고싶은 심정  
이었다.

25년전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수한박사의  
연구정형을 료해하시고 베풀어주신 두터운 은정  
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한줄기 신념과 량심, 수령  
님께서 친히 관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한 성공의  
날은 오고야말리라는 희망과 기대는 늘 그에게  
탐구와 사색의 정열을 불러일으켜주었었다.

비장한 결의도 가슴속에서 태동했었다.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당중  
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감사  
를 받아안은 순간 우수한박사는 눈물부터 앞세웠  
다.

《그렇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제가 오늘 20여년  
만에 <외상박사>의 짐을 벗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기나긴 세월 잠시  
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주  
신 덕분에 이루어진 결실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우리 집단을 비날  
론공장건설에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신임을 베풀  
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종자를 주시였고 친히 이끌어주신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카바이드를 대대적으로 생  
산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것이 순천비  
날론공장건설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수령  
님 령도의 위대성이 심장에 그대로 울려옵니다.

나이는 비록 60고개를 훨씬 넘었지만 심장은  
청춘들처럼 활기와 정열로 끓습니다.》

우수한박사의 신심에 넘친 말을 듣노라니 로목  
에도 꽃을 피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과 더불어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  
는 한 과학자의 불타는 신념, 송죽같은 량심과  
의리가 가슴뜨겁게 안겨오면서 그로하여 멀지 않  
아 카바이드와 비날론 등 나라의 고귀한 재부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되리라는것을 믿어마지않았다.

## 그 언제나 내 마음속에

김병규

출근길을 걷는 내 마음속에 문득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다.

《...명예와 리익이 있는곳을 골라가며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숨씨있게 바꾸는것도 역시 정당한 것이겠소? 당이 무엇을 요구하든 관계없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그 목소리를 새겨 듣는다.

그러면 수수한 작업복에 배낭을 걸머진 한 과학자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문화와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제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자기가 선택한 과학탐구의 길을 헤쳐가는 그는 누구인가? 그 언제 우리가 서로 만나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가...

아니다. 그는 얼마전 《조선문학》잡지에서 읽은 단편소설 《평양행급행별차》(김관일 작)의 주인공 김승호이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조용히 나타나 평범한 목

소리로 재능이란 치부를 위한 수단도 아니며 재능이란 말을 욕된것에 함부로 가져다쓰지 말라고 진정을 속삭이는 소설의 주인공-

그는 소설에 그려진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 생활의 평범한 주인공이며 이렇듯 내 생활의 매 순간마다 마음에 채찍을 얹어주며 우리당이 바라는 오직 한길로 발걸음을 맞추자고 손잡아이크는 길동무이다.

나는 《조선문학》잡지에서 이 소설을 책장이 보풀이 일도록 다시 또다시 읽으며 이 주인공과 친숙해졌다. 이 소설은 그 어떤 손재간이나 꾸밈으로써가 아니라 생활의 진실한 주인공을 이 평범한 독자와 우정을 맺어주었다.

참으로 소설은 취재길을 떠난 기자의 시점에서 각이한 인간들의 관계를 한줄로 재치있게 얹혀놓고 짜인 묘사수법과 진실한 생활과 성격형상들을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데 초점을 두었다고 본다.

그때문에 나는 때없이 김승호연구사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진실한 생활의 벼들들 소설작품들에서 또다시 기대하게 된다.

(량강도 대흥단군 토지건설대 지도원)

## 속담풀이

· **나 부를 노래를 사돈집에서 부른다.**

내가 허물할 일을 도리어 상대방이 들고나선다는 뜻이다.

· **나비도 밝은 불을 찾아온다.**

모든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곳으로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 **날면 기는것이 능하지 못하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일에 다 능할수 없다는 뜻이다.

· **남의 돈 천냥이 내 돈 한푼만 못하다.**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것이라도 자기것이 낫다는 뜻이다.

· **낮은 산과 대비해보아야 높은 산이 더 커보인다.**

다른것과 서로 대비해보아야 그 우월성과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 **넓고도 좁은게 세상이다.**

세상이 넓은것 같으면서도 넓지 못하다는 뜻으로 오래동안 헤여졌던 사람을 뜻하지 않게 만났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 **노루 친 막대 삼년 우린다.**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으면 두고두고 이리저리 여러번 리용한다는 말이다.

·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낮은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자리다툼이 심하여 신변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계급사회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폭로하는 말이다.

· **눈물은 내려도 밥술은 올라간다.**

(낮은 사회에서)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배고픈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다.

· **눈이 와야 숲이 푸른줄 안다.**

사람의 됃됨이는 어려운 경우를 당해보아야 참으로 알아볼수 있다는 뜻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기념일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 요강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성대히 기념하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자력갱생혁명정신교양을 위한 전국방송극작품 현상모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한다.

## 1. 현상모집작품의 종류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아동방송극편속방송극 (유쾌한 길동무)

련속아동방송극 (억남이와 재둥이)

풍자극, 토막극

## 2. 현상모집작품의 주제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과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②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한 작품

③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그를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④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주체의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주체사상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자력갱생혁명정신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

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관

철을 위한 투쟁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숨은 영웅들과 공로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

⑥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통일의 향도성으로 우러르며 반미자주화투쟁에 펼쳐나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⑦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며 나라의 영구분열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정체와 멸망상을 폭로하는 작품

##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면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 4. 응모작품을 보낼곳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부앞으로 우편 또는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결봉에는 (현상응모작품)이라고 밝히고 원고에는 응모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직위, 집주소를 써야 한다.

투고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5. 응모작품현상모집기간

1986년 5월부터 1987년 2월까지

## 6. 응모작품심사결과 발표

1987년 4월 15일을 전후하여 방송과 신문, 잡지들을 통해 발표하며 응모작품가운데서 당선수준에 이른 작품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전에 방송할수 있다.

당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



## 나는 연공

안학철

내 뛰놀던 동구길 하늘가에  
쏟알같이 내달는 수리개를 바라보며  
어린 마음에 부럽던  
그런 날개가 나에게 있어서인가

건설장에선  
한껏 뒤로 머리를 제치고야  
볼수 있는 그런곳에 내가 있다  
건설장에선 우릴 찾아도  
《수리개》라는 말로 통한다

제련소건설장  
아슬한 트라스우에 높이 올라  
신호기 흔들 때면  
못사람들 눈길이 다 모여오고  
운전공처녀들 정깊은 웃음이  
열정의 나래 더욱 펼쳐주나니

구름도 휘여잡는  
높은곳에서  
내 마음 드놀지 않는것은  
때좋은 이 청춘기의 가슴이  
남달리 넓어서인가

아니여라  
무심히 쏠리는 하나의 눈빛에서도  
조국의 믿음을 느낄줄 알고  
하늘같은 당의 사랑에 자란 청춘

내 보답할 위훈의 높이는  
언제나 저 하늘 한끝에 엮고사는 마음  
그 마음이  
연공, 나의 날개여라!